

서울시 지역사회 여성 소집단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신경희

시 정 연
2002-R-34

서울시 지역사회 여성 소집단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Accelerating Women's Small Group Activities at Local Communities
in Seoul

2002

연구진

연구책임 신 경 희 • 도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연구원 이 순 희 • 도시사회연구부 위촉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I. 연구의 개요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여성의 지역사회 소집단 활동 활성화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여성정책과 지역사회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정책 추진전략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i)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단체 발굴, ii) 발굴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단체 결성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단체활동이 여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다양한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iii) 이러한 조사결과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연구방법은 i) 여성 단체활동과 관련된 문헌연구와 기존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 재분석, ii) 신문, 인터넷, 문헌조사, 법제도 등의 조사를 통한 여성 소집단 유형 파악, iii) 소집단 발굴을 위한 공공문화복지시설, 시민단체 조사, 운영자 간담회 및 심층면담조사, iv) 소집단 여성 활동자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2. 여성단체 활동의 의의와 필요성

■ 여성 소집단 활동과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 형성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발적 결사체 형태로 활동하는 여성 소집단은 그 사회나 지역을 발전시키는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의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자원봉사활동, 환경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여성 지역사회활동 참여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 창출을 위해 공공이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시민단체 활동을 통한 여성의 인적 자본 발전과 사회 및 여성 의식 확장

- 여성들이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 향상, 의사소통 능력, 팀 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발전과 함께 지식과 기술을 사회화할 수 있음.
-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여성들이 사회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확장시켜감.

3. 서울시 여성의 사회활동 현황 분석

■ 사회단체 활동

-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서울시 여성으로 사회봉사단체나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여성은 3.2%, 여성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여성은 2.4%로 나타나, 서울시 여성의 사회단체 활동은 저조한 편임. 그러나 서울시 여성의 36.3%가 사회봉사단체나 시민단체에 관심을 갖고 있음.
- 사회단체 참여 여성은 비참여 여성보다 시정에 참여한 경험이 많고, 시정 참여 의향도 높음.

■ 자원봉사활동

- 만 20세 이상 서울시 여성으로 지난 1년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여성은 28.4%로 나타났음. 그러나 향후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여성은 57.8%로 높게 나타났음.
- 사회단체 참여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50%, 비참여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3.3%로 나타나 사회단체 참여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비참여자에 비해 매우 높음.

■ 경제활동

- 15세 이상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2%이며, 비경제활동인구의 68.9%가 가사와 육아 상태, 21.7%가 통학 상태에 있음.
-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낮아지며,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의 단순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음.

4. 서울시 여성의 소집단 활동 실태조사 분석

■ 소집단 유형과 활동기반의 근거

- 서울시 여성의 소집단 활동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문화복지시설에 활동기반을 두고 있는 여성 소집단, 시민단체 내 여성 소집단, 새마을 동부녀회와 자치구 주부환경연합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공공문화복지시설에 활동 기반을 둔 소집단의 대부분은 공공이나 민간시설의 교육강좌가 계기가 되어 단체 결성과 활동을 시작하게 됨.
- 시민단체 소집단은 같은 분야에 관심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소집단 결성, 시민단체 교육강좌 참여를 통한 결성, 또는 시민단체가 소집단 활동자를 직접 모집하여 결성되는 경우, 자생적으로 결성된 소집단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경우 등, 소집단 결성 계기가 다양함.
- 동부녀회와 주부환경연합은 행정 주도로 결성된 지역단체이기는 하나, 참여는 자발적임.

■ 소집단 활동 내용

- 단체 유형에 따라 활동 내용의 비중에 차이가 있으나, 문화·학습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역 및 사회운동 등의 세 가지 유형의 활동이 혼재되어 있음.
- 공공문화복지시설 소집단은 문화·학습 활동 비중이 크나 활동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중점을 두되 활동에 필요한 학습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그리고 문화·학습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만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시민단체 소집단은 지역·사회운동에 중점을 두되 활동에 필요한 학습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 비중이 크지만 활동을 위한 학습활동 병행, 또는 문화·학습활동만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새마을 동부녀회는 주로 노력 자원봉사나 불우이웃돕기 기금 조성을 위한 판매 활동형 자원봉사가 활동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주부환경연합은 환경운동을 하면서 활동 전문성을 위한 학습활동, 판매활동형 자원봉사를 하기도 함.

■ 조직 구성

- 대부분의 소집단은 회원 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조직을 확대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별 모임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 수 30명 이내 수준에서 활동 단위를 조정하고 있음.
-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직책으로 조직구성을 하고 있으나, 회원들은 수평적 관계에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와 계층간 교류

- 여성 소집단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임. 소집단 활동을 통해 연령 계층, 소득 계층, 농촌지역과의 교류, 행정과의 파트너십 활동이 미약하지만 진행되고 있음.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 일부 소집단은 단체간 연대활동이나 지역사회 내 학교나 여타 기관과 연계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수준임. 그러나 단체간 연계활동, 지역사회 활동 참여 의향이 높아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있으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큼.

■ 소집단 활동자의 개인적 특성

- 소집단 활동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적 특징으로는 자녀양육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40대의 고학력 중산층 전업주부로 종교를 가진 여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소집단 활동의 영향과 결과

- 소집단 활동을 통해 여성들은 정신적 성장과 신체적 건강을 경험하며, 활동 분야의 전문성 향상 등으로 개인의 인적 자원을 발전시키고 있음.
-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 확장, 지역사회와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 확대, 사회 및 여성문제 의식의 확대로 나아가고 있음. 그리고 소집단 활동으로 가족관계가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희망 지원 사항

- 소집단 활동자들은 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 강좌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장소, 시설장비, 재료비 지원, 지역사회 활동 기회 제공을 가장 희망하고 있음.

II. 정책 건의

1. 평생교육을 통한 소집단 결성과 활성화 전략

■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지역사회 소집단 결성과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 공공문화복지시설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 단체 결성과 활동을 위한 지원 장소, 즉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집단 활동의 중요성, 운영지원 방법 등의 연수교

육을 실시함.

■ 소집단 결성과 지원책

- 소집단 활동자 대상의 조직운영 및 리더십 교육 지원.
- 지역사회 소집단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교육 및 강사 요청시 이를 지원하는 체제 구축.
- 여성 소집단 활동과 여성정책관실의 여성학 강좌를 접목하여, 활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여성학 강좌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자원봉사센터와 공공문화복지시설에서 소집단 결성을 유도하고, 소집단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함.

2. 지원체제 구축

■ 서울시와 서울여성 플라자의 역할

- 서울시는 지역여성단체와 자치구가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 역할을 함.
- 서울시는 지역사회 여성단체와 자치구 행정간의 파트너십을 평가하고 우수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과 홍보를 함.
- 서울여성 플라자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이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종사자 연수교육, 전문교육강좌 지원, 활동에 필요한 상담과 행정정보를 제공함.
- 서울여성 플라자는 여성단체 활동의 정보기지 역할을 하며, 단체간 교류와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를 발굴하여 지역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를 함.
- 여성단체 우수활동사례집을 발간하여 여성단체나 공공문화복지시설, 시민단체,

자치구 등에 배포함. 특히 자치구 공무원 대상의 홍보와 교육활동을 실시함.

- 서울여성 플라자는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중추기관 역할을 하며, 여성자원활동자 교육 및 실무자 연수교육 등,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기 힘든 사업을 함.

■ 자치구의 지원 역할

- 자치구는 주민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행정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 주민들의 참여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 주민단체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함
- 자치구는 지역여성 단체 활동에 필요한 장소, 기자재, 사업비 등의 지원을 함.
- 자치구는 지역 여성단체가 학교나 여타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 지역네트워크를 결성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함.

■ 지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지역사회 여성 소집단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규정을 만듦.

3. 교류 공간의 활성화

■ 소집단 교류의 장 개최와 지원

- 자치구나 서울시는 여성 소집단 경연제, 공모전, 박람회 등의 다양한 형태의 페스티벌을 개최하거나 지원하며, 여성 활동자들이 행사를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여성 소집단 활동자들이 활동사례 발표회 및 분야별, 분야간 교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가족 교류의 장 개최

- 서울시와 서울여성 플라자는 여성 지역단체활동과 관련한 가족 단위 참여 프로그램 개발하고, 가족 모임 행사 개최와 예산지원을 함.

■ 사이버 정보 교류의 장 활성화

- 공공문화복지시설 홈페이지에 여성 소집단 게시판을 설치하도록 유도 및 지원.
- 서울여성 플라자는 여성단체 DB 구축, 국·내외 여성단체 정보수집과 홈페이지 연계 등의 정보제공을 통해 여성단체 활동과 관련된 정보 수신과 발신처 역할을 함.
- 자치구 홈페이지에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 게시판을 설치하여,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단체의 홈페이지와 접속할 수 있도록 함.

4. 지역사회 활동 기회 제공과 확대

■ 행정과 여성 소집단의 파트너십 형성

- 자치구는 지역사회의 공공문화복지시설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에 지역의 여성 소집단과 협력 사업을 하도록 함. 자치구나 서울시의 문화행사나 지역축제 행사에 여성 소집단 참여를 활성화함.

■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에서 활동 기회 제공

- 여성 소집단이 방과후 학교, 학생 동아리 지도 교사로 참여하거나,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문화복지시설에서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5. 대상별 소집단 활동 지원 전략

■ 10대 청소년의 지역사회 단체 활동 활성화

- 학생들의 지역사회 단체 활동에는 교사의 역할이 크므로 지역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교사 초청 간담회, 지도교사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함.
- 청소년 소집단이 단체 프로젝트를 할 경우 소정의 사업비를 지원함.

■ 여성 장애인 자조 소집단 지원 강화

- 여성 장애인이 자조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에 특별 지원을 함.

■ 직장 여성 소모임 지원

- 직장 여성들이 퇴근 후 공공시설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시설개방을 함.

■ 20-30대 젊은 층의 지역사회 단체 활동 유도

- 20-30대 여성들은 자녀교육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적 활동에 관심이 많으므로 자녀교육이나 전문교육강좌를 통해 지역단체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을 위한 공공탁아지원을 함.

6. 자원봉사활동 지원체제 다양화

■ 소정의 활동비 지원

- 자원봉사활동이 일반인 대상의 지식이나 기술전수를 하는 경우 소정의 활동비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재료비 지원

- 재료비가 들어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재료비 지원을 함.

■ 교육 지원

- 자원봉사활동자의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활동자들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명예형 지원

- 명예 자원봉사활동자 제도를 만들어 공공문화복지시설 이용료 삭감이나 공공행사에 초대하고, 단체활동을 홍보해 줌.

목 차

제 I 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구성	5
제 II 장 여성 소집단 활동 관련 이론의 고찰	11
1.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과 소집단 활동	11
2.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12
3.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여성의식 및 사회의식	14
4. 시민단체활동과 공공의 역할	15
제 III 장 서울시 여성의 사회활동 현황과 분석	21
제1절 사회단체 활동	21
1. 사회단체 참여 여부와 참여 유형	22
2. 사회단체 관심도	27
3. 사회단체 여성 활동자의 여성 및 행정 참여 의식	29
제2절 자원봉사 활동	32
1. 자원봉사 참여 현황	32
2. 서울시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 의향과 희망 분야	38
제3절 경제활동	43
1. 서울 시민의 경제활동참가율	43
2. 서울시 여성의 취업 특성	44
제4절 요약 정리	46

제 IV 장 서울시 여성 소집단 활동 실태조사 분석	51
제1절 조사개요	51
제2절 사례조사 결과 분석	58
1.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소집단 현황	58
2.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여성 소집단 사례조사	60
3. 시민단체의 여성 소집단 사례조사	110
4. 새마을 동부녀회와 자치구 주부환경연합 사례조사	150
제3절 소집단 활동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156
1. 개인 및 가구 특성	156
2. 활동 특성	170
3. 활동 영향과 결과	183
4. 활동의 장애요인 및 희망 지원책	208
제4절 정리 요약	225
제 V 장 정책 제언	233
1. 평생교육을 통한 소집단 결성과 활성화 전략	233
2. 지원체제 구축	235
3. 교류 공간의 활성화	238
4. 지역사회 활동 기회 제공과 확대	240
5. 대상별 소집단 활동 지원 전략	241
6. 자원봉사활동 보상 지원체제 다양화	243
참고문헌	247
부록 1 : 공공문화복지시설 설문지	251
부록 2 : 소집단 활동자 설문지	252

표 목 차

<표 3-1> '서울시민의 생활과 의식조사' 여성 응답자의 연령과 직업	22
<표 3-2> 서울시민의 성별 사회단체 참여 여부	23
<표 3-3> 서울시민의 성별 사회단체 참여 유형	24
<표 3-4>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사회단체 참여 유형	25
<표 3-5> 서울시 여성의 직업별 사회단체 참여 유형	26
<표 3-6> 취업여성의 직종별 사회단체 참여 유형	27
<표 3-7> 서울시민의 성별 시민사회단체 관심도	27
<표 3-8>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시민사회단체 관심도	28
<표 3-9> 서울시 여성의 직업별 시민사회단체 관심도	29
<표 3-10> 사회단체활동 경험유무에 따른 남녀차별 경험	30
<표 3-11>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남녀평등 대우	30
<표 3-12> 사회단체 참여 유무에 따른 시정 참여 경험	30
<표 3-13> 사회단체 참여경험에 따른 시정 참여 의향	30
<표 3-14> 사회단체 참여 유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	32
<표 3-15> 여성과 남성의 참여 자원봉사 유형	33
<표 3-16> 서울시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율	34
<표 3-17> 서울시 여성의 학력별 자원봉사 참여율	34
<표 3-18>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35
<표 3-19> 서울시 여성의 혼인상태별 자원봉사 참여율	35
<표 3-20> 서울시 여성의 직업별 자원봉사 참여율	36
<표 3-21> 자원봉사 활동분야	36
<표 3-22> 서울시 여성 인구특성별 자원봉사 활동분야	37

<표 3-23>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	38
<표 3-24> 서울시 여성의 인구특성별 자원봉사 참여 의향	39
<표 3-25> 자원봉사 희망 분야	41
<표 3-26> 인구특성별 향후 자원봉사 희망 분야	42
<표 3-27> 서울시 1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비경제활동인구	44
<표 3-28>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인구와 취업자 수(2000)	45
<표 4-1> 소집단 사례조사의 조사내용	55
<표 4-2> 실무자 간담회 토론 내용	56
<표 4-3> 소집단 활동자 설문조사의 조사내용	57
<표 4-4> 시설별 소집단 수	57
<표 4-5> 특정대상별 소집단 활동 유형	59
<표 4-6> 소집단 결성 시기	59
<표 4-7> 소집단 활동자의 연령	60
<표 4-8>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명칭	61
<표 4-9>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회원 수	62
<표 4-10>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결성 시기	62
<표 4-11>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 일반현황	63
<표 4-12>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피면담자 연령	64
<표 4-13>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피면담자의 특성	65
<표 4-14>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결성 계기	67
<표 4-15>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 결성의 주도적 역할자 ..	68
<표 4-16>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조직 구성	76
<표 4-17>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회원 유동성	78
<표 4-18>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 회원의 거주지 분포	86
<표 4-19>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회원 연령층	89

<표 4-20>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학습 방식	91
<표 4-21>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자원봉사활동	92
<표 4-22>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단체 연계	103
<표 4-23>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일반사항	111
<표 4-24>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회원 수	112
<표 4-25>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결성 시기	112
<표 4-26>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피면담자 연령	113
<표 4-27>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 피면담자 사항	113
<표 4-28>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결성 과정	117
<표 4-29>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이 받고 있는 지원의 유형	123
<표 4-30>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회원모집	128
<표 4-31>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 회원의 거주지 분포	133
<표 4-32>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지역 네트워크	142
<표 4-33> 단체유형별 연령 및 활동시작 연령	156
<표 4-34> 단체유형별 학력 분포	158
<표 4-35> 단체유형별 종교 분포	159
<표 4-36> 단체유형별 혼인상태	159
<표 4-37> 단체유형별 평균 자녀 수 및 막내자녀 나이	160
<표 4-38> 단체유형별 소득수준 및 주관적 계층 평가	161
<표 4-39> 활동자 거주지역 분포	162
<표 4-40> 단체유형별 평균 거주연한	163
<표 4-41> 단체유형별 활동자의 경제활동 경험	163
<표 4-42>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자의 직종	164
<표 4-43> 경제활동 중단 시점과 중단 이유	165
<표 4-44> 단체유형별 경제활동 의향 및 경제활동 장애요인	166
<표 4-45> 단체유형별 다른 단체활동 참여 유무	168

<표 4-46> 다른 단체활동 평균 참여 수	168
<표 4-47> 단체유형별 자원봉사 참여 의향	169
<표 4-48> 단체유형별 활동시작 연도	170
<표 4-49> 단체유형별 평균 활동기간	171
<표 4-50> 단체유형별 단체활동내 직책	171
<표 4-51> 직책유무별 활동 기간 및 연령	172
<표 4-52> 단체유형별 활동 모임 회수	173
<표 4-53> 직책유무별 활동 모임 회수	173
<표 4-54> 단체유형별 단체활동 참여 통로	175
<표 4-55> 단체유형별 단체활동 목적	178
<표 4-56> 단체유형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방식	181
<표 4-57> 학력수준별 참여 학습활동 평균 수	183
<표 4-58> 단체활동이 정신적 성장과 건강에 미친 영향 평가	184
<표 4-59> 단체유형별 정신적 성장과 건강에 대한 영향 평가	185
<표 4-60> 단체활동이 전문성과 사회활동 능력 양성에 미친 영향 평가	187
<표 4-61> 단체유형별 전문성과 사회활동 능력 양성에 미친 영향 평가	188
<표 4-62> 단체활동이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평가	190
<표 4-63> 단체유형별 소집단 활동이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평가	191
<표 4-64> 단체활동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196
<표 4-65> 단체유형별 사회적 관계 영향 평가	197
<표 4-66> 단체활동이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평가	199
<표 4-67> 단체유형별 거주지 선택 영향 평가	200
<표 4-68> 단체활동 후 지역사회 관심도 영향 평가	201
<표 4-69> 단체유형별 지역사회 관심도 영향 평가	202

<표 4-70> 단체활동이 여성문제 관심에 미친 영향 평가	205
<표 4-71> 단체유형별 여성문제 관심 영향 평가	205
<표 4-72> 단체활동이 사회문제 관심에 미친 영향 평가	206
<표 4-73> 단체유형별 사회문제 관심 영향 평가	207
<표 4-74> 단체활동의 장애 요인 평가	209
<표 4-75> 단체유형별 활동 장애요인 평가	210
<표 4-76> 타 단체와의 교류 희망 정도	213
<표 4-77> 단체유형별 타 단체와의 교류 희망 정도	213
<표 4-78> 시설 및 교육, 사업비 지원 필요도	215
<표 4-79> 단체유형별 시설 및 교육, 사업비 지원 필요도	216
<표 4-80>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 기회 제공의 필요성	219
<표 4-81> 단체유형별 활동 기회 제공의 필요성	219
<표 4-82> 단체활동과 관련한 행정의식 변화와 홍보의 필요성	221
<표 4-83> 단체유형별 행정의식의 변화와 홍보 필요성	222
<표 4-84> 소집단 활동 관련 행정 우선 지원 사항(1순위)	224
<표 4-85> 소집단 활동 관련 행정 우선 지원 사항(2순위)	225

그림 목 차

<그림 3-1> 자원봉사 참여율	33
<그림 3-2> 성별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	44
<그림 3-3> 성별 취업자의 학력별 분포	45
<그림 3-4> 성별 취업자의 직업 분포	46
<그림 4-1> 조사단계별 조사방법	51
<그림 4-2> 단체유형별 행정과 법제도 지원의 관계 정도	226
<그림 4-3> 단체유형별 활동내용	228

第 I 章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 2 절 연구 구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여성 사회참여 정책 추진 전략의 다양화 필요

여성의 경제 및 사회참여 활성화는 여성정책의 핵심목표이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여성정책이나 여성운동은 거시적 차원의 법제도 개선에 주력해왔다.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법제도 차원의 정비와 개선, 그리고 일부 대규모 여성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기존의 하향식 여성정책과 여성운동이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기에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인 제도적 차원의 기반조성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여성 사회참여 정책은 활동영역과 여성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상향식 추진방식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계획인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6대 과제의 하나로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설정되었고, 과제 실현을 위한 3가지 실천사업으로 여성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 자원봉사활동 등의 시민운동 지원,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제시되었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여성단체, 특히 소집단 형태의 여성 조직 활동 활성화는 이러한 여성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자, 여성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상향식 여성정책 추진 전략의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접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나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행정의 주민참여,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으며, 행정의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민선 3기 서울 시정이 출범하면서 수립

한 [비전 서울 2006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지역주민 참여의식 제고와 거주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정책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거주지 중심 지역사회의 주민 참여 활성화가 도시행정의 주요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거주지 중심의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전일제 주민이라 할 수 있는 여성, 특히 전업주부의 역할과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장 and 거주지가 분화된 대도시 서울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민은 주부와 청소년, 노인이다. 그리고 거주지 중심 지역사회의 주민참여 내용은 교육, 환경, 소비문제 등의 재생산 영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정치라 불리우고 있는 이런 영역은 일상적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도시지역사회의 지역주민참여와 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70년-1980년대에 일어난 서구의 새로운 사회운동-환경운동, 소비자 운동, 평화운동, 시민주도 운동-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은 교육받은 중산계층이면서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람들, 따라서 결과적으로 시간 활용에 다소 융통성이 있는 중산층 주부, 고등학생과 대학생, 은퇴한 사람들, 실직상태나 주변적인 고용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이라고 한다¹⁾.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교육수준은 높으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의 30-40대 주부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중추세력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력수준이 높아진 30-40대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차별과 육아 등의 문제로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가 부진하지만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에 적극적 의사를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활발해지기 시작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지역주민운동단체의 경우, 단체가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열어 놓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0-40대 주부의 비중이 높다고 한다²⁾. 이는 자기 계발의 욕구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가진 사람이 바로 30-40대의 주부이기 때문

1) 클라우스 오페, 1985, “새로운 사회운동: 제도정치의 한계에 대한 도전”, 정수복(편역),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1993, 95-96쪽.

2) 한국도시연구소, 1999, 「지역주민운동 리포트」, 322쪽.

이다. 지역사회 주민참여와 주민단체 활동이 우리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활발하였던 일본의 경우, 주부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가족들이 지역사회 활동으로 편입된다고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주민참여 지방자치 활성화 전략의 거점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여성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단체 활동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 단체를 발굴하고, 둘째, 발굴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단체 결성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체 활동이 여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다양한 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셋째, 이러한 조사결과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 구성

1.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여성의 단체 활동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있다. 3장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200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재분석, 통계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여성의 사회활동을 사회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경제활동 등의 3가지 차원에서 실태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신문, 인터넷, 문헌조사, 법제도 등의 조사를 통해 여성 소집단의 유형을 파악하고 3가지 방법으로 여성 소집단을 발굴하고 있다. 첫째, 공공문화복지시설에 기

반을 두고 활동하는 여성 소집단의 경우, 공공문화복지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팩스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을 하였다. 둘째, 시민단체 내에서 활동하는 여성 소집단의 경우, 시민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서울시에 등록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실태파악을 하였다. 셋째, 새마을 동 부녀회는 서울시 새마을 서울지부를 통해 실태파악을 하였다.

공공문화복지시설 조사를 통해 발굴된 220개 여성 소집단 중에서 23개 단체, 시민단체 조사에서 파악된 47개 여성 소집단 중에서 12개 단체를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하였다. 소집단 사례조사는 소집단 활동자 심층면담조사와 공공문화복지시설 운영자, 시민단체 상근 실무자의 심층면담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부녀회의 경우 2개 자치구 부녀회장 심층면담조사와 8개 동 새마을 부녀회장 간담회, 서울시 새마을 부녀회 지부 상근 실무자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례조사로 선정된 소집단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기기입식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07명의 소집단 활동자가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5장에서는 4장의 소집단 실태조사 결과분석과 공공복지시설 운영자, 시민단체 활동자, 소집단 활동자, 전문가 간담회를 토대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2. 용어 정의

1) 지역사회

대도시 서울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역사회를 정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차원의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민선거에 의해 의회와 행정부가 구성되는 최소단위인 자치구와 동을 기준으로 지역사회를 설정한다. 자치구를 단위로 대생활권 지역사회가 형성되고, 동을 중심으로 소생활권 지역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설정한다.

우리나라에서 1991년 주민선거로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1995년 주민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자치구가 주민이 행정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지역단위로 되었다. 그리고 자치구 정책이나 문화복지시설 수혜의 대상범위도 자치구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민들도 자치구 중심의 지역

정체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가 여성의 지역사회 단체 활동이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활성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주민의 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권역인 자치구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소집단

본 연구는 법인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대규모 시민사회단체에 일반여성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여성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활동기반을 두는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여성조직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해 단체가 아닌 소집단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기준의 하나로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해당되지 않는 100인 미만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를 소집단으로 정의한다. 활동내용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화·학습, 자원봉사, 지역 및 사회운동 등의 공동된 목적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소집단이 갖는 함의는 지역사회 소집단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 의사소통행위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소집단은 회원간 수평적 관계하에서 대면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인간관계 그 자체의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로 교육, 가족, 환경, 소비 등의 재생산 영역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상호이해와 의사소통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第 II 章

여성 소집단 활동 관련 이론의 고찰

1.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과 소집단 활동
2.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3.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여성의식 및 사회의식
4. 시민단체활동과 공공의 역할

제 II 장 여성 소집단 활동 관련 이론의 고찰

1.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과 소집단 활동

1990년대 들어 학계나 정책 분야에서 사회나 한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물질 자본, 인적 자본 외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대표적 연구자인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푸트남은 이웃 간의 모임, 합창단, 협동조합, 운동클럽, 조류탐사단과 같은 시민의 자발적 결사체를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보고 있다. 푸트남에 의하면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소규모 조직은 회원간에 밀도 높은 대면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조직들이 한 지역 내에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이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 그는 다양한 사회적 영역을 가로지르는 시민적 참여의 네트워크는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인 사회교환 관계에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한 사회나 지역의 문화로 자리잡는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가 곧 한 사회나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고 한다³⁾.

푸트남은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로 5개 영역 14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첫째 영역은 공동체 조직생활 측정지표로, ① 지난 1년 간 지역조직의 위원을 맡아본 인구 비율, ② 지난 일년간 조직이나 클럽의 임원으로 활동한 인구 비율, ③ 인구 1,000명당 사회단체 수, ④ 지난 일년간 클럽모임에 참가한 회수, ⑤ 클럽의 회원 수를 들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은 공적인 일의 참여 측정으로, ① 대통령 선거 참가율, ② 지난 일년간 마을이나 학교 일로 공공회의에 참여한 비율 등의 2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 영역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측정으로, ① 인구 1,000명당 비영리조직의 수, ② 지난 일년간 지역사회 사업에 투여한 시간량, ③ 지난 일년간 자원봉사활동으로 일한 시간량 등의 3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네 번째 영역은 비공식 사교의 측정으로, ① 나는 친구를 만나는데 많은 시간을 쓴

3) 로버트 D. 푸트남, 1994, 안청시 외(옮김),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 ② 지난 일년간 집에서 파티를 열은 회수를 사용하고 있다.

다섯번째 영역은 사회적 신뢰의 측정으로, 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 ②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다에 동의하는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푸트남은 사회적 자본이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동의하는 아니라고 한다. 시민이 지지정당에 헌금을 하는 것은 정치적 참여이지만, 그런 행위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며, 보울링 연맹에서 함께 운동하거나, 동료나 주민들이 함께 차를 마시는 행위는 정치적 참여는 아니지만 사회적 자본을 창출한다고 한다. 주민들이 상호간 대면 접촉을 통해 지역사회와 다른 주민들과 연계될수록 자발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높으며, 호혜성의 규범이 지켜지고, 사람들을 더 신뢰하게 된다고 한다⁴⁾.

푸트남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에서 소규모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문화·학습 단체활동, 지역 및 사회운동 단체 활동, 자원봉사단체 활동 등은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일반적으로 학력으로 측정되는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해 신고전경제학자들은 합리적 개인이 미래의 보상을 예측하여 개인의 합리적 선택으로 결정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합리적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나면서, 1990년대 들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즉,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상호강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의 인적 자본 투자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사회적 자본 축적으로 이어지고, 역으로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인적 자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러 유형의 단체에 가입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인적 자본이 개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⁵⁾.

4) Robert D. Putnam, 2000, *Bowling Alone*, Simon & Schuster, New York.

사회적 자본이 인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인 콜맨은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가족이나 지역사회, 학교 등의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논증하였다⁶⁾.

사회적 자본이 인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사례로는 학습 조직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고, 지역이나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혁신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혁신은 지역 내 여러 차원의 조직들이 상호협동과 신뢰에 기반한 네트워크로 상호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학습 조직이 사회적 자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⁷⁾. 혁신이 개인이나 조직 상호간 정보교환과 상호학습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은 개인이 다른 유형의 사람 및 조직들과 협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적 자본의 개념이 동기화와 인내, 윤리가치에 대한 적절한 판단, 팀 작업 능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

5)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ECD.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단체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1999)의 사회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대졸 이상 학력자의 38.7%, 고졸자의 26.2%, 중졸자의 16.3%, 초졸 이하의 10.5%가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단체 참여유형을 보면, 대졸 이상 학력자의 7.4%만이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고졸자의 9.5%, 중졸자의 16%, 초졸 이하 9.4%와 비교한다면, 대졸자의 사회·봉사단체율이 가장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고 전문관리직일수록 개인적 목적을 위한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으나,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낮다.

6) James S. Coleman,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 S120.

콜맨은 청소년의 인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지표로 학생의 전학 건수(지역에서 형성한 사회적 자본이 이사로 깨어진다고 가정함), 비캐톨릭 종교학교, 캐톨릭 학교, 사립학교(부모가 같은 종교 공동체에 다니면서 상호작용 기회가 많은 캐톨릭 학교의 학생이 부모가 거의 만날 기회가 없는 사립학교의 학생보다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전제로 함)를 선정하고 있다.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사회적 자본으로는 가족형태, 자녀의 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의 수준과 질 등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로는 주민들의 거주기간, 조그만 친절을 교환하는 이웃의 수, 이웃에 대한 견해, 이웃과 인사하는 비율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학교의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교체회수, 학생의 교우관계, 교사에 대한 존경심 등이 사용된다.

7) OECD, 2001,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OECD

다. 학습조직은 개인의 발전과 함께 지식과 기술을 사회화한다는 차원에서 주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⁸⁾.

3.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여성의식 및 사회의식

1831년 미국을 방문한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A.D. Tocqueville)은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주는 사회적 조건으로 결사체를 잘 만드는 미국인의 성향에 주목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를 만들고 참여하는 것을 새로운 기술이라 부르며, 민주적인 나라는 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킨 나라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시민 결사체 활동을 통하여 협동의 습관과 연대성, 공공정신을 키우게 된다. 시민단체에 참여하면서 회원들은 협력의 기술과 아울러 집단 사업에 대한 공동책임을 키우면서 정치의식과 시민성을 함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명시적 목적이 반드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결사체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합창단이나 조류관찰 클럽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규율을 익힐 수 있고 성공적인 협동의 기쁨을 알 수 있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수평적 관계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대면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결사체는 효과적인 사회적 협동을 조장하고 효과적인 민주통치에 공헌한다⁹⁾.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기에 있었던 미국 여성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정치참여 과정에 여성들의 친밀한 모임인 문학클럽 등의 비공식 자발적 결사체가 여성의 정치활동 참여를 위한 지렛대가 되었다고 한다. 여성들은 이런 모임을 통해 그들 자신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하고 공적으로 발표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고, 따라서 조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할 수 있었다. 당

8)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혼자서는 자신의 업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 지식인 집단이 출현하고 발전하는 데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집단과 동료들과의 정기적인 접촉이 필요하다고 한다. 17-18세기 유럽에 지식인 집단이 출현하고 발전하는데 지식인들간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 체도가 살롱과 커피하우스라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현재의 지식기반사회에서 학습조직이 갖는 중요성과 의의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루이스 코이저, 1970, 이광주(옮김), 1993, 「살롱 카페, 아카데미: 지식인과 지식사회」, 지평문화사.

9) 로버트 푸트남, 1994, 안청서 외 옮김, 2000, 앞의 책.

시 정치적 시민으로서의 여성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거부되었으나, 여성들의 이 같은 단체활동은 여성의 시민성 양성을 위한 학교로서 기능하였고, 이렇게 익힌 조직능력을 기반으로 이후 참정권 운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었다¹⁰⁾.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주민운동을 비롯한 신사회운동의 중심은 여성이었다. 대규모 조직에 대한 불신감과 보수적 편향의 지역조직에 만족하지 못한 여성들이, 가까운 생활의 구체적 문제 해결에 눈을 돌려 공동의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소그룹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였다. 지역사회 소집단 활동을 통해 여성들이 주체성을 자각하고 자력으로 지역운동에 참여하면서 유명인, 직업운동가 대신 무명의 주부와 직업여성인 사회운동의 리더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여성운동 조직은 무엇보다도 지역에 기반한 조직이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중심의 사회통합적 성격이 운동의 규모를 키우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보다 진보적인 여성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¹¹⁾.

이 외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소집단과 관련하여 미시적 동원맥락이란 개념이 있다. 집합행동을 위한 초보적 조직형태가 만들어지는 소집단 상황을 일컫는 이 개념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억압받은 집단이나 주변화된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조직이나 모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개인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집단적 상황에서 문제의식과 의미가 공유되고 사회적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며, 이는 경험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¹²⁾.

4. 시민단체활동과 공공의 역할

자원봉사, 환경, 교육 등의 비영리 시민사회단체나 문화·학습 등의 시민단체 활동을 한 사회나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으로 인정하는 학자들

10) Clement Elisabeth S. 2001, "Securing Political Returns to Social Capital : Women's Associations in the U.S", in Robert I. Rotberg(ed.), *Patterns of Social Capit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 정진성, 2001,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 나남

12) 정수복, 2001,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아르케

사이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창출과 행정의 역할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 있다.

하나의 사회적 자본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¹³⁾. 시민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오나, 한 개인에게 전유되는 것은 아니어서 저투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의 구축에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며, 따라서 공공이나 비영리부문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¹⁴⁾. 특히, 1990년대 들어 행정의 패러다임이 지방 정부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¹⁵⁾.

또 하나의 시각은 사회적 자본이 종교나 윤리적 습관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복지국가의 지속적 확대와 정부정책의 개입이 사회적 자본을 오히려 붕괴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정부정책들이(예를 들면 PTAs)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국가와 시민사회는 공생관계에 있고, 국가의 복지재정 비율이 높은 북유럽의 국가들이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와 시민단체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사실로 이러한 시각을 반박하는 입장이 있다¹⁶⁾.

일본의 경우 전통적 지역단체로 정내회·자치회, PTA, 어린이회, 직능단체가 있었고, 1960년대 말부터 지역환경과 관련된 주민운동단체가 활성화되었고, 1970년대에는 문화, 스포츠, 학습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지역운동은 시민사회에서의 미세한 자생적 움직임을 국가가 포섭하여 크게 확대시킨 형태로 출발

13) Portes는 사회적 자본이 공공재(public goods)이기는 하나, 공공악재(public bads)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역기능으로 외부인 배제, 집단 구성원에게 과도한 요구, 개인 자유의 억제, 개인 발전을 막는 하향적 수준의 규범 등을 들고 있다. (A. Portes,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4, pp.1-24)

14) Paul Dekker, Eric M. Uslaner, 2001, "Introduction", in Paul Dekker, Eric M. Uslaner(ed.),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Routledge, London, p. 3.

15) APCF, 1997, *The City Community Building Bridges to Sustainability*, White Paper.

16) M. Woolcock, 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s Development", *Theory and Society*. vol 27.

푸트남과 콜맨은 사회적 자본을 공공재로 보며, 사회적 자본 창출에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후쿠야마의 경우 정책적 개입이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킨다는 입장이다.

되었다고 한다. 즉 일본의 지역운동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되어 왔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일본의 지역활성화 운동은 시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공동참여라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2000년에 제정되면서 제한적이기는 하나 제도적 차원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공공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第 Ⅲ 章

서울시 여성의 사회활동 현황과 분석

제 1 절 사회단체 활동

제 2 절 자원봉사 활동

제 3 절 경제활동

제 4 절 요약정리

제 III 장 서울시 여성의 사회활동 현황과 분석

서울시 여성의 사회단체 참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정개발 연구원에서 2002년 7월에 실시한 ‘서울시민의 생활과 의식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여성 응답자는 749명이었다. 제1절에서는 이들 여성 응답자 749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재분석하여 서울시 여성의 사회단체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사회단체 참여 여성들의 여성의식 및 행정참여 의식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분석은 서울시에서 2002년 8월에 실시한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제2절의 서울시 여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현황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것이다.

제3절의 경제활동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취업자의 연령, 학력, 직업분포에 관한 취업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제1절 사회단체 활동

‘서울시민의 생활과 의식조사’의 여성응답자 749명의 연령별, 직업별 분포는 다음의 <표 3-1>과 같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0.1%, 30대 25.4%, 40대 24.3%, 50대 17.4%, 60대 2.8%로 분포되어 있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4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판매서비스직이 19.9%, 자영업 16.4%, 사무직 10.7%, 학생 6.1%, 전문직 3.9%, 생산직 1.3%, 미취업 1.1%, 관리직 0.4%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표 3-1> '서울시민의 생활과 의식조사' 여성 응답자의 연령과 직업

항목	빈도	%
연령		
20대	225	30.1
30대	190	25.4
40대	182	24.3
50대	130	17.4
60대	21	2.8
전체	748	100.0
직업별		
전문직	29	3.9
관리직	3	0.4
사무직	80	10.7
자영업	123	16.4
판매서비스직	149	19.9
생산직	10	1.3
학생	46	6.1
주부	301	40.2
미취업	8	1.1
전체	749	100.0

1. 사회단체 참여 여부와 참여 유형

1) 서울시민의 성별 사회단체 참여 현황

(1) 성별 사회단체 참여율

서울시민의 성별 사회단체 참여 여부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아래 <표 3-3>에 예시되어 있는 8가지 유형의 사회단체에 한 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여성은

78.2%이며, 나머지 21.8%의 여성은 사회단체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성의 경우 81.6%가 한가지 이상의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18.4%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서울시민의 성별 사회단체 참여 여부

단위: %(명)

사회단체	여	남
참여 경험 있다	78.2	81.6
참여 경험 없다	21.8	18.4
전체	100.0(749)	100.0(751)

(2) 성별 사회단체 참여 유형

다음의 <표 3-3>는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성별 사회단체 참여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사회단체는 친교·사교단체로 여성의 66.1%, 남성의 73.4%가 참여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사회단체는 종교단체이며, 그 외 단체는 남성의 참여율이 높다.

특히, 취미·스포츠 단체 참여율의 경우 여성이 6.8%, 남성이 17.7%로 남성의 참여율이 여성의 2배 이상으로 높은 것이 두드러진다. 주목할 것은 여성의 시민단체(여성 시민단체 포함)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서울시민의 시민사회단체 참여활동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여성의 NGO 참여 활동이 남성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¹⁷⁾.

17) 전국 67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정자 외(2002)의 연구에 의하면 시민단체 일반회원의 경우 여성회원의 참여가 남성에 비해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활동가의 70%가 여성이지만 전문가 자원활동가의 경우 여성 비율이 28%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반자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정자 외, 2002, 「시민운동에서의 여성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표 3-3> 서울시민의 성별 사회단체 참여 유형

단위 : %

항 목	여	남
친목계, 동창회, 동문회 등 친교·사교단체	66.1	73.4
선교회, 자비원, 교리연구회 등 종교단체	14.6	10.7
사진동호회, 조기축구회, 산악회 등 취미·스포츠·레저단체	6.8	17.7
YW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사회봉사단체와 시민단체	3.2	3.9
여성민우회, YWCA, 여성단체연합, 새마을부녀회 등 여성시민단체	2.4	0.4
경제학회, 기계학회 등 학술단체	0.7	0.3
노동조합, 약사회, 변호사회 등 이익단체	0.5	0.8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등 지역구 정치단체	0.8	2.5
기타	0.1	0.1

2) 서울시 여성의 인구특성별 사회단체 참여 현황

(1) 연령별 사회단체 참여

<표 3-4>는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사회단체 참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분야는 친교·사교단체, 사회봉사단체와 시민단체이다. 40-50대의 경우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40대의 84.6%, 50대의 84.1%가 한 개 이상의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단체 참여율이 가장 낮은 연령층은 20대로, 68%가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친교·사교단체, 종교단체의 참여율은 낮으나 상대적으로 취미·스포츠·레저단체의 참여율이 높으며, 40대에서는 학술단체나 이익단체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여성시민단체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시민단체에서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을 회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3-4>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사회단체 참여 유형

단위 : %(명)

항 목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합계
친교·사교단체	58.7	65.3	71.4	72.2	66.2 (495)
종교단체	9.8	13.7	18.1	17.9	14.4 (108)
취미·스포츠·레저단체	9.3	7.9	3.3	6.0	6.8 (51)
사회봉사단체와 시민단체	2.7	2.6	3.8	4.0	3.2 (24)
여성시민단체	0.4	2.6	2.2	5.3	2.4 (18)
학술단체	0.9	·	1.1	0.7	0.7 (5)
이익단체	·	0.5	0.5	1.3	0.5 (4)
정치단체	·	·	2.7	0.7	0.8 (6)
기타	·	0.5	·	·	0.1 (1)
참여 경험 비율	68.0	79.5	84.6	84.1	78.2 (585)
전체	225	190	182	151	748

서울시 여성의 직업별 사회단체 참여 현황은 다음 <표 3-5>와 같다. 사회단체 참여 비율은 주부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취업여성, 학생 및 미취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취업 여성의 경우, 종교단체, 취미·스포츠·레저단체, 이익단체의 참여가 높고, 학생 및 미취업자는 학술단체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부는 친교·사회단체 참여가 71.8%로 매우 높으며, 사회봉사단체 및 시민단체(여성단체 포함)의 참여 역시 높게 나타났다.

<표 3-5> 서울시 여성의 직업별 사회단체 참여 유형

단위 : %(명)

항 목	취업여성	학생 및 미취업	주부	합계
친교·사교단체	64.5	46.3	71.8	66.1 (495)
종교단체	16.0	13.0	13.0	14.6 (109)
취미·스포츠·레저단체	7.6	5.6	6.0	6.8 (51)
사회봉사단체와 시민단체	2.8	3.7	3.7	3.2 (24)
여성시민단체	2.5	·	2.7	2.4 (18)
학술단체	0.3	3.7	0.7	0.7 (5)
이익단체	1.0	·	·	0.5 (4)
정치단체	0.8	·	1.0	0.8 (6)
기타	·	·	0.3	0.1 (1)
참여 경험 비율	78.7	55.6	81.7	78.2 (586)
전체	394	54	301	749

<표 3-6>은 취업여성의 직종별 사회단체 참여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직종별로는 생산·판매 서비스직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전문·관리직의 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참여 유형별로는 전문·관리직의 경우 다른 직종에 비해 이익단체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취미·스포츠·레저단체의 참여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생산·판매 서비스직은 친교·사교단체와 사회봉사단체 및 시민단체(여성단체포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6> 취업여성의 직종별 사회단체 참여 유형

단위 : %(명)

사회단체 유형	전문·관리직	사무직	자영업	생산· 판매서비스직	합계
친교·사교단체	43.8	61.3	61.0	73.0	64.5 (254)
종교단체	15.6	6.3	16.3	20.8	16.0 (63)
취미·스포츠·레저단체	6.3	15.0	4.1	6.9	7.6 (30)
사회봉사단체와 시민단체	·	5.0	1.6	3.1	2.8 (11)
여성시민단체	3.1	·	3.3	3.1	2.5 (10)
학술단체	3.1	·	·	·	0.3 (1)
이익단체	12.5	·	·	·	1.0 (4)
정치단체	·	·	0.8	1.3	0.8 (3)
참여경험 없음	65.6	73.7	74.0	87.4	78.7 (310)
전체	32	80	123	159	394

2. 사회단체 관심도

1) 서울시민의 사회단체 관심도

<표 3-7>은 서울시민의 사회봉사단체 및 시민단체, 여성시민단체 등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성별 관심도를 보면, 여성은 36.3%, 남성은 35.6%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관심도에는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3-7> 서울시민의 성별 시민사회단체 관심도

단위 : %(명)

성별	전혀 관심없다	관심없다	관심있다	매우 관심있다	합계
여자	8.8	54.9	32.4	3.9	50.0 (749)
남자	10.5	53.9	30.1	5.5	50.0 (750)
전체	9.7 (145)	54.4 (815)	31.3 (469)	4.7 (70)	100.0 (1,499)

2) 서울시 여성의 인구특성별 사회단체 관심도

(1) 연령별 사회단체 관심도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연령별 관심도는 다음 <표 3-8>과 같다. 사회단체에 관심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40대로 41.7%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30대와 50대의 경우 각각 39.5%, 38.5%가 사회단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가장 젊은 층인 20대와 노년층인 60대의 경우는 사회단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20대의 28.9%, 60대의 28.6%만이 사회단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3-8>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시민사회단체 관심도

단위 : %(명)

연령	전혀 관심없다	관심없다	관심있다	매우 관심있다	합계
20대	8.0	63.1	27.6	1.3	30.1 (225)
30대	8.4	52.1	35.3	4.2	25.4 (190)
40대	10.4	47.8	34.6	7.1	24.3 (182)
50대	10.0	51.5	35.4	3.1	17.4 (130)
60대	·	71.4	23.8	4.8	2.8 (21)
전체	8.8 (66)	54.8 (410)	32.5 (243)	3.9 (29)	100.0 (748)

■ 연령별 $\chi^2=21.113^*$

■ * P < .05

(2) 직업별 사회단체 관심도

<표 3-9>는 서울시 여성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직업별 관심도를 나타낸 표이다. 전문·관리직 여성의 50%가 시민사회단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어 학생의 39.2%, 주부의 37.9%가 시민사회단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여성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관심도가 여타 직업에 비해 가장 낮아 28.8%의 여성만이 시민사회단체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9> 서울시 여성의 직업별 시민사회단체 관심도

단위 : %(명)

직업별	전혀 관심없다	관심없다	관심있다	매우 관심있다	합계
전문·관리직	6.3	43.8	46.9	3.1	4.3 (32)
사무직	8.8	62.5	26.3	2.5	10.7 (80)
자영업	6.5	57.7	31.7	4.1	16.4 (123)
생산 판매서비스직	14.5	52.2	30.2	3.1	21.2 (159)
학생	15.2	45.7	37.0	2.2	6.1 (46)
주부	6.3	55.8	33.2	4.7	40.2 (301)
미취업	·	50.0	37.5	12.5	1.1 (8)
전체	8.8 (66)	54.9 (411)	32.4 (243)	3.9 (29)	749

3. 사회단체 여성 활동자의 여성 및 행정 참여 의식

1) 여성 의식

<표 3-10>은 생활 속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들은 경험이 있는지에 관해서 사회단체¹⁸⁾ 참여경험이 있는 여성과 참여경험이 없는 여성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들이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에 비해 남녀차별을 경험하였다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취업 및 승진 등 직장분야'와 '가족관계 등 가정 분야', '성희롱 사례'에서는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없는 여성들이 차별의식을 조금 더 느끼고 있다.

18) 사회단체란 친목·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스포츠·레저단체, 학부모단체, 사회봉사단체 및 시민단체, 여성시민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를 포함함.

<표 3-10> 사회단체활동 경험유무에 따른 남녀차별 경험 (다중응답)

단위 : %(명)

차별 받은 분야	사회단체		합계
	참여자	비참여자	
공직 및 정치 참여분야에서의 남녀차별	45.7	54.3	20.1 (254)
취업 및 승진 등 직장분야에서의 남녀차별	41.7	58.3	30.9 (391)
각종 시민사회단체 활동 분야에서의 남녀차별	47.9	52.1	5.6 (71)
사회교육 참여 분야에서의 남녀차별	49.5	50.5	7.8 (99)
가족관계 등 가정 분야에서의 남녀차별	43.4	56.6	18.0 (228)
성희롱 사례	43.5	56.5	17.6 (223)

그러나 생활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단체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에 큰 차이가 없다.

<표 3-11> 사회단체활동 참여 유무에 따른 남녀평등 대우

단위 : %(명)

항 목	사회단체		합계
	참여자	비참여자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지 못하다	87.9	83.0	85.0 (425)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는다	8.7	10.5	9.8 (49)
잘 모르겠다	3.4	6.5	5.2 (26)
합계	100.0 (206)	100.0 (294)	100.0 (500)

2) 행정 참여 의식

(1) 시정활동 참여 경험

<표 3-12>는 사회단체 참여에 따른 시정활동¹⁹⁾ 참여에 관한 것이다.

19) 시정활동은 ‘(시·구)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여성단체 회원 등으로 직접참여’, ‘시민제안제도 등 여성의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통한 참여’, ‘서울시 인터넷 “시장(구청장)에게 바란다”’, ‘기타 각종 신고제도 등을 이용한 참여’ 등을 포함함.

사회단체 참여 여성의 시정활동 참여 비율은 20.4%인데 반해, 사회단체 비참여 여성의 시정활동 참여는 2.0%로 나타나, 사회단체 참여 여성이 비참여자에 비해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12> 사회단체 참여 유무에 따른 시정 참여 경험

단위 : %(명)

항 목	사회단체		합계
	참여자	비참여자	
시정참여 경험 있음	20.4	2.0	9.6 (48)
시정참여 경험 없음	79.6	98.0	90.4 (452)
합계	100.0 (206)	100.0 (294)	100.0 (500)

■ $\chi^2=46.985^{***}$

■ $*** P < .001$

(2) 시정활동 참여 의향

<표 3-13>은 사회단체 참여에 따른 시정활동 참여 의향에 관한 표이다.

시민으로서의 시정활동 참여 의향에 대해 사회단체 참여 여성은 56.8%가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하며, 사회단체 비참여 여성은 45.2%가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사회단체 참여 여성이 비참여 여성에 비해 시정참여 의향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3-13> 사회단체 참여경험에 따른 시정 참여 의향

단위 : %(명)

항 목	사회단체		합계
	참여자	비참여자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	56.8	45.2	50.0 (250)
참여하고 싶은 생각 없음	13.6	17.0	15.6 (78)
생각해 본 적 없음	29.6	37.8	34.4 (172)
합계	100.0 (206)	100.0 (294)	100.0 (500)

■ $\chi^2=37.434^*$

■ $* P < .05$

3) 자원봉사 활동 참여

<표 3-14>는 사회단체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지난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을 나타낸 것이다. 사회단체 참여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비율은 50%인데 반해, 사회단체 비참여자의 자원봉사참여율은 13.3%에 불과하다. 사회단체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4> 사회단체 참여 유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

단위 : %(명)

항 목	사회단체		합계
	참여자	비참여자	
자원봉사 경험 있음	50.0	13.3	28.4 (142)
자원봉사 경험 없음	50.0	86.7	71.6 (358)
합계	100.0 (206)	100.0 (294)	100.0 (500)

■ $\chi^2=80.383^{***}$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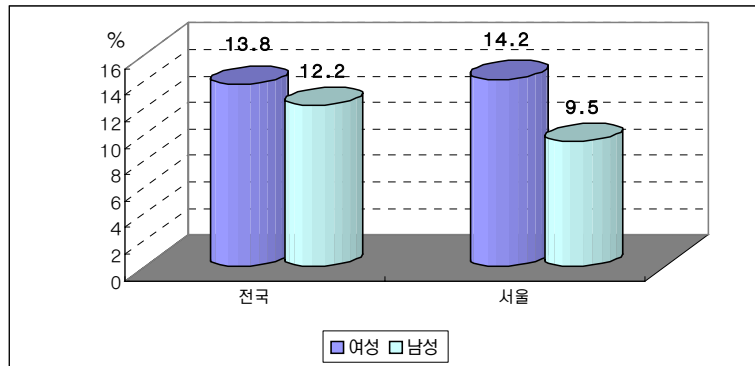
제2절 자원봉사 활동

1. 자원봉사 참여 현황

1)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

(1)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은 전국의 경우 여성이 13.8%, 남성이 12.2%로 여성이 조금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4.2%로 전국 여성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서울시 남성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9.5%로 전국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 자원봉사 참여율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9

(2) 자원봉사 참여 유형

자원봉사 참여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으나, 자원봉사활동 참여유형에는 여성과 남성이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 <표 3-15>를 보면, 여성은 자녀교육, 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환경, 국가나 지역의 공공행사, 재해지역돕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자녀교육과 관련한 자원봉사활동이 여성은 22.1%인데 반해 남성은 2.7%에 불과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활동에 가족관계, 즉 자녀가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표 3-15> 여성과 남성의 참여 자원봉사 유형

단위 : %

항목	참여율		지역환경 보전		국가 지역행사		자녀교육 관련		복지시설 관련		재해지역 돕기		기타 (헌혈등)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여성	13.8	14.2	34.8	28.3	5.8	5.3	20.5	22.1	40.7	43.7	4.6	4.1	7.5	7.2
남성	12.2	9.5	46.4	38.2	10.9	9.6	2.5	2.7	26.5	29.9	13.6	9.8	16.9	22.3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9

2) 서울시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

(1) 자원봉사 참여율

<표 3-21>에 예시되어 있는 6가지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서울 여성에게 최근 1년간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참여한 적이 있는 여성은 28.4%, 참여 경험이 없는 여성은 71.6%로 나타나, 자원봉사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표 3-16>.

<표 3-16> 서울시 여성의 자원봉사동 참여율

항목	빈도	%
있다	142	28.4
없다	358	71.6
전체	500	100.0

(2) 인구특성별 자원봉사 참여 현황

<표 3-17>은 서울시 여성의 학력별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나타낸 표이다. 대졸이상 여성의 33.5%, 고졸여성의 29.8%, 중졸이하의 15.1%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17> 서울시 여성의 학력별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명)

항 목	자원봉사		합계
	참여자	비참여자	
중졸이하	15.1	84.9	18.7 (93)
고졸	29.8	70.2	41.2 (205)
대졸이상	33.5	66.5	40.2 (200)
전체	28.5 (142)	71.5 (356)	100.0 (498)

■ 학력별 $\chi^2=10.861^{**}$

■ ** P < .01

<표 3-18>은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34.7%, 40대가 32.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반면, 50대는 22.3%, 60대는 22.5%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 3-18>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명)

항 목	자원봉사		합계
	참여자	비참여자	
20대	25.0	75.0	26.4 (132)
30대	34.7	65.3	23.6 (118)
40대	32.8	67.2	23.2 (116)
50대	22.3	77.7	18.8 (94)
60세이상	22.5	77.5	8.0 (40)
전체	28.4 (142)	71.6 (358)	100.0 (500)

<표 3-19>는 서울시 여성의 혼인상태별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나타낸 표이다.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19> 서울시 여성의 혼인상태별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명)

항 목	자원봉사		합계
	참여자	비참여자	
미혼	30.0	70.0	20.0 (100)
기혼	28.0	72.0	80.0 (400)
전체	28.4 (142)	71.6 (358)	100.0 (500)

<표 3-20>은 서울시 여성의 직업별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 유무를 나타낸 표이다. 화이트칼라와 주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각각 34.7%, 30.1%로 블루칼라 26.7%, 자영업 25.5%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3-20> 서울시 여성의 직업별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명)

항 목	자원봉사		합계
	참여자	비참여자	
화이트칼라	34.7	65.3	11.3 (49)
블루칼라	26.7	73.3	6.9 (30)
자영업	25.5	74.5	33.5 (145)
주부	30.1	69.9	48.3 (209)
전체	28.9 (125)	71.1 (308)	100.0 (433)

(3) 서울시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 유형

<표 3-21>은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한 서울 여성들이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나타낸 표이다. 자원봉사활동 분야 중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관련’ 분야에 참여한 여성이 31.1%로 가장 높다. 이어 ‘자녀 교육 등과 관련’ 분야 26.4%, ‘지역의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분야 21.8%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은 5.7%,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비율은 4.1%로 비교적 낮다.

<표 3-21> 자원봉사활동 분야 (다중응답)

활동 분야	빈도	%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복지시설, 병원, 가정봉사, 야학교사 등)	60	31.1
자녀교육 등과 관련 (일일급식, 일일교사, 교통지도 등)	51	26.4
지역의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쓰레기 분리수거 당번, 마을청소, 방법활동 등)	42	21.8
일반인을 위한 봉사관련(무료상담, 헌혈 등)	21	10.9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스포츠, 문화행사 등 안내, 통역, 질서계도 등)	11	5.7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8	4.1
합계	193	100.0

다음의 <표 3-22>는 연령별, 직업별, 혼인상태별 최근 1년간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분야를 나타낸 표이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관련’ 분야가 75.8%로 매우 높고, 30대와 40대는 ‘자녀교육 등 관련’ 분야가 각각 73.2%, 50.0%로 높으며, 50대와 60대이상은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분야가 각각 71.4%, 66.7%로 높았다.

<표 3-22> 서울시 여성 인구특성별 자원봉사 활동분야 (다중응답)

단위 : %(명)

항목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자녀교육 등 관련	아동,장애인, 재소자 등 관련	재해지역 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일반인 위한 봉사관련	합계
연령							
20대	9.1	9.1	3.0	75.8	6.1	15.2	23.2(33)
30대	17.1	7.3	73.2	17.1	4.9	12.2	28.9(41)
40대	28.9	5.3	50.0	42.1	7.9	13.2	26.8(38)
50대	71.4	9.5	4.8	42.9	4.8	19.0	14.8(21)
60세 이상	66.7	11.1	·	33.3	·	22.2	6.3(9)
전체	42	11	51	60	8	21	142
직업							
화이트칼라	11.8	17.6	29.4	52.9	11.8	11.8	13.6(17)
블루칼라	50.0	·	62.5	12.5	·	·	6.4(8)
자영업	43.2	8.1	32.4	43.2	8.1	13.5	29.6(37)
주부	28.6	6.3	44.4	33.3	3.2	17.5	50.4(63)
전체	40	10	50	47	7	18	125
결혼유무							
미혼	10.0	10.0	3.3	76.7	6.7	13.3	21.1(30)
기혼	34.8	7.1	44.6	33.0	5.4	15.2	78.9(112)
전체	42	11	51	60	8	21	142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층의 경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관련’이 52.9%로 높았고, 블루칼라층은 ‘자녀교육 등 관련’과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이 각각

62.5%, 50.0%로 높았다. 자영업자는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관련’이 각각 43.2%, 43.2%로 높으며, 전업주부들은 ‘자녀교육 등 관련’ 분야의 참여율이 44.4%로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여성의 경우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관련’ 분야에 76.7%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기혼여성은 ‘자녀교육 등 관련’ 분야와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분야의 참여가 각각 44.6%, 34.8%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2. 서울시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 의향과 희망 분야

1) 자원봉사 참여 의향

<표 3-23>은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을 나타낸 표인데, 참여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57.8%, 참여 의향이 없다는 42.2%로 참여 의향을 갖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앞서 <표 3-16>에서 보듯, 최근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28.4%로 나타났는데, 향후 참여 의향을 밝힌 비율은 57.8%로 나타나 잠재적 여성자원 활동가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3-23>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

항목	빈도	%
있다	289	57.8
없다	211	42.2
전체	500	100.0

2) 인구특성별 자원봉사 참여 의향

<표 3-24>는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소득수준별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을 나타낸 표이다.

<표 3-24> 서울시 여성의 인구특성별 자원봉사 참여 의향

단위 : %(명)

항 목	자원봉사		합계
	참여의사 있음	참여의사 없음	
연령			
20대	72.0	28.0	26.4 (132)
30대	62.7	37.3	23.6 (118)
40대	56.9	43.1	23.2 (116)
50대	41.5	58.5	18.8 (94)
60대이상	37.5	62.5	8.0 (40)
전체	289	211	500
학력			
중졸이하	25.8	74.2	18.7 (93)
고졸	58.5	41.5	41.2 (205)
대졸이상	72.5	27.5	40.2 (200)
전체	289	209	498
직업			
화이트칼라	71.4	28.6	11.3 (49)
블루칼라	56.7	43.3	6.9 (30)
자영업	57.2	42.8	33.5 (145)
주부	50.7	49.3	48.3 (209)
전체	241	192	433
계층평가			
상층	70.8	29.2	25.5 (120)
중층	55.1	44.9	56.0 (263)
하층	52.9	47.1	18.5 (87)
전체	276	194	470

■ 연령별 $\chi^2=29.082^{***}$

■ 학력별 $\chi^2=56.866^{***}$

■ 소득수준별 $\chi^2=9.887^{**}$

연령별로는 20대가 72%로 가장 높은 참여 의향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30대의 62.7%, 40대의 56.9%, 50대의 41.5%, 60대이상의 37.5%가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연령이 낮아질수록 향후 자원봉사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72.5%로 가장 높은 참여 의향을 나타냈고, 다음이 고졸 58.5%, 중졸이하 25.8%로 자원봉사 참여 의향을 밝혀,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간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71.4%로 가장 높은 자원봉사 참여 의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취업여성이 주부에 비해 참여 의향은 높게 나타났으나, 현실적으로는 취업여성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자원봉사 욕구가 높은 취업여성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소득수준별로는 상층이 70.8%로 가장 높은 참여 의향을 보였고, 다음이 중층 55.1%, 하층 52.9%가 자원봉사 참여 의향을 나타내,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자원봉사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서울시 여성의 자원봉사 희망 분야

<표 3-25>는 자원봉사 희망 분야에 관한 표이다. 자원봉사활동 희망자 289명을 대상으로 활동 희망 분야를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분야가 4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지역의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분야 16.1%,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분야’ 13.8%, ‘일반인을 위한 봉사관련’ 분야 12.1%, ‘자녀교육 등과 관련’ 분야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분야의 경우, 참여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5.7%인데<표 3-21 참조> 반해, 향후 희망 비율은 13.8%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5> 자원봉사 희망 분야 (다중응답)

희망 분야	빈도	%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복지시설, 병원, 가정봉사, 야학교사 등)	203	42.4
지역의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쓰레기 분리수거 당번, 마을정소, 방범활동 등)	77	16.1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스포츠, 문화행사 등 안내, 통역, 질서계도 등)	66	13.8
일반인을 위한 봉사관련(무료상담, 헌혈 등)	58	12.1
자녀교육 등과 관련 (일일급식, 일일교사, 교통지도 등)	56	11.7
재해지역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18	3.8
기타	1	0.2
전체	479	100.0

<표 3-26>은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혼인상태별 자원봉사 희망 분야를 나타낸 표이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자원봉사 희망 분야 가운데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20대가 74.7%로 가장 높았다. 이 분야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난 분야로 20대의 경우는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분야가 36.8%, 30대는 ‘자녀교육 등과 관련’ 분야가 35.1%, 40-50-60대 이상은 ‘지역의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분야가 각각 33.3%, 56.4%, 40%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분야가 모든 학력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고졸이 73.3%로 높은 희망율을 나타냈다. 이 분야를 제외하고 높게 나타난 분야를 살펴보면, 중졸이하와 고졸이하는 ‘지역의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분야가 각각 54.2%, 30.8%로 높게 나타났고, 대졸이상은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분야가 29.7%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26> 인구특성별 향후 자원봉사 희망 분야 (다중응답)

항목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자녀교육 등 관련	아동, 장애인, 재소자 등 관련	재해지역 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일반인 위한 봉사관련	합계
연령							
20대	12.6	36.8	14.7	74.7	5.3	22.1	32.9 (95)
30대	20.3	14.9	35.1	66.2	9.5	20.3	25.6 (74)
40대	33.3	18.2	19.7	68.2	6.1	18.2	22.8 (66)
50대	56.4	15.4	7.7	71.8	2.6	12.8	13.5 (39)
60세이상	40.0	13.3	·	66.7	6.7	33.3	5.2 (15)
전체	77	66	56	203	18	58	289
학력							
중졸이하	54.2	8.3	12.5	54.2	8.3	8.3	8.3 (24)
고졸	30.8	17.5	19.2	73.3	6.7	21.7	41.5 (120)
대졸이상	18.6	29.7	20.7	70.3	8.1	20.7	50.2 (145)
전체	77	66	56	203	18	58	289
직업							
화이트칼라	20.0	31.4	14.3	74.3	2.9	17.1	14.5 (35)
블루칼라	47.1	5.9	23.5	64.7	·	11.8	7.1 (17)
자영업	34.9	18.1	14.5	73.5	8.4	25.3	34.4 (83)
주부	26.4	17.0	28.3	65.1	6.6	16.0	44.0 (106)
전체	72	45	51	167	15	46	241
결혼유무							
미혼	12.3	42.0	8.6	77.8	3.7	23.5	28.0 (81)
기혼	32.2	15.4	23.6	67.3	7.2	18.8	72.0 (208)
전체	77	66	56	203	18	58	289

직업별로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분야가 모든 직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화이트 칼라가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분야를 제외하고 참여 희망율이 높은 분야를 살펴보면, 화이트칼라는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분야가 31.4%, 블루칼라와 자영업자는 ‘지역의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분야가 각각

47.1%, 34.9%, 주부는 ‘자녀교육 등과 관련’ 분야가 28.3%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유무별로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관련’ 분야가 미혼, 기혼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미혼이 77.8%로 기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미혼은 ‘국가 및 지역행사 관련’ 분야가 42.0%로 높았고, 기혼은 ‘지역의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분야가 32.2%로 높게 나타났다.

제3절 경제활동

1. 서울시민의 경제활동참가율

2001년 현재 서울시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6%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2%,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4.8%이다.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에는 29.5%였으나 1990년에 46.8%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다가, 2001년 현재 49.2%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비율은 여자가 68.1%, 남자가 31.9%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두배 이상 높다. 비경제활동 서울시 여성의 가사·육아 비율은 68.9%이며, 비경제활동 서울 남성의 가사·육아 비율은 4.5%로 나타나 성별 가사·육아비율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사와 육아활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학의 비율은 여자가 21.7%인데 반해, 남자는 50.2%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활동상태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3-27> 서울시 1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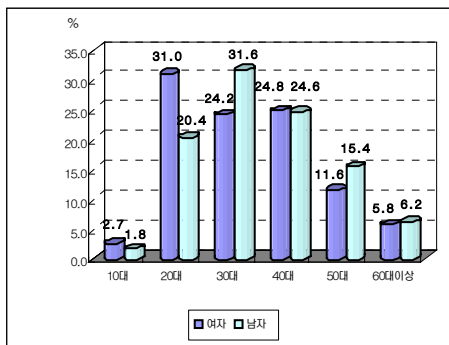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경제활동 참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
		가사·육아율	통학률	
여자				
1980	29.5	-	-	11.3
1990	46.8	67.7	23.5	3.1
2000	48.5	68.5	22.2	3.8
2001	49.2	68.9	21.7	3.9
남자				
1980	73.5	-	-	8.6
1990	74.9	2.5	72.5	4.5
2000	74.6	4.1	52.8	5.4
2001	74.8	4.5	50.2	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2001

2. 서울시 여성의 취업 특성

1) 연령별 취업률



<그림 3-2> 성별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전되고 있다. 50-60대에서는 여성의 취업비율이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2000년 현재 15세 이상 서울시 여성인구는 총 4,236,138명으로, 이 가운데 44.5%가 취업상태에 있다.

2000년 현재 연령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10대-20대의 경우 여성 취업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대 여성의 경우 취업자가 31.0%로 20대 남성 취업자 20.4%에 비해 높으나, 30대의 경우 남성 취업자가 31.6%, 여성 취업자가 24.2%로 역

나, 연령에 따라 남성과 여성간의 취업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2 참조>.

<표 3-28> 서울시 여성의 연령별 인구와 취업자 수(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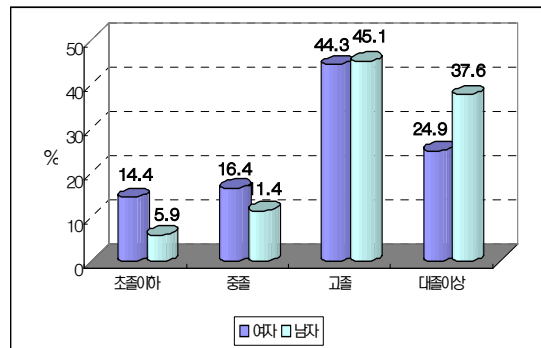
연령	15세이상 서울여성인구(A)	취업자수 (B)	비율 (B/A)
15-19세	382,681명	50,000명	13.1
20대	1,022,282명	584,000명	57.1
30대	930,285명	455,000명	48.9
40대	842,807명	467,000명	55.4
50대	533,612명	218,000명	40.9
60대이상	524,471명	109,000명	20.8
합계	4,236,138명	1,883,000명	44.5

자료: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2) 취업자의 학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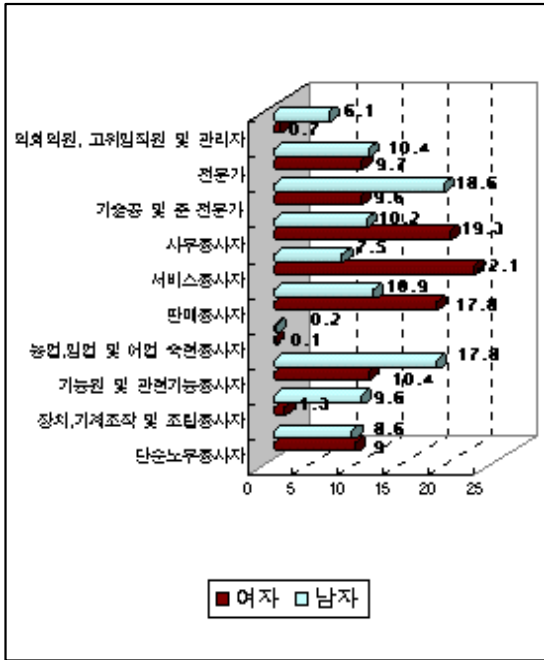
전체 여성취업자 1,883천명 가운데, 고졸이 4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졸이상으로 24.9%이며, 중졸이 16.4%, 초졸이하가 14.4%로 나타났다. 대졸취업자의 경우 남성은 37.6%로 여성에 비해 12.7%나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 중졸이하로 학력수준이 낮아지면 여성취업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그림 3-3> 성별 취업자의 학력별 분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3) 취업자 직업 분포



<그림 3-4> 성별 취업자의 직업 분포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2001년 전체 여성취업자 1,903천명 가운데, ‘서비스종사자’가 2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사무종사자’ 19.3%, ‘판매종사자’ 17.8%,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기술공 및 준전문가’가 1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7.8%, ‘판매종사자’ 10.9%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과는 다른 취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우는 여성이 0.7%, 남성 6.1%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는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과 같은 직종의 종사 비율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등 단순직의 종사비율이 높아 성별간에 취업구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로조건이 유리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요약정리

■ 사회단체 활동

성별 사회단체 참여율은 여성이 78.2%, 남성이 81.6%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사회단체는 친교·사교단체로 여성의 66.1%, 남성의 73.4%가 참여하고 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인 사회단체는 종교단체이며, 그 외 단체는 남성의 참여율이 높다.

남녀 모두 높은 참여율을 보인 친교·사교단체와 대비하여 시민단체 참여율은 남녀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의 NGO 참여가 남성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단체와 관련해 향후 여성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사회단체 참여 경험에 따른 남녀차별에 관한 의식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들이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에 비해 남녀차별을 경험하였다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비참여자에 비해 시정활동 참여와 향후 시정활동에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사회단체 참여 여성이 비참여자에 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여성에 비해 높다.

■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참여율은 서울시 여성이 14.2%, 서울시 남성이 9.5%로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높지는 않았으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참여율이 높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유형에는 여성과 남성이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은 자녀교육, 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환경, 국가나 지역의 공공행사, 재해지역돕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28.4%로 나타난 데 반해, 향후 희망 비율이 57.8%로 높게 나타나 잠재적 여성자원활동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질수록,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자원봉사 참여 요구가 높게 나타나 향후 제도적 지원시 자원봉사의 내용과 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경제활동

2001년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2%로 남성 74.7%에 비해 낮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가사·육아 비율은 68.9%이며, 남성은 4.5%로 나타나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활동 상태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취업분포를 보면, 20대 취업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6%나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30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7.4%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출산·육아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연령인 30~34세의 취업률은 2000년 현재 12.3%로서, 20~24세(14.7%), 25~29세(16.3%)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혼·임신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평등이 여전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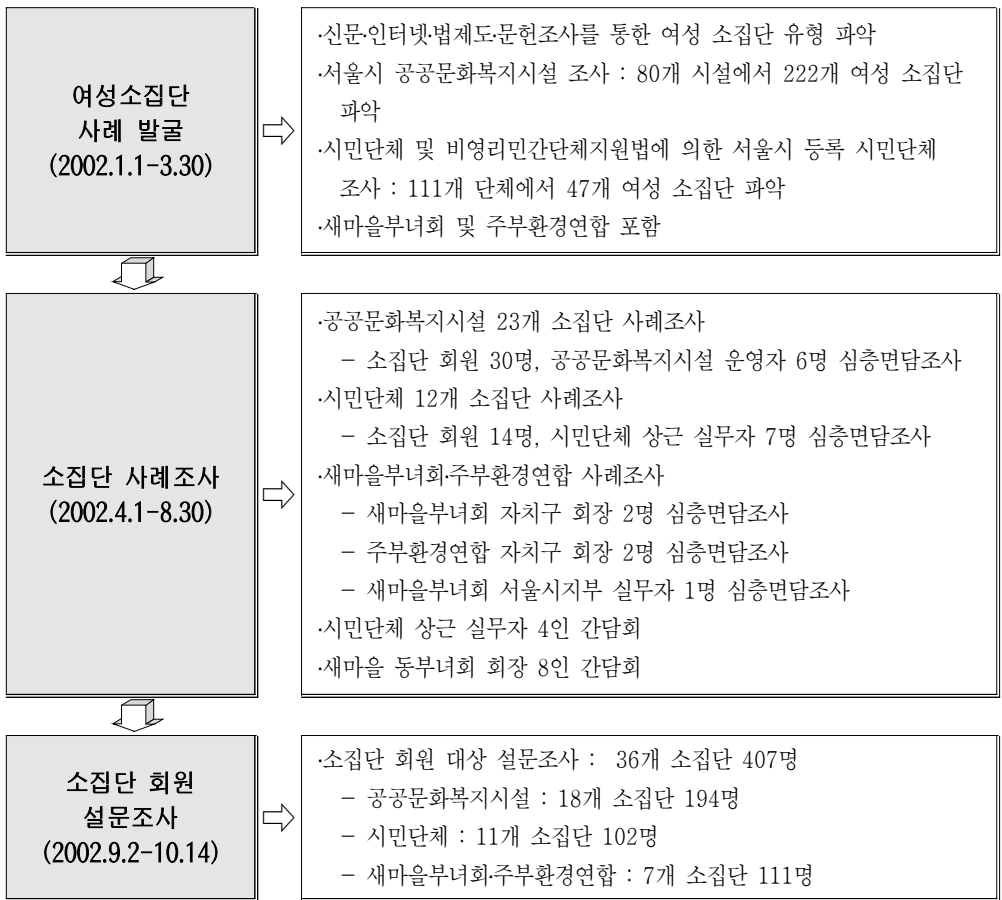
第Ⅳ章
서울시 여성 소집단 활동
실태조사 분석

- 제 1 절 조사개요
- 제 2 절 사례조사 결과 분석
- 제 3 절 소집단 활동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제 4 절 요약 정리

제 IV 장 서울시 여성 소집단 활동 실태조사 분석

제1절 조사개요

여성 소집단 조사는 여성소집단 사례발굴, 소집단 사례조사, 소집단 회원 설문조사의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림 4-1>은 3단계에 걸친 조사과정과 조사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그림 4-1> 조사단계별 조사방법

첫 번째, 여성소집단 사례발굴을 위해 신문과 인터넷, 법제도, 문헌조사를 통해 소집단 유형을 파악하였으며, 서울시 공공문화복지시설(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사회복지관, 노인 복지관, 청소년 수련시설, 시민대학, 문화의 집, 자원봉사센터 등)을 대상으로 시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여성 소집단이 있는가에 대한 사례발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를 조사하고, 새마을부녀회·주부환경연합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두 번째로는 분야별 활동 비중을 고려하여 공공문화복지시설 23개 소집단, 시민단체 12개 소집단, 새마을부녀회·주부환경연합 4개 단체를 선정하여 연구진 2인이 직접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는 공공문화복지시설, 시민단체, 새마을부녀회·주부환경연합 36개 소집단 407명을 대상으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 소집단 사례발굴

(1) 공공문화복지시설 소집단

① 조사 방법

2001년에 실시된 서울시 평생교육 관련 공공시설 249개소 설문조사에 의해, 시설에서 지원 또는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소집단이 1개 이상 있다는 시설은 146개소(58.6%)로 나타났다¹⁾.

2002년 3월, 2001년도에 조사된 146개소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소집단 유무를 재조사한 결과, 109개소가 1개 이상의 소집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된 109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사례발굴을 위한 설문지를 팩스와 e-mail을 통해 전달하고 회수한 결과, 조사시설 수의 73.3%인 80개 시설에서 응답 설문지를 보내주었다.

회수된 80개 공공시설에서 총 564개의 소집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중 여성만으로 구성되었거나(187개), 여성회원이 90%(15개)이상인 소집단은 전체 소집단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시 평생교육발전 방안연구」, 114-116쪽.

의 39%인 222개였다. 이들 222개 소집단 중에서 활동유형, 결성시기, 연령대를 고려하여 사례조사연구 대상 23개 소집단을 선정하였다.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소집단의 활동유형을 보면, 자원봉사활동이 주목적인 소집단 4개, 한국춤과 민요, 풍물놀이 3개 소집단, 아동 독서지도와 독서회 2개 소집단, 스포츠 소집단 1개, 창업 관련 소집단 3개, 그 외 연극, 영화, 어학, 장애인여성자조모임, 사진, 서예 등의 10개 소집단을 포함해 총 23개 소집단을 선정하였다.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30-40-50대의 주부로 구성된 21개 단체 외에, 10대 청소년 소집단 1개와 60-70대 노인으로 구성된 소집단 1개를 포함하였다.

② 조사 내용

공공문화복지시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 소집단 사례발굴을 위해 실시한 조사항목은 소집단 명칭, 활동 시작연도, 회원수, 주요 활동내용, 회원 성비, 회원 연령층 등의 7개 항목이다.

(2) 시민단체 소집단 조사

서울소재의 시민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 111개 단체를 대상으로 소집단 구성여부를 전화로 조사한 결과 19개 단체에서 총 47개 소집단 사례가 파악되었다. 파악된 소집단 가운데 활동내용과 단체별 성격을 고려하여 사례조사 연구 대상 12개 소집단을 선정하였다.

활동내용별로는 지역 및 사회운동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참여소집단, 환경분야(하천살리기, 환경연극), 취미분야(민요모임), 상담분야(가정상담봉사, 이웃상담원), 텃밭가꾸기, 여성학모임, 어린이도서관, 동화읽기, NGO학습소집단을 선정하였다.

(3) 새마을 부녀회 · 주부환경연합

공공문화복지시설 및 서울시 등록 시민단체에서 제외되나, 현재 동 단위로 형성되

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와 주부환경연합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구 부녀회 2개, 동 부녀회 4개, 자치구 주부환경연합 2개 단체를 사례조사하였다.

2) 소집단 사례조사

(1) 조사방법

소집단 사례조사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 해당시설의 소집단 업무 담당자를 통해 소집단의 장이나 총무, 또는 회원을 소개받아 진행되었다. 조사는 조사원을 쓰지 않고 연구진 2인이 직접 소집단이 있는 단체나 시설을 방문하여 심층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조사는 비구조화된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활동자 심층면담 내용은 녹취되었다.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 23개 소집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자 30명과 시설 운영자 6인을 만나 심층면담을 하였다. 시민단체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12개 소집단 심층면담조사는 소집단 활동자 14명과 시민단체 상근 실무자 7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례조사 외에도 공공문화복지시설 운영자 및 시민단체 상근 실무자 4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새마을 부녀회와 주부환경연합은 각각 2개 자치구의 회장 2인씩을 심층면담조사하였고, 새마을 동부녀회 회장 8인을 선정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 조사내용

소집단 사례조사는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집단 결성과 활동에 영향을 미친 영향요인, 소집단 활동의 내용과 특성, 그리고 소집단 활동의 결과라는 세 과정으로 크게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4-1> 소집단 사례조사의 조사내용

조사 영역	조 사 항 목
<p>소집단 활동 영향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단 결성동기와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단 결성 이전에 회원들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소집단을 결성하여 활동하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집단 결성의 주체와 촉매자, 공공의 지원 여부 조사 ·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연령, 자녀와 남편을 비롯한 가족의 지원 및 갈등이 미치는 영향 · 개인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계층, 연령, 경제사회활동 경험
<p>소집단 활동 내용과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단 운영체제, 회원의 유동성, 개방성, 시설과의 관계 및 지원, 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지원 · 지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단 활동이 시설과 회원간 근접성에 기반한 지역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 - 계층간 교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회원의 계층평가, 학력, 연령, 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 유형을 확인 · 활동내용과 학습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단 활동의 목표 및 지향성, 자원봉사활동으로의 연계, 소집단 회수 및 장소, 회원들의 참여정도, 외부 단체와의 연계활동 여부 · 활동의 애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가족관계, 행정제도상의 애로점
<p>소집단 활동의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분야의 전문성, 경제 및 사회활동, 내적 변화 · 가족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내, 가족간 변화 · 회원간 관계 · 사회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식, 사회 및 지역의식, 단체간 연대활동

<표 4-2>는 공공문화복지시설 운영자 및 시민단체 상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의 토론 내용으로서, 단체 특성, 소집단과 시설·단체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새마을 동부녀회 간담회는 단체차원에서 각 동의 활동사업에 대한

소개와 지역행정과의 관계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개인차원에서는 회원 특성 및 본인들의 참여 과정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표 4-2> 실무자 간담회 토론 내용

조사 영역	조 사 항 목
실무자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단체 유형, 서울시와 자치구 지원여부 - 회원구성(후원/활동회원 특성), 상근직원 - 지역내 다른 지역단체(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 행정과의 연계 · 소집단과 시설·단체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단 활동이 시설·단체운영에 미치는 영향 - 소집단 활동에 있어 리더 역할의 중요성 - 소집단 개수 및 소집단 회원특성 - 소집단 구성과정 및 운영방식 - 소집단의 전문성을 위한 회원과 실무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및 필요성 - 소집단 활동을 통한 중간지도자 발굴을 위한 노력 - 홍보방식 - 소집단 관리의 애로점 및 요구 지원 사항

3) 소집단 회원 설문조사

(1) 조사방법

사례조사에 포함된 소집단 회원을 대상으로 활동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 소집단 가운데, 노인과 청소년 소집단은 연구의도 및 조사대상의 대표성 문제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으며, 그 외 2개 소집단은 소집단 활동 중단 이유로, 1개 소집단은 회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설문조사대상에 포함된 단체는 공공시설 소집단 18개, 시민단체 소집단 11개, 동부녀회 및 주부환경연합 7개 단체를 포함하여 36개 소집단이며, 총 407명의 활동자가 설문조사에 응해주었다. 조사 실시는 앞서 심층면접조사에 응했던 소집단의 장이나 총무 혹은 단체 담당자에게 협조를 구하여 소집단 회원을 대상으로 2002년 9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방법은 배포 조사법으로 조사원이 단체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전달하고 활동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을 하고 난 후, 조사원이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2) 조사내용

회원조사는 활동자의 개인적 특성, 활동자의 활동 특성, 활동의 영향과 결과, 활동의 장애요인 및 희망 지원책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 4-3>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표 4-3> 소집단 활동자 설문조사의 조사내용

조사 영역	조 사 문 항
활동자의 개인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및 가구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및 활동시작 연령, 학력, 혼인상태, 종교, 자녀 · 사회· 경제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 사회단체 활동 참여, 소득수준 및 주관적 계층 평가, 거주지역 및 거주연한
활동자의 활동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기간 및 모임 빈도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시작 연도, 활동기간, 모임회수, 단체활동내 직책 · 활동 참여 통로와 활동 목적 ·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활동의 내용
활동의 영향과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성장, 정신적·신체적 건강, 인간관계 확대, 전문성 및 활동 지속성, 향후 활동 의향, 사회활동을 위한 준비과정 · 회원간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간의 친밀성, 신뢰와 믿음, 경조사 · 가족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들의 가족인지, 소집단 가족모임 참석의향, 활동이 가족관계 및 자녀교육,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으로 인한 거주지역 만족도 정도, 지역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소집단 활동 의향, 지역사회, 지역행정,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 여성 및 사회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문제, 사회문제, 공공시설·기관에 대한 관심
활동의 장애요인 및 희망 지원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일, 경제활동과의 병행, 회원모집 어려움, 가족의 지지 · 지원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단체와의 교류 희망, 시설 및 교육, 사업지원, 활동 기회 제공, 행정의식 변화와 홍보 - 지원 우선사항

제2절 사례조사 결과 분석

1.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소집단 현황

80개 공공시설에서 총 564개의 소집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중 여성만으로 구성되었거나(187개), 여성회원이 90%(15개)이상인 소집단은 전체 소집단의 39%인 222개였다. 시설당 소집단 평균 수는 청소년 시설이 13.5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노인복지관 9.9개, 시립직업전문학교 9.0개, 사회복지관 6.1개의 순이다.

<표 4-4> 시설별 소집단 수

시설 명칭·유형	조사 시설 수	응답 시설 수	소집단 수	시설당 소집단 평균수
문화의 집	10	6	35	5.8
문화원	14	4	14	3.5
도서관·평생학습관	18	12	49	4.1
청소년시설	16	11	148	13.5
사회복지관	20	13	79	6.1
장애인복지시설	11	7	39	5.6
노인복지관	15	11	109	9.9
여성인력·여성발전센터	14	10	51	5.1
주민자치센터	16	3	18	6.0
시립직업전문학교	4	2	18	9.0
시민대학	3	1	3	3.0
총계	146	80	564	7.1

대상별 소집단 활동유형을 보면, 여성으로 구성된 소집단의 경우 자원봉사 동아리가 32.0%로 가장 많고, 춤동아리가 14.4%, 독서 및 문학동아리가 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독서 및 문학 동아리가 2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60대 이상의 경우 스포츠 동아리가 29.0%로 가장 많았다.

<표 4-5> 특정대상별 소집단 활동 유형

순위	90%이상 여성으로 구성		10대		60대	
	활동유형	%	활동유형	%	활동유형	%
1순위	자원봉사동아리	32.0	독서 및 문학동아리	24.1	건강·스포츠동아리	29.0
2순위	춤동아리	14.4	춤동아리	22.8	춤동아리	17.6
3순위	독서 및 문학동아리	12.6	노래 및 음악밴드 동아리/자원봉사	8.2	풍물 및 한국 전통음악동아리/ 자원봉사	11.5
4순위	스포츠동아리	8.6	기타	5.7	어학	9.2
5순위	미술동아리	8.1	풍물 및 한국전통음악동아리	5.1	노래 및 음악밴드/ 미술동아리	5.3
합계	222	75.7	158	65.9	131	72.6

소집단이 형성된 시기를 보면 전체 소집단의 72.2%가 2000년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 1-2년 동안 소집단이 활발하게 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1999년에 형성된 소집단은 22.7%로 나타나, 약 95%의 소집단이 1995년 이후에 결성됐다.

<표 4-6> 소집단 결성 시기

연도	소집단 결성 시기	
	빈도	%
1980년대	4	1.9
1990-1994년	7	3.2
1995-1999년	49	22.7
2000년 이후	156	72.2
합계	216*	100.0

* 무응답은 제외한 빈도임

공공시설 소집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연령층은 40-30-50-6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30, 40대의 비율은 전체의 57.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7> 소집단 활동자의 연령

연령대	%
10대	7.7
20대	4.1
30대	26.8
40대	31.0
50대	16.8
60대 이상	13.6
합계	100.0

이 밖의 자료 분석 결과, 소집단 회원의 평균 성비는 남성 31.9%, 여성 68.1%로 나타나 여성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소집단은 187개로 전체 소집단의 36.0%를 차지하며, 남성만으로 구성된 소집단은 35개로 전체 소집단의 6.7%로 나타나, 여성만으로 구성된 소집단이 남성에 비해 그 수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소집단이 여성 회원만으로 구성되었거나, 여성이 90%이상인 소집단은 연령상으로 30, 40대가 많으며, 남자 회원만으로 구성되었거나 남성이 90-80%인 경우는 10대가 많았다. 이는 남자의 경우 청소년층에서²⁾, 여자의 경우 30, 40대의 중년층에서 소집단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60대 이상의 노인 연령층은 남성과 여성 혼성 소집단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2.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여성 소집단 사례조사

1) 일반 사항

<표 4-11>은 사례조사 대상 23개 소집단의 활동유형과 결성시기, 회원 수, 활동기반을 두고 있는 시설유형, 회원 연령층을 정리한 것이다. 23개 소집단 중에서 65세 이

2) 시정개발연구원, 2000, 「서울시 중장기 청소년 정책연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동아리 참여 경험은 남학생 63.3%, 여학생 49.1%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 노인여성만으로 구성된 단체 1개,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만으로 구성된 1개 단체를 제외한 21개 단체는 20대에서 60대의 여러 연령계층으로 구성된 여성 소집단이다.

23개 소집단이 활동기반을 두고 있는 시설은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자치구 여성센터와 같은 여성시설이 8개소이며, 문화원 3개소, 사회복지관 4개소, 문화의 집 3개소, 도서관 2개소, 청소년 시설 1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1개소이다.

사례조사 대상 23개 소집단에 대해 조사시기를 기준으로 일련의 사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사례번호를 사용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1) 소집단의 명칭 유무

23개 소집단 중에서 절반인 1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나 활동내용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회원들이 직접 만든 명칭을 갖고서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단체는 특별히 단체 이름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다. 단체 명칭이 있는 12개 단체 중에서 강남, 도봉, 송파, 잠실 등의 자치구나 동네 이름을 사용하여 지역성을 드러내는 소집단이 4개이며, 8개는 활동 내용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표 4-8 참조>.

<표 4-8>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명칭

명칭유무	사례수	비고
있음	12	- 자치구 지역명 사용 4개 단체: 사례 1, 13, 22, 23 - 활동내용 강조 8개 단체: 사례 2, 7, 11, 12, 16, 18, 19, 21
없음	11	사례 3, 4, 5, 6, 8, 9, 10, 14, 15, 17, 20

(2) 회원 수

23개 소집단 중에서 회원수가 가장 적은 단체는 인터넷 창업단체로 3명이며,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독서지도 단체로 3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2개 단체 중 10명 미만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7개 단체이며, 11-19명으로 구성된 회원은 10개 단체, 21-30명으로 구성된 단체는 6개 단체이다<표 4-9 참조>.

<표 4-9>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회원 수

회원수	사례수	비고
10명 미만	7	사례 2, 3, 5, 8, 7, 6, 8
10-19명	10	사례 4, 9, 11, 12, 13, 15, 16, 13, 16, 23
20-30명	6	사례 1, 6, 7, 14, 20, 22

(3) 결성시기

22개 소집단 중에서 단체의 최초 결성시기가 10년 이상이 넘는 경우는 4개 단체로 1989년에 결성된 독서회, 1990년에 결성된 도배봉사 단체, 1993년에 각각 결성된 연극 단체와 민요·한국무용 단체가 있다. 1990년 후반기에 활동을 시작한 단체는 6개 단체로 1996년에 결성된 한국무용 단체, 잠실 4동 자원봉사단체, 1997년에 활동을 시작한 미용봉사 단체, 1998년에 결성된 제빵봉사 단체, 1999년에 각각 결성된 영화감상비평 단체, 사진 단체가 있다. 2000년 이후에 결성된 소집단은 13개로 이중 7개 단체가 2000년에 결성되었고, 6개는 2001년에 결성되었다<표 4-10 참조>.

<표 4-10>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결성 시기

소집단 결성시기	사례수(단체)	피면담자 활동시기	사례수(명)
1989년	1	-	-
1990-1994년	3	1990-1994년	2
1995-1999년	6	1995-1999년	8
2000년 이후	13	2000년 이후	13

<표 4-11>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 일반현황

사례 번호	활동내용	결성 시기	회원 수	시설유형	회원연령	회원학력
1	연극	1993	30	문화원	40대-50대, 주부	대졸
2	웹디자인	2001	6	여성시설	20대후반 1명, 30대 3명, 40대 2명, 주부	대졸
3	공예	2000	6	여성시설	40대 3명, 50대 3명, 주부 5명, 미혼 1명	1명 대졸
4	탁구	2000	15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30대후반부터 40대 주부	1명 대졸
5	시설회보제작	2001	6	청소년시설	고등학생 2학년 재학 여학생	고등학교 재학중
6	미용봉사	1997	24	사회복지관	20대 5명, 30대 15명, 40대 4명, 주부	고졸정도
7	독서지도	2001	30	여성시설	30대후반 28명, 40대 2명, 주부	대부분 대졸
8	인터넷 창업	2001	3	여성시설	30대 후반 3명, 미혼여성	대졸1, 고졸2
9	일어학습	2000	12	여성시설	40-50대 주부	대졸
10	서예	2000	7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30-40-50대 주부	-
11	민요·한국무용	1993	17	문화의 집 구민회관	40대 주부	대졸, 고졸
12	장애여성자조활동	2001	13	사회복지관	30대후반-40대초반 주부	중졸 정도
13	한국무용	1996	15	문화원 구민회관	40-50대 주부	2명 대졸 고졸 정도
14	풍물놀이	2001	25	노인복지관	60-70대 노인 여성	-
15	독서회	1989	15	도서관	40-50대 주부	대졸
16	도배봉사	1990	15	여성시설	40대후반에서 60대초반 주부	-
17	영어학습	2000	6	도서관	30대후반에서 40대초반 주부	대졸
18	영화감상비평	1999	8	여성시설	30대후반에서 40대 주부	대졸
19	제빵봉사	1998	13	사회 복지관	30대후반에서 40대	10명 대졸 3명 고졸
20	요리·급식 자원봉사	2000	20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30-50대	40대 고졸 50대 중졸
21	사진	1999	16	문화원	30대후반과 40대 여성 13 60대 남성 3명	대졸, 고졸
22	전통예절문화	2001	20	여성시설	30-40-50대	고졸 이상
23	자원봉사	1996	12	자원봉사센터	50대 전업주부	초졸에서 대졸까지 다양

(4) 피면담자 일반사항

피면담자는 소집단 활동내용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활동자 위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피면담자의 대부분이 단체의 회장이나 부회장, 총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원이었다. <표 4-13>은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피면담자 일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피면담자의 16명이 현재 단체에서 회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2명은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2명은 간사·총무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면담자는 3명이다.

피면담자의 연령은 10대가 1명, 30대가 3명, 40대가 12명, 50대 5명, 60대가 2명이다. 피면담자 중에서 현재의 단체에서 활동을 시작한지 약 10년이 되는 사람은 2명이며, 현재의 단체에서 5년에서 7년 정도 활동을 한 경우는 8명, 현재의 단체활동을 시작한지 3년 이하인 피면담자는 13명이다<표 4-12 참조>.

<표 4-12>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피면담자 연령

연령	사례수(명)	비고
10대	1	사례 5
30대	3	사례 7, 8, 10,
40대	12	사례 1, 2, 4, 6, 11, 12, 15, 17, 18, 19, 20, 21
50대	5	사례 3, 9, 13, 22, 23
60대	2	사례 14, 16

피면담자의 학력은 대졸(대학원 1명 포함)이 14명이며, 고졸은 4명, 고등학교 재학이 1명,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본인의 학력수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면담자의 혼인상태는 2명을 제외한 21명이 결혼하여 1-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피면담자의 거주지는 16개 자치구(강남, 강서, 영등포, 양천, 강북, 은평, 노원, 마포, 중랑, 강동, 도봉, 송파, 서초, 동작, 광진, 용산)이며, 제외된 구는 9개구(종로, 중구, 동대문, 서대문, 금천, 구로, 관악, 성동, 성북)이다<표 4-13 참조>.

<표 4-13>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피면담자의 특성

사례 번호	연령	소집단 활동연도	학력	소집단내 역할	거주지	거주 가족
1	48	1993	대졸	회장	강남구	대학생 자녀 2, 남편
2	40	2001	대졸	회장	강서구	중학생 자녀 1, 남편
3	52	2000	대졸	지도자	영등포구	대학생 자녀 2, 남편, 시어머니
4	42	2000	대졸	회장	양천구	초중학생 자녀 2, 남편
5	17	2001	고등학교재학	간사	강북구	부모
6	47	1998	고졸	회장	은평구	초중학생 자녀 2, 남편
7	38	2001	대졸	회장	노원구	7세, 초등학생 자녀 2, 남편
8	38	2001	대졸	-	은평구	미혼
9	50대 초반	2000	대학원	-	마포구	대학생 자녀
10	38	2000	-	총무	중랑구	초등학생 자녀 2, 남편
11	49	1993	고졸	회장	강동구	성인자녀 2, 남편
12	40대 초반	2001	고졸	회장	강서구	성인자녀 1, 남편
13	54	1996	대졸	-	도봉구	성인자녀 2, 남편
14	64	2001	-	회장	강북구	결혼한 자녀, 남편
15	46	1998	대졸	회장	강남구	고대학생 자녀 2, 남편
16	61	1990	-	회장	강서구	성인자녀 2, 남편
17	40	1996	대졸	회장	송파구	초·중학생 자녀 2, 남편, 시부모
18	47	1999	대졸	회장	서초구	초·중학생 자녀 2, 남편
19	41	1998	대졸	회장	동작구	유치원, 초등학교 자녀 3, 남편
20	47	2000	대졸	회장	광진구	성인자녀 2, 남편
21	48	1999	-	부회장	용산구	성인자녀 1, 남편
22	51	2001	대졸	부회장	송파구	성인자녀 2, 남편
23	59	1996	고졸	회장	송파구	남편

2) 소집단 결성 동기와 과정

(1) 평생교육 참여를 통한 친교 형성과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23개 소집단 중에서 18개 단체가 공공이나 민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소집단을 처음 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 개월 간 진행되는 평생교육 강좌에 참여하면서 수강생들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친교가 형성되고, 강좌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부 수강생이 중심이 되어 단체를 결성하였다.

평생교육 강좌 참여가 계기가 되어 결성된 18개 소집단 중 16개 단체는 현재 활동 기반으로 삼고 있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교육강좌를 계기로 결성되었고, 2개 단체는 백화점 문화센터<사례 1>와 사설 학원<사례 11> 강좌를 계기로 결성되었다. 1993년에 최초 결성된 이 두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의 교육시설을 빌려서 단체활동을 하다가 이후 현재의 공공문화복지시설로 단체활동의 근거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고생 소집단<사례 5>의 경우, 학생들이 재학하였던 중학교 교사의 권유와 청소년 수련시설 교사의 지도를 계기로 결성되었다.

탁구 소집단<사례 4>의 경우, 몇 명의 동네 주부들이 동사무소 지하시설에 있는 탁구대를 이용하여 탁구를 하다가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동사무소가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되어 문화의 집을 개관하면서, 신규 주민들이 가입하여 탁구단체가 본격적으로 결성되었다.

1989년에 결성된 독서회<사례 15>의 경우 도서관이 직접 회원모집 공고를 하여 처음으로 단체가 결성되었다. 요리급식봉사<사례 20>의 경우 새마을 동부녀회 회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복지관의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요리강습을 듣고 있다.

1996년에 결성된 자원봉사<사례 23>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자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주민 중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단체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체 결성을 유도하였다. 2001년에 결성된 장애여성자조단체의 경우, 장애여성의 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계기로 소집단이 결성되기는 하였으나, 복지관 복지사가 소집단 결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과 지원을 하였기 때문에

결성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23개 소집단 중에서, 도서관에서 회원을 직접 모집하여 단체가 결성된 독서회<사례 15>의 경우 도서관이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결성하였으나, 나머지 22개 단체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학교, 동네에서 얼굴을 익히고 서로를 알게 되는 친교과정을 거친 후 단체를 결성하고 있다<표 4-14 참조>.

<표 4-14>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결성 계기

결성계기	사례수	비고
공공시설의 강좌 수료 후 결성	16	사례 2, 3, 6, 7, 8, 9, 10, 12, 13, 14, 16, 17, 18, 19, 21, 22
백화점 문화센터, 사설 학원 강좌를 계기로	2	사례 1, 11
학교 교사의 지도로	1	사례 5
몇몇 동네 주부들의 스포츠 활동이 발전하여	1	사례 4
도서관의 회원 모집으로 결성	1	사례 15
부녀회 활동으로	1	사례 20
자원봉사교육 수료 후 시설 운영자의 권유로	1	사례 23

(2) 소집단 결성의 주도적 역할자

회원으로 활동하게 될 소집단 활동자의 단체 결성 및 참여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교육강좌의 강사, 공공문화복지시설 운영자가 여성 소집단 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4-15 참조>.

23개 단체 중 9개 단체는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하여 소집단을 결성하였다. 교육강좌에 참여한 일부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강좌 수료 후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자는 논의를 한 후, 시설 운영자에게 단체 활동 의향을 밝히고 공간지원 협조 요청을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한 강사가 소집단 활동을 권고하고, 강사 본인이 함께 단체활동에 참여하면서 소집단 결성과 단체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례는 6개 단체이다.

문화복지시설 운영자가 소집단 결성과 활동을 장려한다는 방침하에, 회원 모집이나 단체 결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주는 과정을 통해 결성된 단체는 8개 단체이다.

<표 4-15>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 결성의 주도적 역할자

결성의 주도적 역할자	사례수	비고
회원(학습 참여자)이 주도	9	사례 1, 2, 7, 10, 11, 13, 17, 18, 20
강사의 권고	6	사례 3, 9, 16, 19, 21, 22
시설의 유도(모집)와 적극적 지원	8	사례 4, 5, 6, 8, 12, 14, 15, 23

3) 소집단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지원 역할

(1) 장소 및 정보 제공

23개 단체 모두 공공문화복지시설에서 단체 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피면담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여성 소집단 결성과 활동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 공모전과 경연대회

공공시설의 장소 및 정보 제공 외에 공공이 개최하는 공모전과 경연제 등의 행사도 소집단 활동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전과 경연대회 참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간 결속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단체와 회원들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있어, 이들 대회를 통해 단체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공모전과 경연대회는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여타 단체와의 교류 및 연계를 촉진하여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연극 단체 <사례 1>의 경우 여성부 주관의 연극 공연제, 공예 단체<사례 3>은 서

울시 공예 공모전, 탁구 단체<사례 4>는 구청장배 탁구대회, 인터넷 창업 소집단 <사례 8>은 여성부의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단체 결성과 활동에 자극을 받고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타 단체와 교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공무원의 대응 방식

여성의 소집단 참여와 활동 활성화에 공무원의 대응 방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극단체<사례 1>의 경우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를 계기로 1993년에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백화점이 이들 단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윤창출 효과가 적게 나타나자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단체활동에 필요한 공간 제공을 중단하였다. 활동공간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연극단체에게 자치구 공무원이 공공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연계를 해 주었고, 이 단체는 2000년부터 자치구 문화원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게 되었다.

창업 단체<사례 2>는 소집단 결성을 하고, 회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단체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 공무원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공무원이 사용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다.

탁구단체<사례 4>의 경우 동네 주부들이 주민자치센터내에 있는 탁구대를 사용하여 탁구를 할 수 있도록 동 직원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동 공무원이 사용 허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동네 주부들이 모여 탁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미용봉사<사례 6>의 경우 피면담자가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보를 얻기 위해 자치구 공무원에게 전화문의를 하였는데, 공무원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활동 정보를 제공해주어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지도 단체<사례 7>의 경우 피면담자가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찾아가 아동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주어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일어학습<사례 9>, 전통예절문화<사례 22>단체의 경우, 외국인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 구청과 접촉하였는데, 구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일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한다.

민요·한국무용 단체<사례 11>, 한국 무용<사례 13>의 경우, 자치구 차원에서 이들 단체 활동에 관심을 가져 자치구 행사에 단체가 참여하기도 하며, 한국 무용 <사례 13>의 경우 구립 단체로 육성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배봉사 단체<사례 16>, 제빵봉사 단체<사례 19>의 경우, 자원봉사 수혜자를 지역사회에서 더 찾기 위해 직접 동사무소의 공무원을 찾아가 접촉을 하였으나, 공무원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4) 사례별 소집단 결성동기와 과정

<사례 1 : 연극, 1993>

1993년 강남지역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연극강좌를 개설하였으며, 당시 40명이 참여하였다. 백화점이 도산하면서 강좌모임 또한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강생 15명이 연극 소집단을 결성하자고 뜻을 모았고, 1993년부터 소집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단체 결성 후 1년 동안 개인 소유의 지하실을 빌려서 연습하다가, 강남지역의 모 백화점을 찾아가, 장소만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연극강사 선정과 섭외, 강사료는 단체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였고, 백화점에는 회원들이 매 3개월 6만원의 회비를 냈다. 그러나 연극은 회원 수가 적기 때문에 백화점 측에서 이윤을 고려하여 1년 만에 장소 제공을 중지하였다. 이 백화점의 공연시설에서 두 차례 연극공연을 하였으나, 공연 시설도 폐쇄되고 말았다. 이후 강남지역의 또 다른 백화점을 찾아가서 섭외하여 장소를 제공받았으나, 백화점이 이윤상의 문제로 장소 제공을 중단하였다. 이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자치구 공무원의 정보제공과 주선으로 강남지역의 마사회 시설을 이용하다가, 2000년 자치구 공무원의 주선으로 문화원에 단체등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사례 2 : 웹디자인, 2001>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에서 개설한 6개월 정보화 교육강좌에 참가한 수료생 6명이 창업 동아리를 결성하였다. 당시 강좌가 끝난 후 2개의 동아리가 결성되었다. 강좌 수료 후 취업할 수는 있었으나 월급은 40만원 수준이었고 밤샘

작업도 자주 있는 편이어서, 주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설한 서울시의 취지를 생각하면, 배운 것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고 해서, 창업 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

<사례 3 : 공예, 2000>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1999년도에 개설한 공예강좌에 참여한 20명의 수강생 중에서 강사의 권유로 소질이 뛰어난 5명이 공예 공모전에 함께 공모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0년부터 소집단을 결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사례 4 : 탁구, 2000>

1998년 동사무소 지하실에 물이 차서 탁구대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몇몇 동네 주부들이 동사무소의 허락을 얻어 동사무소에서 주부들끼리 탁구를 치기 시작하였다. 동네 주부들은 자녀들이 같은 학교를 다녀 탁구를 치면서 친해졌다. 1999년도에 동사무소 건물이 신축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문화의 집이 들어서게 되었다. 문화의 집을 개관하면서 시설 이용자도 늘어나고 새로운 주민이 가입하면서, 2000년에 탁구 동아리가 결성되었다.

<사례 5 : 시설회보 기획제작, 2001>

중학교 3학년 같은 학급이었던 10명의 여학생(남녀공학 중학교였는데 여학생 수가 유달리 적어 한 반의 여학생 수가 평균 10명 정도여서 같은 반 여학생들의 사이가 매우 친밀하였다고 함)이 고등학교로 진학한 1학년 봄 무렵에 학교 인근에 청소년 수련관이 개관되었다. 이때 중학교 3학년 당시 담임교사였던 여선생님이 제자 여학생 10명에게 전화하여 청소년 수련관으로 인솔하였고, 이를 계기로 수련관 청소년 지도사의 지도 아래 10명의 여학생이 두 팀으로 나뉘어 독거노인, 장애인 시설의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수련관에서 소집단 활동을 지도해주는 청소년 지도사는 담임 선생님의 제자라고 한다. 초기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독거노인

봉사팀 외에는 활동이 부진해지자, 수련관 측에서 수련관의 회보와 홍보 기획을 하는 소집단으로 활동을 전환시키면서 지금의 동아리가 결성되었다.

<사례 6 : 미용봉사, 1997>

사회복지관에서 미용 수업을 듣고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미용 자원봉사단을 결성하였다. 피면담자의 경우 미용봉사를 하고 싶어 구청에 의뢰하였더니 주민자치센터의 미용강좌를 소개해주었다. 강좌를 듣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복지관의 미용봉사 동아리 활동을 1998년부터 시작하였다.

<사례 7 : 독서지도, 2001>

여성발전센터에서 개설한 2001년 독서지도사 4개월 강좌를 듣고 나서 결성하였다. 강좌는 25명의 수강생으로 시작했으나, 18명이 수료하고 이 중 8명으로 소집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수업을 들었지만,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친해지면서 강좌가 끝난 후에도 단체학습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집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모듬 지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독서지도 소집단을 결성하는데 적극적이었다. 회원들간에 소집단 활동을 하자는 의견이 결정된 후, 시설의 훈련팀장에게 소집단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모임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과 복사기 사용을 허락해주었다. 만약 장소 제공이 안되었다면 모임이 흐지부지해졌을 것이다.

<사례 8 : 인터넷 창업, 2001>

여성시설에서 2001년에 개설한 e-business 수업을 수료한 후, 여성부가 주관한 창업경진대회가 있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팀을 구성한 것이 소집단 결성의 동기가 되었다.

<사례 9 : 일어학습, 2000>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발전기금을 받아 2000년에 개설한 일어강좌를 수료한 후, 일어 강사가 비슷한 연령층의 여성이었기에 강사와 함께 수료생들이 소집단을 결성하여 학습을 계속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사례 10 : 서예, 2000>

주민자치센터에 문화의 집이 개관되면서 서예강좌가 개설되었고, 서예강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동네 주민 7명이 자연스럽게 소집단을 결성하게 되었다. 문화의 집에서 활동공간을 제공해주어 서예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였다.

<사례 11 : 민요·한국무용, 1993>

1992년 사설 학원에서 한국 무용을 배우던 주부들이 동아리 활동을 구상하고 있던 중, 이들이 우연히 구민회관을 방문하면서 구민회관에서 한국 무용 연습을 하는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날 사설학원 팀과 구민회관 연습 팀이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1993년부터 두 팀이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사례 12 : 장애여성 자조활동, 2001>

복지관에서 2001년 개설한 장애인 컴퓨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들이 시설의 사회복지사 권유로 모임을 결성하였다.

<사례 13 : 한국무용, 1996>

1994년 문화원에서 개설한 한국무용반 강좌 초급, 중급, 고급 과정 2년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더 이상 강좌를 들을 수 없게 되자, 동아리 활동을 하자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모았고, 1996년부터 소집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례 14 : 풍물놀이, 2001>

노인복지관에서 개설한 2001년 풍물놀이 강습을 듣고 나서 소집단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복지관에서 적극 지원해주어서 풍물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례 15 : 독서회, 1989>

도서관에서 1989년 도서관 독서회 회원 모집 광고를 하였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 독서회 소집단이 결성되어 1989년부터 활동이 시작되었다.

<사례 16 : 도배봉사, 1990>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에서 개설한 1990년 도배강좌를 듣고 난 수료생을 중심으로 강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자고 권유하여, 1990년부터 4명이 도배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례 17 : 영어학습, 2000>

도서관에서 2000년 영어 회화반을 개설하였고, 영어강좌가 시작된 2달 후에 영어학습동아리가 결성되었다.

<사례 18 : 영화감상비평, 1999>

자치구 여성문화센터에서 1999년 영화감상 강좌가 있었고, 강좌가 종료되면서 수료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자는 논의를 하여 단체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례 19 : 제빵봉사, 1998>

복지관에서 1997년 개설한 제과제빵 초급·중급강좌를 들으면서 수강생들이 친해지고 강사와도 뜻이 맞아서, 강사와 함께 제과제빵 봉사단체를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례 20 : 요리급식봉사, 2000>

부녀회 회원 10명이 2000년부터 팀을 이루어 복지관의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복지관의 요리강좌에 단체로 참여하여 학습을 하고 있다.

<사례 21 : 사진, 1999>

문화원에서 1999년 개설한 사진 강좌를 수료한 수료생과 강사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례 22 : 전통예절, 2001>

여성시설에서 2001년 6개월 예절 강좌를 수료 한 후, 강사의 주도로 모임이 결성되었다.

<사례 23 : 자원봉사, 1996>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자가 교육이 끝난 후에 수료자 중 잠실 4동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활동하도록 하였고, 이것이 자원봉사 단체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4) 단체 운영방식

(1) 조직 구성

23개 소집단 중에서 인터넷 창업<사례 18>과 한국무용<사례 13> 2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장과 총무 등의 이름으로 직책을 두고 있다<표 4-16 참조>.

인터넷 창업<사례 18>은 회원이 3명이고, 각자 창업 준비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정보를 상호교환하는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직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이와 달리 단체활동이 7년째 접어들고 있는 한국무용<사례 13>의 경우, 구립 단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회원과 시설 운영자 간의 갈등으로 회원 회장제가 없어지고, 2002년부터 전문 안무가 단장체제로 조직 구성이 바뀌었다고 한다.

회장과 총무 외에 더 세부적인 조직구성을 하고 있는 소집단은 연극<사례 1>, 창업<사례 2>이 있다. 연극<사례 1>의 경우 회장, 부회장, 총무, 분야별 기획담당자가 있으며, 단체활동과 관련된 공식 회칙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창업<사례 2>은 대표, 영업, 디자인, 기획, 마케팅으로 회원 모두가 역할을 맡고 있다.

회장과 총무, 대표 등의 직책이 있으나 이러한 조직구성은 단체 활동에 필요한 역할 분담을 위한 것으로 구성원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령 회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거나<사례 4>, 회장 연임을 권하지 못한다거나<사례 15>, 회장, 총무가 있고 회원들이 있어도 회장이다 총무다 그런 개념 없이 더불어 같이 하는 봉사자이므로, 직책이 아닌 이름을 서로 부른다는 <사례 23>에서 알 수 있듯, 회장이나 총무가 권한보다는 단체 활동에 필요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표 4-16>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조직 구성

직책 유무	사례수	비고
있다	21	- 회장과 총무, 간사 운영 형태 19개 - 회장, 부회장, 총무, 분야별 기획담당자 1개<사례 1> - 대표, 영업, 디자인, 기획, 마케팅 1개<사례 2>
없다	2	- 전문가 단장 체제 1개 <사례 13>

(2) 회원 가입과 탈퇴

23개 소집단 중에서 단체 결성 초기와 비교해 회원의 탈퇴, 새로운 회원 가입으로 단체 구성원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는 19개 단체이다. 초기 회원의 탈퇴나 신규 회원 가입 없이 초기 회원이 고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6개 단체이다. 단체 결성 초기에 비해 회원 수가 증가한 경우는 9개 단체, 회원 수가 감소한 경우는 3개 단체, 회원이 바뀌었으나 회원 수는 일정한 단체는 5개 단체이다. 기존 회원에 변동이 없으며 앞으로도 신규회원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는 단체는 3개 단체, 기존 회원에 변동이 없으나 회원 수나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체가 3개이다<표 4-17 참조>.

독서 지도회<사례 7>와 풍물놀이<사례 14>의 경우 회원이 각각 30명, 25명으로 늘어나면서, 회원 수가 더 이상 증가하면 단체활동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신규회원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청소년 소집단<사례 5>의 경우 2001년 결성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회원들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 현재 회원들이 대학진학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하는 3학년이 되면 단체 활동이 힘들어지므로 매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기별 회원 모집을 하고, 신규회원인 1학년이 1년 간 단체활동을 경험하고, 2학년이 되면 단체 중심 활동자로 교체되어 단체 활동을 지속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창업<사례 2>, 공예<사례 3>, 일어학습<사례 9>의 경우 초기회원이 고정적이며, 향후에도 신규회원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사례 2, 3>은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공동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기술수준도 비슷하므로, 신규회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1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례 9>의 경우 회원 수가 더 이상 증가하면 회원의 친밀감과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신규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영화감상비평<사례 18>은 회원 수가 감소하여, 회원 충원을 할 계획이 있다. 서예<사례 10>, 장애여성자조 단체<사례 12>, 제빵봉사<사례 19> 3개 단체의 경우 특별히 신규회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신규회원 가입도 없고, 초기 회원 탈퇴도 없어 회원수가 일정하다.

미용봉사<사례 6>, 한국무용<사례 13>, 도매봉사<사례 16> 단체의 경우 회원 가입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있다. 미용봉사 단체의 경우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회원 가

입이 가능하며, 한국무용 단체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신규회원을 선발하고 있다. 도배봉사 단체에서는 도배교육프로그램 수료자에 한해 회원으로 한다. 이것은 단체활동에 일정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회원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만의 단체를 결성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모두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만으로 단체가 구성되었다고 한다. 연극<사례 1>과 사진<사례 21>의 경우 단체 결성 후 문화원을 통해 직장을 은퇴한 남성 회원 2-3명이 중간에 가입하였다. 대부분의 소집단은 일정 규모 내에서 회원의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으나, 30명 이내로 회원을 유지하고자 한다. 회장과 총무 등으로 조직 구성을 하고 있으나, 회원간에 수평적 관계를 맺고, 외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7>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회원 유동성

유형	사례수	비고
유동적·회원수 증가	9	사례 1, 4, 5, 7, 11, 14, 16, 17, 21
유동적·회원수 감소	3	사례 8, 18, 23
유동적·회원수 일정	5	사례 6, 13, 15, 20, 22
고정적·회원 제한	3	사례 2, 3, 9
고정적·회원 제한 안함	3	사례 10, 12, 19

(3) 사례별 단체 운영방식

<사례 1 : 연극>

회장, 부회장, 총무, 분야별 기획 담당자가 있으며, 공식 회칙도 있다. 회원 가입시에는 입회비 1만5천원을 내며, 회비로 3개월에 3만원을 낸다. 회비는 문화원으로 내고, 문화원에서 지도강사료를 지불한다. 초기에 시작한 회원 15명이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다. 회원은 원래 강남구에 사는 주부였으나 10년이 되면서 이사를 한 사람도 있어, 절반은 강남구, 절반은 다른 구에 거주

하고 있다. 회원들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부 대졸이다. 문화원에 단체등록을 한 2000년부터는 문화원 회원으로서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미혼·기혼을 따지지 않으나, 미혼여성의 경우 주부들과 활동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포기하게 되어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원에 단체등록을 하고 나서 남자 세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두 사람은 연로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다.

<사례 2 : 웹디자인>

대표, 영업, 디자인, 기획, 마케팅으로 직책을 만들어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회원들은 전부 대졸이다. 현재 회원들의 작업 기술수준이 비슷하므로 기술 수준이 다른 새 회원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회원들은 양천구와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한 사람은 현재 영국에 거주하면서 전자우편을 통해 같이 활동하고 있다. 운영회비는 없으며, 홈페이지 제작 등으로 수입이 생기면(많지는 않다) 경비로 사용한다.

<사례 3 : 공예>

회원은 초기 회원 6명 그대로이며, 회원 충원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현재 가게를 얻었는데, 회원들이 2명씩 조를 짜서 운영하기로 했다. 관리비를 내야하므로 수강료는 3개월에 3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회장이 가게를 얻었고 리더 역할을 하며, 그 외 직책은 없다. 회원들은 서로 다른 자치구에 살고 있다. 솜씨가 중요한 것이지 학교를 어디까지 나온 것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회원들 학력은 잘 모른다(피면담자는 중학교 교사를 하었기 때문에 대졸이라고 볼 수 있음). 회원들은 실직가장 가정주부 취업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중산층은 아니다.

<사례 4 : 탁구>

회원으로 15명이 등록했으나,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10명이다. 회원자격은 우리 동네 거주하는 주민인 것 같으나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강사료는 문화의 집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회비는 없으며, 회장만 있다. 회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동네는 저소득층이 많고 주부들이 일하려 나가므로 모이기가 힘들다. 탁구 회원들은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살만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동네에서 거주한 지 13년이 되었다. 큰 아이가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될 경우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갈 예정이다. 이사가도 그 동네에서 지역활동을 할 것이다. 구청에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찾아가는 것은 잘한다. 이사를 가도 지금 회원들과 연락은 할 것이다.

<사례 5 : 시설회보 기획제작>

초기 회원 6명이 현재 그대로 활동 중이며, 1명이 연락을 담당하는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한 명을 2기 회원으로 뽑았고, 앞으로 1학년 회원을 더 모집할 것이다. 1기가 3학년이 되면 대학 진학공부로 동아리 활동하기가 힘들게 되므로, 1학년을 선발하여 함께 활동하면서 배우고, 2학년이 되면 주 활동자가 될 것이다. 현재는 회원이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2기 회원부터는 수련관 공모를 통해 희망자를 모집하게 되므로 지역 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회원으로 될 것이다.

<사례 6 : 미용봉사>

회원 유동성이 많은 편이다. 가능한 1년 정도는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며, 회장이 가입 희망자를 면담한다. 미용사 자격증만 있으면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들이 2년을 넘기기가 어려운데, 2년만 넘기면 이후로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 회원의 대부분은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학력수준은 대부분 고졸 정도인 것 같다.

<사례 7 : 독서지도>

처음에 8명으로 동아리를 시작했으나 현재 30명으로 늘어났다. 회원 수가 많아져서 더 이상 회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

은 따로 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말했다. 회비는 한 달에 삼천원으로 복사비와 문구, 커피 구입에 사용한다. 회장과 총무, 책 공동구매를 담당하는 책임당자가 있다. 회원은 대부분 노원구에 살고 있으며, 학력은 대부분 대졸인 것 같다. 회원들은 사는데 불편은 없는 것 같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8 : 인터넷 창업>

초기 회원은 한 명이 남고, 이후 두 명이 새로 합류하였다. 회원들은 각자 다른 구에 살고 있다. 회원은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함께 활동할 수 있다. 직책이나 회비는 없다. 회원 3명은 삼십 중반으로 모두 미혼이다. 한 명은 대졸이며, 두 명은 고졸이다.

<사례 9 : 일어학습>

회원 총원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다. 8명은 현재 단체활동의 기반이 되는 여성시설이 있는 마포구에 거주하며, 4명은 강남구와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다. 회장과 총무가 있다. 일본여행을 위해 매달 2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다. 회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로는 보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10 : 서예>

초기 회원 7명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회원들은 같은 동네 주민들이다. 회비는 강사료로 한 달에 1만원을 낸다. 회장과 총무가 있다. 회원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회원들은 먹고 사는 것에 고민하지 않는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것 같고, 서예를 배우는데 학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서로 물어보지 않았다.

<사례 11 : 민요 · 한국무용>

1993년 초기 회원 대부분이 교체되었고, 현재 회원들은 4-5년 전부터 합류한 회원들이다. 한국무용 7명, 가야금 5명, 민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자는 언제라도 받아들인데, 회원 총원이 어렵다. 개인적 네트워크로 회원들이 들어온다. 특히, 한국무용은 개인이 의상을 준비해야 하므로 돈이 드는 편이어서 주부들이 하기가 쉽지 않다. 공연료가 나오면 감사비와 활동비로 사용하고, 감사비가 부족하면 소정의 회비를 걷는다. 회장과 총무가 있다. 회원 중 14명이 강동구에 거주하고 3명은 다른 구에 살고 있다. 고급스런 취미라서 회원들이 부유한 줄 알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줄으니까 하는 것이다. 회원은 대졸자도 있고, 고졸자도 있다.

<사례 12 : 장애여성 자조모임>

회원 변동은 없으며, 회원 총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 회장이 있다. 장애인끼리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비장애인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것 같다. 회원들은 11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세민이고, 학력은 중졸이 대부분이며 고졸도 드물다. 학력을 쓰라고 하면 안 쓴다. 전문가 초청 강의시에는 회비를 5천원씩 내는데, 이것이 부담이 되어 강좌참여를 못하는 회원도 있다.

<사례 13 : 한국무용>

초기 회원 15명 중에서 6명은 나이가 들어서 활동을 그만두었고, 9명은 현재 활동 중이다. 현재 1, 2, 3기까지 왔다. 구를 대표하는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회원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젊은 회원을 육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것이다. 초기 회원 15명은 모두 도봉구민이었고, 회원은 도봉구민이 원칙이나 회원 가입 후 다른 구로 이사를 간 회원은 계속 활동할 수 있다. 구립문화단체로 육성하려는 과정에서 내부 갈등과 운영 주도권 문제로 회원의 회장제는 없어지고, 현재 전문 안무가가 단장을 하는 체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회원들은 회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과 달리 현재는 문화원에서 허락을 해준 공연에만 응하고 있다. 회비는

없으며, 의상은 개인 부담이다. 학력은 대졸이 2명이고 나머지는 고졸이며,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14 : 풍물놀이>

회원들은 같은 자치구에 사는 사람으로, 초기 회원 11명 중 1명이 멀리 이사 갔고, 10명은 계속 활동하고 있다. 풍물놀이를 쉽게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보기보다 어려워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 장구와 춤은 1-2년 배워서 못한다. 회원이 25명으로 늘어나, 당분간 새 회원은 받지 않을 것이다. 회장이 있으며, 회비는 없다.

<사례 15 : 독서회>

초기 회원 2명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 대부분은 도서관 주변지역에 살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도 이 곳으로 와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회원 수는 제한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15명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회원은 3월 초에 도서관을 통해 모집공고를 내고, 회원의 개인적인 소개로 들어오기도 한다. 1-2개월 활동해보고 스스로 회원이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활력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30대 젊은 층의 유입이 필요한데 없어서 걱정이다. 회장과 총무가 있으며, 회장은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회원들은 대부분 대졸자이며, 중산층이라고 할 것이다.

<사례 16 : 도배봉사>

4명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15명이 되었고, 대부분 10년 정도 활동해 온 사람들이다. 도배강좌 수료생으로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봉사활동시에 많으면 40명까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자원봉사활동 계획은 강사가 맡아서 하고, 회장이 회원 연락과 단체 통장 관리를 하고 있다. 2001년부터 시설에서 봉사활동 시간당 천원을 지원해주고 있어, 이 돈으로 벽지를 사거나 1년에 한번 친목식사를 한다. 도배일로

돈을 버는 주부들이므로 영세민이다. 회원들이 서로 다른 구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 17 : 영어학습>

4명으로 출발했으며, 현재는 6명이다. 회원들은 같은 자치구에 살고 있다. 회원은 희망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장이 있고, 회비는 없다. 회원은 대졸자이며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서 우리 동네로 돌아와 단체 활동을 재개한 회원도 있다.

<사례 18 : 영화감상비평>

15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8명이다.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만둔 회원들이 있다. 회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회비는 한 달에 2만원을 낸다. 회장과 총무, 간사가 있다. 회원은 대졸자로 중산층이라 할 수 있다. 회원 7명은 강남구에 살며, 1명이 서초구에 살고 있다.

<사례 19 : 제빵봉사>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초기 회원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으나,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한 달에 한번 하는 봉사활동에는 보통 8명 정도가 참가하고 있다. 기존 회원들이 너무 친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응이 안되어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 걱정이 된다. 회장과 총무가 있다. 회비는 빵 재료비로 한 달에 약 만원 정도 내고 있다. 복지관에서 빵 만드는데 필요한 기구와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다. 회원들 10명은 대졸자이고, 3명은 고졸자인 것 같다. 재료비를 부담스러워하는 회원은 없으니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20 : 요리급식봉사>

부녀회 회원 10명이 복지관에서 급식자원봉사를 하면서 복지관의 요리 강좌에 매주 참여하고 있다. 부녀회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요리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부녀회는 회장이 있다. 회원의 학력은, 30대는 대졸, 40대는 고졸, 50대는 중졸인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다. 회원들은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로 1998년에 이사왔다.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부녀회 회장은 아니지만 부녀회 활동을 하였고, 지역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다. 이 동네로 이사오면서 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자치구 주부모니터 자원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례 21 : 사진>

초기 회원은 9명이고,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여 현재 16명이다. 회장과 부회장, 총무가 있다. 회비는 한 달에 1만 5천원을 낸다. 회원은 이사간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구에 산다. 회원은 희망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년퇴임한 남자 회원 두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 학력은 고졸과 대졸이 섞여 있으며, 중산층이라고 할 것이다.

<사례 22 : 전통예절문화>

가입을 원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장과 총무가 있다. 생업전선에 안 나가고 예절에 대한 공부를 하니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 회원은 같은 자치구 주민이며, 학력수준은 고졸 이상은 되는 것 같다.

<사례 23 : 자원봉사>

회장과 총무가 있으나,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므로 회장님, 총무님이라는 직책을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서로 이름으로 부른다. 내가 회장직을 맡고 있으나 직위, 이런 것은 싫어한다. 초기 회원 20명 중에서 이사를 가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이 많아 현재 남아 있는 회원은 나 혼자이며, 현재 회원들은 중간에 들어왔다. 신규회원은 회원들이 친구를 데려오면서 총원

된다. 친구를 통해서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봉사활동을 그만두지 않는다. 이사를 간 회원도 우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이사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회원들은 송파구가 아닌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도 많다. 회비를 내지는 않는다. 회원 연령은 50대가 대부분이며, 회원들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5) 지역성과 다양성

(1) 지역성

23개 단체 중 4개 단체는 자치구나 동 명칭을 단체 이름으로 사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1996년에 결성된 자원봉사<사례 23>의 경우 결성초기에 같은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단체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동명을 단체명칭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재 회원의 대부분은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거주지를 중심으로 단체의 지역성을 분석해 보면, 회원 대다수가 같은 자치구에 살고 있는 경우는 17개 단체이며, 여러 구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6개 단체이다 <표 4-18 참조>.

동 단위의 지역성을 갖는 6개 단체 중 3개 단체가 주민자치센터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이며<사례 4, 10, 20>, 1개 단체는 거리 이동성에 상대적인 제약을 받는 60대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단체<사례 14>이다. 2개 단체는 아파트단지 내에 입지한 시설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단체로<사례 15, 19>, 회원들 대부분이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다.

<표 4-18>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 회원의 거주지 분포

지역 단위	사례수	비고
같은 동	6	사례 4, 10, 14, 15, 19, 20
같은 자치구	11	사례 1, 5, 6, 7, 11, 12, 13, 17, 18, 21, 22
서울시	6	사례 2, 3, 8, 9, 16, 23

회원이 여러 자치구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5개 단체<사례 2, 3, 8, 9, 16>의 경우, 서울시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결성한 단체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취미문화 강좌와 달리 무료이며, 취업교육이므로 수강생들이 비교적 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서울시 전역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소집단 회원의 거주지도 여러 자치구에 걸쳐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례 23>은 회원들이 친구를 회원으로 영입하면서 회원들의 거주 자치구가 다양하게 된 경우이다.

1990년대 들어 공공 평생학습시설이 자치구 단위로 건립되고,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 시설 이용권을 우선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기반을 둔 소집단도 자치구 단위의 지역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의 유형과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회원 거주지의 지역범위에 차이가 있다.

단체활동을 시작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체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다른 구나 수도권 또는 해외로 이사한 회원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단체는 7개 단체였다. 이 중 해외로 이사한 경우는 웹디자인 창업 단체로 전자통신으로 공동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연극, 한국무용, 독서회, 사진의 경우 단체활동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이사를 간 지역에서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를 쉽게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한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게 된다. 남편의 직장이동으로 지방으로 이사한 회원이 몇 년 후 서울의 같은 동네로 돌아오면서 다시 단체활동에 합류하는 경우도 있다<사례 18>.

주민자치센터의 탁구 동아리나 노인 동아리의 경우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가면 단체활동을 그만두게 된다. 탁구의 경우 매일 해야 하는 스포츠이므로, 장거리 이동을 극복할 수 없다는 활동의 속성 때문에, 그리고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시설의 학습강좌에는 대부분 시설에 근접하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 학습강좌를 듣고 난 후에 결성된 소집단의 경우에도 일단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활동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거주지 변동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단체가 일단 결성되면 지역성을 초월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자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편, <사례 4, 20, 23>의 경우는 지역사회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새 거주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에서 단체활동을 한 번 경험한 경우,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여도 그곳에서 단체를 찾아내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이 거주지에서 가깝고 자녀들이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또는 중산층 아파트 지역인 경우에는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당분간 이사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사례 7, 10, 13, 15, 17, 19, 20, 21, 22>.

그러나 동네에 있는 공공시설에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 많은 단독주택지의 경우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시에 학군이 좋다고 하는 아파트단지 이사갈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경우도 있다<사례 4>.

(2) 다양성과 동질성

회원 계층평가, 학력, 연령을 기준으로 단체 회원 구성의 다양성과 동질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회원의 가구소득계층은 비교적 동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참여한 학습강좌의 유형과 지역성과 관련이 있다. 가령, 실직가장 가정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배취업을 위한 여성 프로그램, 장애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경제적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참여하게 되며, 따라서 강좌를 계기로 결성된 회원의 소득계층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강좌 유형에 따라 학력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학습에 참여하게 되어, 학습강좌가 모태가 된 소집단 회원의 학력수준도 비교적 동질하다고 할 것이다. 가령 아동독서나 독서회의 경우 대졸자들이 많이 참여하지만, 무용이나 스포츠, 요리 소집단 등의 경우 학력과 특별한 상관이 없기 때문에 회원들 학력수준이 섞여 있다. 학력은 활동내용과 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강남구, 송파구의 공공시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는 중산층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어떤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므로 소득계층이 비

슷한 중산층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지역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동네이므로 일하러 나가는 주부들이 많은데, 여기서 활동하는 주부들은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되니 비슷한 계층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사례 4>.

연령의 경우 10대 청소년으로 구성된 소집단이 1개, 30대 미혼여성 소집단이 1개, 60대 노인여성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1개, 40대로 구성된 소집단이 1개로 연령계층이 동질한 단체는 4개 단체이다. 20-30-40대로 구성된 단체는 2개, 30-40-50대로 구성된 단체는 3개, 40-50-60대로 구성된 단체는 1개, 30-40-60대로 구성된 단체는 1개이다. 40-50대로 구성된 단체는 5개, 30-40대로 구성된 단체는 6개이다<표 4-19 참조> .

<표 4-19>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회원 연령층

연령층	사례수	비고
비교적 동질	5	사례 5, 8, 11, 14 ,23 (10대, 30대 미혼, 40대, 50대,60대)
20-30-40대 30-40-50대 30-40-60대 40-50-60대	7	사례 2, 6 사례 10, 20, 22 사례 16 사례 21
30-40대 40-50대	11	사례 4, 7, 12, 17, 18, 19 사례 1, 3, 9, 13, 15

학습강좌의 유형이나 시설이 입지한 지역특성에 영향을 받아 여성 소집단은 소득 계층과 학력수준에서 비교적 동질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비해 연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활동 내용

(1) 학습 활동

23개 소집단은 단체 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활동을 하

고 있다<표 4-20 참조>.

23개 소집단 중에서 회원들이 집단으로 전문가에게 정기적 학습지도를 받는 경우는 연극, 탁구, 민요한국무용, 한국무용, 풍물놀이, 제빵봉사, 요리급식봉사, 사진, 전통예절문화 등의 10개 단체이다.

독서지도, 장애여성자조활동, 독서회, 영화감상비평 등의 4개 단체는 가끔 외부 전문가 특강 형태의 학습활동을 하고 있다.

연극, 웹디자인 창업, 공예, 독서지도, 영어학습, 전통예절문화 등의 6개 단체의 일부 회원들은 경제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현재의 소집단 활동과 관련된 강사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 분야의 공연이나 전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 학습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연극, 한국무용, 풍물놀이, 웹디자인 창업, 공예, 서예, 사진, 영화감상비평 회원의 경우 관련 분야의 공연, 전시, 세미나 등의 행사에 가능한 참여하여 안목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습 결과의 공식적 발표와 인정은 학습활동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방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3개 단체 중 13개 단체가 공연, 전시, 작품집 등의 형태로 학습결과를 발표하였거나 할 예정에 있다.

<사례 1 연극>은 전국 연극경연제 참여 및 구민회관 등의 공연을 위해 작품 선정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회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참여와 공연 자체가 중요한 학습이라고 할 것이다.

<사례 3 공예>는 공모전 참여와 전시회 개최를 통해 학습결과를 발표하고 기량을 인정받고 있다.

<사례 4 탁구>는 구청장배 탁구대회 출전을 위해 연습하고 있다.

<사례 7 독서지도>는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작품집을 낼 예정이다.

<사례 8 인터넷 창업>은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올해도 참가할 예정이다.

<사례 9 일어학습>은 단체로 일본여행을 두 번 하였고, 향후에는 일본 주부들과 교류할 계획과 일본 배낭여행계획도 갖고 있다.

<사례 10 서예>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기는 하나 올 연말쯤에는 동사무소에서라도

전시회를 가져볼까 하고 있다.

<사례 11 민요한국무용>은 경로잔치를 비롯하여 어느 곳이든 초청하면 가서 공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활동도 하고 싶어한다.

<사례 13 한국무용>은 자치구나 서울시 행사를 위한 공연활동을 했는데, 올해는 중국 연변에 가서 공연할 계획이 있다.

<사례 14 풍물놀이>는 복지관 연말행사시 공연을 했고, 외부 공연도 하였다.

<사례 15 독서회>는 활동을 기록하고 있으며, 단체 작품집을 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사례 18 영화감상비평>은 공공시설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수요영화초대석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 단편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사례 21 사진>은 전시회를 열었고, 매년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례 9 일어학습>, <사례 22 전통예절문화>의 경우 외국인 홈스테이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의 결과를 활용함과 동시에 외국인과의 교류를 위해 학습활동을 자극하기도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소집단 회원들은 자원봉사, 공동작업, 상호지도, 전문가 지도, 전문가 특강, 가르치기, 공연과 전시 관람, 학습결과의 발표, 여행, 홈스테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20>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학습 방식

학습방식	사례수	비고
단체 차원의 정기적 전문가 지도	10	사례 1, 4, 10, 11, 13, 14, 19, 20, 21, 22
단체 차원의 전문가 특강	4	사례 7, 12, 15, 18
개인 차원의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원 과정 참여	7	사례 1, 2, 7, 12, 13, 15, 17
강사로 활동	6	사례 1, 2, 3, 7, 17, 22
관련 분야 공연, 전시, 세미나 참여	9	사례 1, 2, 3, 10, 13, 14, 15, 18, 21
학습결과의 공식적 발표	13	사례 1, 3, 4, 7, 8, 9, 10, 11, 13, 14, 15, 18, 21

(2) 자원봉사활동

23개 소집단 중에서 단체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9개 단체이다. 이 중 5개 단체<사례 6, 10, 19, 20, 23>는 소집단 결성의 취지가 자원봉사이었고, 4개 단체<사례 1, 11, 13, 5>는 소집단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된 경우이다<표 4-21 참조>.

<사례 6 미용봉사>, <사례 16 도배봉사>, <사례 19 제빵봉사>, <사례 20 요리급식봉사>, <사례 23 자원봉사>의 경우, 단체 결성의 취지가 강좌를 통해 배운 기술을 자원봉사로 환원하자는 것이거나 또는 자원봉사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 결성된 단체이므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례 1 연극>, <사례 11 민요·한국무용>, <사례 13 한국무용>은 양로원, 고아원, 노인정 등의 복지시설에서 공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개인적 즐거움과 성취감을 위해 단체결성을 하였으나, 자연스럽게 공연봉사로 이어지고 있다.

여고생으로 구성된 <사례 5>의 경우, 초기에 독거노인,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수련관 행사지원과 회보를 만드는 자원활동으로 전환하였고, 노인 대상 한글지도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사례 1, 16, 19>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처나 대상자를 확장하기 위해 회원이 직접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아가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나 활동처를 소개해 달라고 할 만큼 지역사회 봉사참여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유형	사례수	비고
단체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9개	사례 1, 5, 6, 11, 13, 16, 19, 20, 23
개인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10명	사례 1, 3, 4, 6, 7, 9, 13, 15, 20, 22
자원봉사 희망자	4명	사례 2, 10, 14, 18

단체와 개인은 모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이 일방적인 자선의 형태가 아니라, 활동자 본인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 공연은 관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미용과 도배, 제빵, 요리급식은 단체봉사활동을 통해 숙련성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학습이 되고 있다.

단체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이었다. 그리고 4명은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 자원봉사활동 대상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많으며, 희망자도 청소년 대상의 활동을 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이들이 주부로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기에,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부들은 모두 학습참여나 단체활동의 시작 동기, 그리고 학습참여나 단체활동의 결과를 어떤 형태로든 자녀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어, 자녀가 주부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교통비나 식사비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와 교통비를 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도 두 가지이다. 회원들이 영세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 16 도배봉사>의 경우 1990년부터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IMF 이전에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 사정하여 벽지를 기증받아 봉사활동을 할 만큼 활동에 필요한 기본 물품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각자 도시락을 준비하여 하루종일 활동하였다. 그러다 2001년부터는 여성시설에서 봉사활동 시간당 1000원 수준의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다. 이 돈을 단체명의로 통장에 입금하여, 봉사에 필요한 벽지를 구입하거나 일년에 한번 친목식사를 한다고 한다.

1998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초기 회원들이 고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 19 제빵봉사>의 경우 한 달에 한번 재료비 만원 정도를 회원들이 부담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재료비가 부담되어 그만두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사례 6 미용봉사>의 경우 재료는 복지관에서 제공하고, 미용장비와 교통비는 회원 개인이 부담하고, 독거노인 방문봉사시에는 개인이 먹을 거리를 준비해 가기도 한다.

<사례 20 요리급식봉사>는 복지관에서 재료와 장소를 제공해주므로 회원들은 노력 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단체의 결성동기가 자원봉사활동에 있었기 때문에 무

보수 또는 개인이 부담하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사례 3 공예>, <사례 22 전통예절문화>의 경우 단체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지만, 자원봉사활동 대상자가 저소득층이 아니고,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는 자원봉사활동인 경우에는 무료봉사활동에 대해 내적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저소득층 대상의 자원봉사활동이 아니면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활동에 대해 아무런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개인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개인적 즐거움과 성취감을 위해 시작한 학습참여와 단체활동이 자연스럽게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양육의 보살핌과 생명의 키움이란 여성의 경험이 소집단 활동을 통해 타자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한편, 회원들은 단체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의향을 갖게 되며, 자원봉사 활동자의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집단 내부나 개인 활동을 벗어나 사회나 타자로 관심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면서, 이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기도 한다. 소집단 회원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동질한 계층으로 구성되어졌으나, 자원봉사활동이란 외부 활동을 통해 다른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 소집단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소집단 활동자들은 자신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기도 한다.

(3) 사례별 활동 내용

<사례 1 : 연극>

전문 연극 연출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회원들이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 협찬이나 여타 공연에 필요한 준비는 회원들이 한다. 1주일에 3회 연습을 하고 있다. 회원들 중에는 전문적 공부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도 있으며, 자원봉사로 연극지도를 하는 회원도 있다. 매년 전국 연극 경연제에 참여하고 구민회관에서 공연한다. 2001년에 문화관광부에서 1백만원을 지원받아, 천안의 노인복지관에 김밥 싸들고 가서 위문공연을 하였다. 우리만 좋아서 하지 말고 봉사하자는 차원으로까지 왔다. 지역에서 연극과 관련하여 자원봉

사활동을 하고 싶다. 현재는 다른 구의 노인복지관으로까지 가서 연극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싶다. 구청에 건의를 했더니 우리 구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다고 한다. 애들이 다 커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혜택 받은 것만큼 봉사하고 싶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청소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연극지도를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

<사례 2 : 웹디자인>

일을 하다보니, 새로 배워야 할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기능대학이나 정보문화센터에 가서 고급 단계의 강좌를 듣는다. 각자 집에서 작업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모여 회의하고 공동작업을 한다.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한다. 서울시에서 혜택을 받았으니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취업이 아니어도 좋다. 필요한 곳에서 활동하고 싶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학생들 컴퓨터 교육을 할 의사가 있다.

<사례 3 : 공예>

1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작품을 평가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회원들의 특기가 서로 다르다. 인사동에 자주 들러서 관련 전시를 보고 작품구상을 한다. 공모전에 함께 출품하고, 구민회관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앞으로 전시회는 계속 할 것이다. 가게를 얻었고, 회원들이 가르치기도 할 예정이다. 내가 비싸게 배웠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가르치는 것에 나서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죽어서 이 기술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싶어, 봉사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이로 인해 한 달에 한번 중학교에서 공예를 지도하고 있다.

<사례 4 : 탁구>

탁구는 매일 모여서 연습한다. 탁구 지도자가 와서 강습을 해준다. 실력을 쌓아서 구청장배 탁구대회에도 나갈 예정이다.

<사례 5 : 시설회보 기획제작>

수련관의 행사를 지원하고 홍보, 전단지, 회보를 제작한다. 2001년 작년에 수련관 예술제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였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회보를 만들기 위해 각자 지역행사나 기사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여, 한달에 한번 모여서 기획회의를 한다. 회의시에는 선생님도 의견을 내고, 우리도 의견을 내어서 좋은 방법을 택한다. 그리고 회보는 수련관 전체를 위한 것이므로 전체 동아리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회보 제작에 필요한 컴퓨터 기술은 컴퓨터 동아리 회원에게 배워가면서 한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을 갖는다. 미술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의 활동이 장래 비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책자를 만들면서 컴퓨터도 배우고 하니깐...5월부터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글지도를 할 예정이다.

<사례 6 : 미용봉사>

회원은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한다. 활동하면서 머리 스타일과 미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1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복지관에서 활동하며, 그 외 노인정, 병원 등에도 나간다. 회원이 항상 함께 모여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조를 짜서 활동한다. 재료비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며, 미용기구는 회원이 각자 부담한다. 교통비도 회원이 부담하고, 독거노인 방문시에는 회원들이 먹을 것을 갖고 간다.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구청에 미용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화하였더니,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미용강좌를 소개해 주었다. 무료로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뒀다. 미용수업은 무료이나, 재료비는 약 백만원 들었다. 자격증을 딴 후 1998년부터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자원봉사는 여건만 되면 계속할 것이다.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재미있고 배우는 것도 많다. 봉사활동을 안 했을 때는 모르지만, 하고 나면 너무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원봉사 수준에서 미용활동을 하고 싶으며, 현재로서는 미용실을 할 생각은 없으나, 회원들 중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미용실을 내는 경우도 있다. 2년 전 새서울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자원봉사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거리환경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례 7 : 독서지도>

1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모인다. 1-2달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책을 선정하고, 발제자가 발표 및 토론을 하는 식으로 학습한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 책을 발간할 계획이며, 작가들을 초대해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회원들 중에는 더 공부하기 위해 다른 시설에서 고급 단계 강좌를 듣는 사람도 있다. 회원 중에는 구청에 찾아가서 독서지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이제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회원도 있다.

<사례 8 : 인터넷 창업>

회원 2명은 인터넷에서 뚱뚱한 사람을 위한 의류 판매사업을 시작하였고, 1명은 인터넷 관광사업을 곧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off-line이 강해야 on-line도 살 수 있는 것 같다. 분야는 달라도 서로의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어 필요한 정보와 지적을 해준다.

<사례 9 : 일어학습>

한 달에 한번 모이나, 이제 일어 공부는 하지 않는다. 모여서 봉사활동 이야기, 일본여행 계획 등을 의논하는 친목 모임으로 전환되었다. 크게 능숙하지는 않으나 주제를 정해 놓고 일본어로 자유 토론을 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볼 수준은 된다. 이제는 문화를 통해 일어를 배워야 할 단계인데, 그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어학공부는 할수록 주부들이 질려버린다. 단체로 고궁에서 일어 자원봉사를 하자는 논의를 했으나, 고궁의 일어 자원봉사자는 이미 많아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었다. 현재 회원 두 사람이 월드컵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도 경쟁이 심한 것 같다.

<사례 10 : 서예>

1주일에 한번 전문가 지도를 받고 있다. 서체가 다양하므로 지도는 계속 받아야 한다. 서예 전시회는 가능한 가보려고 한다. 2년 정도 서예를 했으나

전시회를 가진 적은 없으며, 회원들 실력이 되면 전시회도 가지려고 한다. 올 연말쯤에는 이 시설에서 전시회를 가져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실력이 늘어나면 성당의 노인대학에서 가르치고 싶은 의향이 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노력할 것이다.

<사례 11 : 민요 한국무용>

무용 안무는 전문 안무가의 지도를 받는다. 1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연습한다. 무용은 사설학원에서, 민요는 구민회관에서, 가야금은 동사무소에서 연습하고 있다. 1993년부터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고, 소외계층 공연봉사도 하고, 부르면 어디라도 간다.

<사례 12 : 장애여성 자조활동>

1주일에 3회 모여서 학습한다. 전문가가 와서 아동심리나 아동교육 강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 강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강사료 때문에 자주 하지는 못한다. 토론주제를 정해 놓고 토론하거나, 회원이 가진 기술을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회원들 학력수준이 대부분 중졸 정도이므로 자체적으로 학습하기가 쉽지가 않다.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는 욕구는 강하나 소극적인 면이 있어, 지속적인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회원유지가 될 것이다.

<사례 13 : 한국무용>

일주일에 두 번 두시간씩 모여서 연습을 한다. 전문 안무가가 지도하고 있다. 회원들은 한국무용 공연을 자주 보면서 안목을 넓힌다. 자치구 행사에 참여하고, 경로잔치 공연도 한다. 구에서 받은 만큼 돌려주자고 한다. 단체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이 지역사회 봉사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나는 3년 전부터 단체활동을 계기로 우리 구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활동을 하면 참 좋고, 권하고 싶다.

<사례 14 : 풍물놀이>

복지관에 매일 나오지만, 수업이 있으면 연습공간이 없다. 전문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있다. 2001년 작년에 복지관에서 공연을 하였고, 외부 초청공연을 한번 하였다. 좋은 공연이 있으면 보러가기도 한다.

<사례 15 : 독서회>

매달 3-4권씩의 책을 선정하여 각자 읽고, 한 달에 한번 모여 세미나를 한다. 정해진 발제자가 발제를 한다. 이상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책은 의례적으로 한다. 회장이 책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이 힘들기에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회원들이 한번씩 한 경험이 있기에 연임하라고 못 한다. 세미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작가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갖고 있으며, 독서주간에는 도서관에서 전체 세미나를 개최하며 우리도 참가한다. 단체 작품집을 내기는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수준에까지 온 것 같지는 않아 망설이고 있다. 시인, 수필가, 소설가로 등단한 회원도 있고, 책을 출판한 회원도 있다. 이런 모임을 활성화해야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고 본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고, 독서회에 참가하였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사례 16 : 도배봉사>

봉사하러 가서 이걸 오늘 다 할 수 있을까 하다가도, 잘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으로조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협동하여 작업을 하면 어느새 일이 완료된다. 1년에 큰 복지시설은 2-3회, 독거노인 도배봉사 같이 작은 봉사 일거리는 6-7번 정도 한다. 회원들은 하루라도 벌어야 되는 사람이므로 봉사 활동을 자주는 못한다. 자원봉사활동은 도배 일거리가 없는 5-6월에 활동한다. 수도권에 있는 요양원, 고아원, 장애인 시설은 안 가본 곳이 없다. 어느 시설의 사정이 어려운지, 누가 운영을 하는지 알고 있다. 초기에 봉사할 때는 반월에 있는 벽지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벽지 기증을 받기도 했다. 기업체에서 안 만나주려고 해서 회사 앞에서 3-4시간씩 기다린

적도 있었다. 지금은 시설에서 벽지를 제공해주고 우리는 노력봉사만 한다. 봉사하고 나면 기분이 좋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권하니, 사람들이 모였다. 나는 활동 초기에는 두 가지 자원봉사를 했다. 점심 준비 안 해오는 회원을 위해서 점심을 준비해갔고, 일할 장비를 가져갔다. 한번은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동네에서 도배봉사를 하고 싶은데, 대상자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동 직원이 모르겠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결국 동네에서 도배봉사 활동하는 것은 포기했다. 단체봉사활동을 할 때 숙련자와 미숙련자를 한 팀으로 묶어서 조직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작업한다. 기술이 좋아야 도배봉사를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생공부하고 있다. 동생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자원봉사활동을 하라고 권한다.

<사례 17 : 영어학습>

1주일에 한번 모여서 공부한다. 영어회화는 꽤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현재 영어원서 강독을 하고 있다. 활동 후에 중학교 영어 전일제 교사나 학원에서 일하는 회원도 있고, 방송통신대학에서 다시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사례 18 : 영화감상비평>

한 달에 1-2번 만나서 영화를 보고 토론한다. 전문가 초빙 강좌를 가져 학습하기도 한다. 회장이 미리 영화를 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모임 날짜를 조정한다.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열리는 영화제에는 함께 참여하고 영상자료원 행사에도 간다. 1주일에 한번 점심시간을 이용한 수요영화초대석을 회원들이 직접 기획하여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다. 영화 선정과 상영, 설명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2003년 내년부터는 중학교 영화감상서클을 지도할 예정이다. 직접 단편을 만들어 보자는 논의가 작년부터 있어 왔다. 영화감독이나 비평가를 섭외할 수 있는 정보의 장이 있으면 좋겠다. 회원들이 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수요영화초대석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2002년 올해 중학교 영화감상서클 활동을 지도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회원들이 자신이 없어서 망설였다. 내년부터는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사례 19 : 제빵봉사>

한 달에 한번 복지관에 모여 빵을 만들어 봉사활동한다. 재료비는 회원이 부담한다. 회원의 한 사람인 강사가 새로운 빵 아이템을 준비해와서 지도해 주면서 만든 빵으로 봉사를 한다. 한 달에 한번 새로운 제과제빵 아이템을 배울 수 있어 좋다. 그리고 서로 아이디어 교환도 한다. 재료비를 지원해주면 양도 양이지만, 질 좋은 빵을 제공하고 싶다. 빵에 대한 관심은 많고 배운 것을 손놓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다. 꾸준히 새로운 빵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들 수 있어 좋다. 활동하다가 제과점을 낸 회원은 아직 없다. 경제활동을 못하니, 여기서 활동하면서 대리만족을 한다. 우리 동네는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런 시설에서 이런 활동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없다. 여기 나와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내 것 가진 것 지키려고 살면 정신이 없는데, 이런 활동이 오히려 생활에 여유를 준다.

<사례 20 : 요리급식봉사>

일주일에 한번 복지관 급식봉사를 마친 후, 오후에 복지관의 요리강좌에 참여한다. 동사무소 지하 주방에서 독거노인 밑반찬을 만드는데,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시설을 정비해 주면, 주민들을 위한 요리강좌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일에는 동사무소 민원업무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기왕에 일요일에 나가 봉사하는 것이므로, 우리도 제대로 교육을 받고 서류발급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데 동 직원들은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그냥 정리만 하고 가라고 한다. 회원들과 3년간 함께 활동하다 보니 일을 맡으면 잘 할 자신이 있다.

<사례 21 : 사진>

한 달에 두 번 정기 모임을 갖는다. 한 번은 사진촬영, 한 번은 작품인화와 평가회를 연다. 촬영은 회원이기도 한 전문작가가 장소와 주제를 구상하고 제안을 하면, 우리가 촬영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2001년 작년에 구민회관에서 작품전시회를 하였고, 매년 할 계획이다. 사진전시회는 가능한 자주 관람

하려고 한다. 흑백사진을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구민회관에 인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면 좋겠다.

<사례 22 : 전통예절문화>

지방선거와 관련한 구설수로 현재 적극적인 단체 활동은 못하고, 강좌를 듣고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다. 개인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로 전통예절문화 강좌를 하고 있다.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하게 된다. 그러나 교통비 정도의 소정의 활동비는 지급되었으면 한다. 이를 배우는데 비용도 많이 들었다.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부 중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례 23 : 자원봉사>

단체 차원에서는 심장재단에서 두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처가 있다고 요청하면 회원들이 서로 연락하여 자원봉사를 하러간다. 그리고 회원들이 전부 함께 활동하지는 않으나 개별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병원, 재활용품센터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송파구 자원봉사축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중앙일보사 자원봉사축제에서도 상을 받은 적이 있다. 회원들은 상 받으려고 활동한 것은 아니나, 상 받으니 그래도 우선 기분이 좋았다고 하였다. 회원들은 호스피스 교육은 다 받았다. 미용봉사를 하기 위해 미용사자격증을 딴 회원도 있다. 단체로 활동하니 협동심도 생기고 즐겁게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7) 단체간 네트워크

(1) 단체 연계활동과 연계 희망

23개 소집단 중에서 외부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사례 1, 5, 11, 13, 20> 5개 단체이다. 외부 단체와 연계활동을 현재 모색하거나 희망하는 경우는 7개

단체이며, 현재 단체에서 분가한 단체가 있는 경우는 1개 단체가 있다<표 4-22 참조>.

<사례 1>의 경우 전국 단위의 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례 5>는 회보 제작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 내 여타 동아리의 지원을 받고, 전체 동아리 회의에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하면서 다른 동아리들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사례 11, 13>은 공연 때 민요, 풍물, 가야금 등의 여타 단체와 연합공연을 하고 있다. <사례 20>은 부녀회와 복지관의 요리 동아리가 함께 강습을 듣고 있는 수준이다. 외부 단체와의 연계에 적극적 희망의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7개 단체로 이 중 <사례 1, 9, 11, 13> 4개 단체는 국제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사례 15, 18, 19> 3개 단체는 서울시의 다른 단체들과 연계하여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소집단에 대한 정보 수집과 교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15> 독서회의 경우 독서회에서 영상 시모임이 분가하여 하나의 단체를 결성하여 따로 활동하고 있다.

<표 4-22> 공공문화복지시설 사례조사 소집단의 단체 연계

연계 활동	사례수	비고
외부 단체와 연계 활동	5	사례 1, 5, 11, 13, 20
외부 단체와 연계활동 모색 및 적극 희망	7	국제교류 희망 : 사례 1, 9, 11, 13 서울시내 교류 희망 : 15, 18, 19
현 단체에서 분가한 단체 있음	1	사례 15

단체간에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례 1 연극>, <사례 11 민요·한국무용>, <사례 13 한국무용>은 서로 다른 단체간에 연대하여 활동함으로써, 공연내용의 수준이 향상되어 단체의 위상이 높아지는 점이 있다.

(2) 사례별 단체간 네트워크와 단체 활동의 장점

< 사례 1 : 연극 >

주부들로 구성된 전국 16개 연극단체가 모여 전국 단위의 연합회 조직을 6년 전에 결성하였다. 전국의 여성단체와 지방에 있는 연극협회에 연락하여 주부로 구성된 극단을 찾아내고 연락해서 결성하였다. 처음에는 언론 등에 연극제 홍보를 부탁해도 프로그 아니라고 홍보를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단체가 힘이 생겨서 그런지 조금씩 홍보를 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의 여성 연극단체와 국제교류를 하고 싶다. 전국 연합회가 조직되면서, 문화관광부에 단체 등록을 하였다. 문광부나 여성부가 주최하는 연극 경연제는 단체활동에 도움이 된다.

< 사례 2 : 웹디자인>

단체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강좌 수료 후 책에 먼지가 쌓였을 것이다. 돈이 되든 안되든 동아리를 하니까 책도 다시 보고 공부를 하게 된다. 혼자서는 못한다. 동아리 활동하면서 학습정보를 교환하고, 각자 어느 분야로 갈 것이 지 의견도 나눈다. 기능대학 정보도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고, 서로 격려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서로 떼어주고 해서 과정에 참가하고 자격증도 따고 했다.

< 사례 3 : 공예 >

1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작품평가를 하니까 작품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작품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 공모전에 단체 출전, 전시회 등 자꾸 새로운 일을 꾸미게 되어 일이 커지는 것 같다. 동아리로 활동하니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 사례 4 : 탁구 >

단체활동을 하니 구청장 탁구대회에 나가보자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된다. 우리 구의 다른 동에도 탁구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어느 동네 탁구팀 실력이 좋다는 정보는 알고 있지만, 아직 다른 탁구팀과 시합을 하거나 만난 적은 없다.

< 사례 5 : 시설회보 기획제작 >

수련관 전체 동아리 모임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나니까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다. 그리고 2003년 내년에 우리가 3학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1학년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제는 여러 학교 학생들로 회원이 구성된다. 회보 제작을 하면서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 기술을 배우는데, 수련관 내 컴퓨터 동아리 회원에게 배우고 있다. 이런 작업이 장래 직업 비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을 갖는다.

< 사례 6 : 미용봉사 >

자원봉사를 하러 여러 시설을 방문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자치구 내의 공공시설이나 업무, 봉사단체나 활동자에 대해 잘 알게 된다. 그래서 정당 가입 권유를 받기도 하는데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인간관계 폭이 넓어졌다.

< 사례 7 : 독서지도 >

독서지도 모임을 하는 회원들은 동아리에서 서로의 수업을 위한 정보교환과 수업계획을 짜므로 독서지도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부 회원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고급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다른 회원들이 정보도 얻고 자극을 받기도 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해 준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기에 행정과의 접촉이 넓어졌고, 자치구에서 하는 문화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분야의 활

동을 행정에 알리기 위한 개척활동이 필요하다.

< 사례 8 : 인터넷 창업 >

동아리를 하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적해 준다. 서로 지금 무너지면 안된다고 격려하지만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 사례 9 : 일어학습>

주부들은 어학공부를 할수록 질려버린다. 나이 든 사람은 취미로 공부하기도 하지만, 젊은 층은 공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한다. 단체로 일본에 두 번 여행을 갔는데, 일본 주부들과의 교류방안도 모색하였다. 일본 주부들과 교류하여 일본문화를 접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전문성이 쌓일 것 같다.

< 사례 10 : 서예 >

작품에 대해 서로 격려하고 평가해주니까 계속 할 수 있다.

< 사례 11 : 민요 한국무용 >

1993년 한국무용으로 단체활동을 시작했으나,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기 민요 동아리와 합쳐지면서 단체 이름도 바꾸었다. 그리고 공연 때에는 가야금 동아리와 함께 공연한다. 서울시에서 우리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이다. 다른 단체와 교류를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대인관계가 많아지니까 안목이 넓어진다.

< 사례 12 : 장애여성 자조모임 >

단체활동을 하다보니 정확하게 배워서 상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

이 든다. 단체활동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 회의에서 장애인 단체의 여성회장과 장애인 여성 활동가를 접촉하게 되었다. 장애인의 권리를 씩씩하게 부르짖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나하고는 의식수준이 다름을 느꼈다.

< 사례 13 : 한국무용 >

문화원에 단체등록을 할 만큼 단체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자치구를 대표하는 구립 공연단체로 육성하려고 한다. 회원은 이제 오디션을 해서 선발한다. 앞으로 실력과 공연예절을 더 다듬어야 한다. 자치구 행사, 문화원 행사, 시 행사, 지역 경로잔치 행사에 민요, 풍물 동아리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02년 올해는 중국 연변에 공연 갈 예정이다.

< 사례 14 : 독서회 >

공식적으로 다른 독서회와 연계되어 있지는 않으나, 회원들의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지역의 독서 동아리 소식을 접한다. 다른 단체와 연계하여 도서관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 인터넷으로 접촉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 독서회에서 파생되어 나간 영상으로 시를 접하는 영상 시 모임이 있다. 독서회 활동을 하면서 장르별로 책을 섭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들으면서 책 읽기의 틀이 잡히고, 책 보기의 효과가 크다. 회원들 중에는 등단한 사람도 있고, 책을 낸 사람도 있다.

< 사례 15 : 도배봉사 >

단체로 봉사활동하니깐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다. 1-2명이 일하면 되는 독거노인 도배봉사보다는 회원들이 단체로 하루 종일 함께 도배봉사를 해야 하는 양로원 봉사를 더 좋아한다.

< 사례 16 : 영어학습 >

회원들끼리 그만두지 말자,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활동하자, 하다 보면 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흔들릴 때 용기를 주고 같이 끌어주고 한다. 회원들이 각자 영역에서 열심히 하니 서로 정보교환하면서 도움이 되고 있다. 회원들 중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므로 도서관 직원 과도 자주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진다.

< 사례 17 : 영화감상비평 >

현재 여타 단체와 연계한 경우는 없으나, 서울시에 있는 영화동아리와 연계 하여 서로 정보교류를 하였으면 한다. 단체 워크샵 형태도 좋고....영화가 종합예술이라서 회원들 각자의 전공을 영화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으니 시야 가 넓어진다. 세계사, 음악, 사상사 등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동아리로 활동을 하니 공부하면서 장래 내가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를 성찰하게 되기도 한다. 부산 영화제, 여성 영화제에 단체로 참여하는데, 혼자서는 참여하기 어렵고, 단체니까 지방 영화제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더 열심히 하여 내 공을 쌓은 후 풀어 쓸 수 있었으면 한다.

< 사례 18 : 제빵봉사 >

서로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단체로 활동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빠지지 않게 된다. 서울시에 제과제빵 동아리가 있다면 서로 만나서 정보교환도 하고 연계하여 활동하면 좋을 것이다.

< 사례 19 : 요리급식봉사 >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동사무소의 다른 관변단체회원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고, 매달 자치구 부녀회 모임이 있으니 다른 동네의 부녀회 회원도 만나게 되고, 구청행사에도 참여하고, 공무원들을 많이 알게 된다. 그리고 자

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동네 주민들을 거의 알고 지낸다. 구 단위 체육행사보다는 동 단위 체육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이 서로 더 잘 알고 지내지 않을까 한다.

< 사례 20 : 사진 >

주부들이 시간을 내어서 이 분야 공부를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은데, 동아리 활동이 이를 극복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동아리가 있으니 그나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다. 매달 한번은 사진 촬영, 한번은 작품인화와 평가회를 가진다. 동아리 작품전을 작년에 처음 하였고, 앞으로는 매년 할 예정이므로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다른 단체와 연계하지는 않고 있으나, 사진 작업을 하다보니 사회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진다.

< 사례 21 : 전통예절문화 >

향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강좌에 자주 참여하니까 인간관계의 폭은 넓어진다. 강좌에 참여하면 매번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 지역의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듣기는 한다. 이 분야의 동아리끼리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 사례 22 : 자원봉사 >

봉사 다니면서 어느 복지관에 어떤 봉사활동처가 있는지 등의 정보를 잘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함께 하니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좋다.

3. 시민단체의 여성 소집단 사례조사

1) 소집단 일반 사항

<표 4-23>은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명칭과 결성시기, 회원 수, 회원 구성 등의 일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에 소재한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 대상으로 단체 내에 여성 소집단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9개 단체에서, 47개 여성 소모임 사례가 파악되었다.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소집단은 8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12개 소집단이다. 12개 소집단 중 5개 소집단은 강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이하 녹색 여성모임으로 약칭)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집단이다. ‘녹색여성 모임’은 1995년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주부 6명의 소모임으로 출발하여 2002년 현재 약 1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중 60-70명의 회원들은 단체 내의 관심있는 분야의 소집단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는 여성 소모임으로 출발하여 단체회원이 증가하면서 다시 소집단으로 분화하면서 단체 활성화를 유지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인 여성 소집단 활성화와 관련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이다. 지역사회 여성 소모임이 지역여성단체로 성장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체의 경우, 향후 여성 소집단 및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성화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12개 소집단이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8개로 참교육학부모회, 열린사회시민연합, 마들주민회, 강동·송파환경연합,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서울 YWCA, 동북여성민우회,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이다. 이 중 서울 YWCA, 동북여성민우회,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등의 3개 시민단체는 여타 단체에 비해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1) 명칭

공공문화복지시설의 23개 소집단 중에서 약 절반이 되는 11개 단체가 명칭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에 비해, 시민단체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2개 소집단은 모두 소집단의 명칭을 갖고 있었다. 민요 모임인 <사례 5 지리산>, 20대 청소년 자원봉사 모임인 <사례 10 해울> 등의 2개 소집단을 제외한 10개 단체의 경우, 소집단의 이름을 통해 단

체의 활동목적과 내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중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지역과 관련된 명칭을 가진 단체는 1개 단체로 동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 2 열린 대조 어머니회>가 있다.

(2) 회원 수

12개 소집단 중에서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25명이며, 가장 적은 단체는 6명이다. 소집단 활동자가 10명 미만인 단체는 7개 단체, 회원 수가 10-19명이 되는 경우는 3개 단체, 20-25명은 2개 단체이다<표 4-24 참조>.

<표 4-23>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일반사항

사례 번호	소집단 명칭	결성 시기	회원 수	시민 단체명	회원 구성
1	학교참여모임	1999	9	참교육 학부모회	30대 중반 대졸 전업주부
2	열린 대조 어머니회	2000	20	열린사회 시민연합	30대-40대 대부분 대졸 전업주부
3	땅사랑회	2002	9	마들주민회	30대 전업주부와 가족들
4	하천살리기모임	2000	7	강동·송파 환경연합	40대-50대 대졸, 고졸 전업주부
5	지리산	2001	9	마포두레 생활협동조합	30대-40대 초반의 대졸 취업주부
6	상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2001	7	서울YWCA	30대-40-50대 대졸 전업주부
7	여성학 소모임	2002	7	동북여성 민우회	30대 후반-40대 초반 대졸 전업 및 취업주부
8	NGO는 내 친구	2001	12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30대-40-50-60대 초반의 대졸, 고졸 전업주부
9	이웃상담원	2001	10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40대 전업주부
10	해울	2001	12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20대 대학생 청소년 9명, 청소년 4명
11	녹색마을 꾸미는 주부들의 모임	1999	6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30-40대 대졸, 대재 대부분 전업주부, 미혼여성
12	동화사랑방	1998	25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	30-40대 고졸 이상의 대부분 전업주부

<표 4-24>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회원 수

회원수	사례수	비고
10명 미만	6	사례 1, 3, 4, 5, 6, 7, 11
10-19명	4	사례 8, 9, 10
20-25명	2	사례 2, 12

(3) 결성시기

소집단이 결성되어 활동한 시기를 보면, 1998년에 활동을 시작한 단체가 1개 <사례 12>이며, 1999년에 결성된 단체가 2개<사례 1, 11>, 2000년에 2개 단체<사례 2, 4>가 결성되었다. 5개 단체<사례 5, 6, 8, 9, 10>는 2001년에 결성되었고, 2002년에 2개 단체 <사례 3, 7>가 활동을 시작하였다<표 4-25 참조>.

<표 4-25>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결성 시기

소집단 결성시기	사례수(단체)	피면담자 활동시기	사례수(명)
1998년	1		
1999년	2	1999년	1
2000년	2	2000년	3
2001년	5	2001년	6
2002년	2	2002년	2

(4) 피면담자 사항

피면담자 전부가 소집단에서 회장이나 총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원이다. 연령은 20대가 1명, 30대가 6명, 40대 초반이 4명, 50대가 1명이다. 학력은 대졸(중퇴 포함)이 7명이며, 20대 청소년을 포함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가 3명, 고졸이 2명이다<표 4-26, 4-27 참조>.

<표 4-26>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피면담자 연령

연령	사례수(명)	비고
20대	1	사례 10
30대	6	사례 1, 2, 3, 5, 7, 12
40대 이상	5	사례 4, 6, 8, 9,11

<표 4-27>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 피면담자 사항

면담 번호	연령	참여 연도	학력	소집단내 역할	거주지	거주 가족
1	37	1999	대졸	회장	노원구	유치원생 1, 초등학생 자녀 1, 남편
2	37	2000	대졸	회장	은평구	유아 1, 유치원생 1, 초등학생 자녀 1, 남편
3	38	2002	검정고시	반장	노원구	유치원생 1, 초등학생 자녀 1, 남편
4	47	2000	대중퇴	회장	송파구	대학생 자녀 2, 남편
5	34	2001	대졸	총무	서대문구	유치원생 자녀 1, 남편
6	41	2001	대졸	회장	마포구	초등학생 자녀 2, 남편
7	34	2002	대졸	회장	도봉구	유치원생 자녀 2, 남편
8	44	2001	대졸	팀장	도봉구	고등학생 2명, 초등학생 1명, 남편
9	40	2001	대재	회장	강북구	중학생 1명, 초등학생 2명, 남편
10	20	2001	대재	기획	노원구	부모, 동생 1명
11	40	2001	대졸	총무	노원구	초등학생 1명, 유치원생 1명, 남편
12	35	2000	대재	총무	동대문구	어머니, 동생

2) 소집단 결성 동기와 과정

(1) 시민단체 활동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소집단이 활동하고 있는 8개 시민단체의 상근 실무자 면담조사에 의하면, 시민단체

의 활동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단체회원들의 소집단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회원간에 친밀한 상호작용을 통한 유대감과 결속력이 단체 전체 차원에서 형성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회원들의 단체활동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회원들 스스로 관심있는 분야의 활동을 위해 소집단을 결성하고 있다. 시민단체 상근 실무자들은 단체활동과 운영 활성화란 차원에서 단체 내 소집단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회원들간 연대감과 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별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단체내 소집단 활동을 하고 있다<표 4-28 참조>.

시민단체 상근 실무자의 다음 이야기는 시민단체 내 소집단 형성의 과정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 지부단체가 이 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하기 시작한지 10년이 되었고, 2002년 현재 적극적으로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정회원 130명을 포함하여 일반회원 수는 약 1,000명이 된다. 이 지역에서 단체가 활동을 한지 10년이 되고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활동 내용이 다양한 소모임들이 형성되고 있다.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의 하나가 소모임 활동이다. 소모임 활동이 시민단체 활동을 탄탄하게 다져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소모임이 조금 더 완성된 단계로 들어가면서 위원회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원회에는 결속력이 강하고 전문성 있는 숙련된 회원들이 활동하게 된다. 단체 차원에서 소모임을 장려하기도 하지만, 회원들 중 적극 활동자가 주도가 되어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결성하게 된다. 소모임 수가 많은 지부단체의 경우 소모임 짝이 한 명 선출되어, 단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고, 소모임 수가 적은 경우에는 소모임 장들이 운영위원을 통해 직접 활동보고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우리 단체가 활동하기 시작한지 8년째 접어들고 있다. 초기에는 회원들이 해야 할 일을 서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단체활동을 하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회원이 늘어나 단체가 성장하면서 동아리 중심으로 단체활동의 조직구성이 바뀌었다. 즉 각 소집단마다 회장이 있고 팀 별 활동을 하

고 있어, 단체의 운영 조직구조가 동아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단체운영방식이 동아리 구조로 되니, 팀간에 배타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전체 단체 차원에서 동아리활동이 여여지도록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저소득층 여성 교육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여성학교를 약 10년 정도 운영한 단체에서 주민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요구를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소모임 활동이 시작되었다. 소모임 활동은 거의 자발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상근 실무자가 월 해 보는게 어떨겠느냐 정도의 자문 정도는 해주기는 하나, 활동은 소모임 회장과 회원들이 알아서 하고 있다. 소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년 정도인데 회원들의 결속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다. 소모임은 각자 관심있고 하고 싶은 부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잘 꾸려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소모임이 앞으로 지역내 자치조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단체는 단체의 방침으로 일정한 목적사업을 영두에 두고 소집단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 회원들이 단체활동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주제를 갖고서 소모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차원에서 소집단 활동을 할 사람들을 모아서 활동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이고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니까 단체가 사업만 하지 말고, 회원들의 작은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가까이서 필요에 의해 만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단체 사업도 동시에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저런 소모임을 만들었다”.

“어떤 소모임을 하고 싶다는 회원이 있으면, 그리고 강사 중에서 소모임을 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으면 단체에서 공고를 해주거나 소식지에 내주어 처음 약속을 잡아주기도 한다. 소모임 자체가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 단체는 소모임 활동 위주로 조합원 모임이 이루어진다”.

시민단체 내 12개 여성 소집단 사례를 통해 시민단체 내에서 여성 소집단이 결성되는 과정을 다음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시민단체 상근 실무자나 단체의 방침에 의해 단체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소집단을 결성하는 것이다. <사례 1, 4, 6, 7, 12>가 이에 해당되는데, 단체마다 결성과정에 다음의 차이가 있다. <사례 1>의 경우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회원들로 소집단이 결성된 반면, <사례 4>는 자원봉사센터와 시민단체가 연계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회원 모집과 교육을 통해 소집단을 결성해주면, 시민단체가 소집단 활동을 지원해주고 소집단 회원이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사례 6>의 경우 단체가 외부의 다른 기관(대학교)에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원들을 모집한다는 의뢰를 하고, 이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로 소집단을 결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례 7>은 단체에서 대중강좌를 개설하고, 강좌 참여자를 대상으로 여성학 소모임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례 12>는 단체가 지역의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소집단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고 활동을 지원해주면서 단체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단체 활동을 한 회원들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소집단이 결성되는 것이다. <사례 3, 5, 8, 9, 10, 11>가 이에 해당된다. 단체마다 결성과정의 차이를 보면, <사례 3>은 여성학교 회원과 교사들이 자녀문제와 같은 일상사를 이야기하다가 소집단 결성과 활동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소집단 활동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사례 5>는 공동육아조합을 통해 회원 가족들이 장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가족 야유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래 모임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노래모임을 만들게 된다.

<사례 8>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단체 활동을 해온 여성 회원들이 단체의 의사결정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겠다는 욕구에서 학습 소집단을 결성하였다.

<사례 9, 11>은 단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화된 소집단을 결성한 것이다. <사례 10>은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소집단에서 활동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후속 모임으로 청년 소모임을 새로 결성하였다.

세 번째는 소집단이 먼저 결성되면서,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 소집단이 시민단체와 연계활동을 하면서, 소집단 회원이 시민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자녀를 같은 학교, 학급에 보내는 어머니회에서 출발한 소집단이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일하는 <사례 2>가 이에 속한다.

<표 4-28>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결성 과정

결성과정	사례수	비고
시민단체가 계획적으로 결성에 관여	4	사례 1, 6, 7, 12
시민단체회원들 간의 친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성	2	사례 3, 5
시민단체 회원들이 활동 전문성과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발적으로 결성	3	사례 8, 9, 11
소집단을 먼저 결성하고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	1	사례 2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시민단체가 연계하여 결성 주도	1	사례 4
중·고등학생 소집단 활동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자발적으로 청년 모임 결성	1	사례 10

(2) 사례별 소집단 결성동기와 과정

<사례 1 : 학교참여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1989년에 창립된, 전국 단위로 결성되어 있는 시민단체로 학부모들의 학교참여활동 지원, 건강한 학부모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서울에는 강남지부와 동북부지부, 성북강북지부가 있다. 학교참여모임은 동북부지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소집단으로 1999년에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학교참여모임을 결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단체의 상근직은 아니나 봉사자라 할 수 있었던 이전의 지부장이었는데, 단체 본부의 교육자치지원국이 주도가 되어서 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북부 지부에는 독서모임, 문화사랑모임, 학교참여모임 등의 소집단이 있는데, 각 지부마다 지부 특성에 따라 소모임을 만들 수 있다.

<사례 2 : 열린 대조 어머니회>

1998년에 창립된 ‘열린사회시민연합’은 80년대 중반 활약한 민주운동단체들이 연합하여 시민운동단체로 전환된 단체이다. ‘열린대조어머니회’는 처음부터 열린사회시민연합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었다. 열린대조어머니회가 별도로 결성되고 나서, 시민단체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면서 열린사회시민연합은평구부와 함께 단체활동을 하게 되었다. 열린대조어머니회는 자녀들이 같은 학교 학급에 다니는 학급 어머니회에서 엄마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의견을 모아 2000년에 결성된 단체이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긴다는 정보를 듣고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엄마들 몇 명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냥 대충하면 신뢰성이 없으니깐 이름을 만들어서 활동하자고 해서 엄마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열린대조어머니회를 결성하였다. 구체적인 활동은 2001년도부터 시작하였다. 단체 결성의 동기는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엄마들의 생각이 일치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은평구에 도서관이 없었다.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혀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책을 다 구입해 줄 수도 없고, 좋은 책이라는 기준도 애매하고 알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므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고, 주민자치센터가 생긴다는데, 거기에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개설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엄마들이 서명하여서 서명을 들고 동장님을 찾아갔다.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어린이 도서관 설치 건의에 대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였다.

어머니회라고는 하나 반 어머니회가 도서관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 뭘 믿고 운영을 맡기겠냐고 해서, 그러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열린사회시민연합과 연계하여 우리 어머니회를 지원하고 신원을 보증해 주는 차원에서 함께 일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어머니회 회원 중에서 한명이 열린사회시민연합 회원이었고, 회원인 엄마가 열린사회시민연합을 어머니회에 소개하고, 엄마들이 열린사회시민연합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그 당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열린사회시민연합도 단체 차원에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려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회에게 지부형식으로 열심히 같이 해보자고 하였다. 그리고 열린사회시민연합을 통해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나는 일 등 도서관 구성과정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 대조어머니회와 연계하기 전에 열린사회시민연합은 은평구 갈현동의 갈곡리 삶터 가꾸기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다.

<사례 3 : 땅사랑>

상계 4동 지역의 저소득층 여성 교육을 위해 설립된 상계어머니 학교가 10년의 활동을 토대로 2000년에 ‘마들주민회’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2002년 5월 현재 마들주민회에는 풍물소모임, 영어동화소모임, 땅사랑회, 맛기행 등의 4개 소집단이 있다. 피면담자에 의하면, 2001년 2월 마들주민회 여성학교에 피면담자가 공부하러 왔을 당시에는 이런 소집단 활동이 없었다고 한다. 여성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엄마들이 생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의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화가 유기농으로 텃밭을 직접 가꾸자는 의견으로까지 진행되었다. 엄마들과 여성학교 선생님들이랑 상의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밭 60여평을 공동구입하여 2002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례 4 : 하천살리기>

1998년에 창립된 ‘강동·송파환경연합’은 ‘서울환경연합’의 지역조직이다. 2002년 5월 현재 강동·송파환경연합에는 하천살리기 팀과 생태보존모임 등의 2개 소집단이 활동하고 있다. 2개의 소집단은 송파구자원봉사센터의 송파자원봉사학교의 수료생 중에서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회원이 구성되었다. 송파자원봉사학교 1기생인 40명 중에서 8명의 주부들로 하천살리기 팀을 결성하였다. 하천살리기팀은 송파자원봉사센터와 강동·송파환경연합이 제휴하여 만들어진 단체라고 할 것이다. 자원봉사센터가 회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팀 결성을 유도하여 소집단이 결성되면, 이후 강동·송파환경연합이 소집단 활동을 지원지도해 주는 방식이다.

<사례 5 : 지리산 >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은 2001년 2월에 정식으로 출범했으나, 이 단체는 1994년에 시작된 공동육아조합 활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공동육아 어린이 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성장하여 공동 육아 어린이집을 졸업하게 되면, 부모들도 자연히 공동육아조합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부모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만나 활동하자는 취지에서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을 결성하였

다. 2002년 5월 현재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에는 두레산악회, 택견동우회, 농사사랑모임, 지리산, 살판, 부모역할공부모임 등의 6개 소집단이 활동하고 있다. 공동육아조합 회원과 생협 회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2001년 7월 지리산에 함께 놀러갔을 때 노래 부르면서 노래모임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후 2001년 9월에 노래모임이 처음으로 모이게 됐다. 원래는 좋은 노래를 찾아서 부르는 노래모임이었는데, 그 중에서 민요를 배우자 해서 요즘은 선생님을 초빙해서 민요를 배우고 있다.

<사례 6 : 상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이대 평생교육원 카운셀러 2년 과정을 듣고 있는 마지막 학기에 교육생들이 실습의 필요성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YWCA에서 가정상담실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이대에 의뢰하였다. 졸업을 앞둔 같은 기수의 교육생들이 전부 실습을 겸해서 YWCA 가정상담실로 왔는데, 이것이 2001년 4월 상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발전하였고, 이를 계기로 2기 회원도 이대에서 오게 되었다. 2002년 5월 현재 YWCA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소모임은 고추냉이(여성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이버를 만들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 상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성합창단, 동그라미(장애아동 보육시설 자원봉사), 정역회(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정역화 봉사활동), 문맥회(여성 창작활동), 코스모스(여성들의 문화체험활동), 산악회, 학원폭력신고전화상담실, 사이버 감시단 등의 10개 소집단이 있다.

<사례 7 : 여성학 소모임>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에 결성된 여성운동단체이다. 1992년 서울에 동북여성민우회가 지부로 설립되었다. 동북여성민우회에서 2002년 초 올해에 10주년 기념대중강좌를 열었고, 강좌가 끝난 후 여성학 소모임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모이자고 공고를 하였고, 이 모임은 이 공고를 듣고 모인 6명으로 결성되었다.

<사례 8 : NGO는 내친구 >

'녹색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에는 2002년 7월 현재 NGO는 내친구, 이웃 상담원, 해울, 동화 사랑방, 주부 환경극단, 청소년 나누리,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등의 7개 소모임 활동이 있다. 이 중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현재 소모임 활동을 쉬고 있다. 녹색여성모임은 강북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 6명의 모임으로 출발하여 1995년에 결성된 지역사회 여성단체이다. 이 단체의 결성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은 1991년부터 1994년 말까지 당시 구로구(현재 금천구)에서 활동하고 있던 지역여성단체 '살기좋은 구로구 만들기 여성회' (이하 살구여성회)에서 사무국장과 부회장으로 있었던 J씨이다. J씨는 1994년 10월 구로구에서 강북구(당시는 도봉구)로 이사를 하였고,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주부들과 차 모임을 가지면서 자녀 교육,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의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취지에서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 모임의 출발이 되었던 6명의 주부들이 주변의 여성들을 끌어모았고, 1995년 4월에 27명의 여성 창립회원으로 단체가 결성되었다. 단체의 사무실은 회원 한사람이 자신의 소유 건물에 2평 공간을 제공해주어 해결되었다.

'녹색여성 모임'에 'NGO는 내친구'라는 소집단 활동이 시작된 것은 2001년 3월이다. '녹색여성 모임'에서 몇 여 년 간 단체활동을 한 회원들은 단체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에 관한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회원들 중 우리가 시민사회단체라고 하는데 한번쯤 NGO에 대해 공부를 해봐야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회원들이 동의하여 NGO를 공부하는 소집단 활동이 시작되었다.

<사례 9 : 이웃상담원>

'녹색여성모임'에서 숙제방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이 아이들의 문제가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가정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2001년부터 이웃상담원 소모임을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사례 10 : 해울>

‘녹색여성모임’에 중고생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나누리’가 있다. 누리 회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졸업생 중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 회원들 7명이 2001년에 해울이란 소집단을 따로 만들었다.

<사례 11 : 환경연극>

‘녹색여성모임’에서 녹색가게 운영과 환경운동을 하던 회원들이 어린이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운동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극으로 어린이 환경교육을 하는 환경연극팀을 1999년에 결성하였다.

<사례 12 : 동화 사랑방>

자녀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30대의 회원들이 자녀에게 좋은 책을 읽히자라는 취지에서 1998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3) 소집단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과 시민단체의 역할

(1) 장소 및 정보 제공

시민단체나 공공에서 소집단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는 활동에 필요한 공간 제공, 강좌 개설과 강사 소개, 활동비 지원, 활동 정보 제공, 활동 자문 등이 있다. 텃밭 가꾸기 모임인 <사례 3>을 제외한 11개 소집단은 시민단체에서 활동에 필요한 장소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표 4-29 참조>.

<사례 2>의 경우 자치구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을 개설해주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직접 자원봉사 형식으로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매달 2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행정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사례 12>의 경우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집단의 사업을 위해 주민자치센터가 장소제공 지원을 하였다.

<사례 4, 6, 7, 11>의 경우 시민단체가 소집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 강좌 개설, 강사

소개 지원을 하였다. <사례 11>의 경우 자치구가 연극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교섭하고 구민회관에서 연극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사례 9, 10>은 시민단체가 소집단 활동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며, <사례 5>는 초등학교가 장소 제공, 사업홍보를 지원해주고 있다.

<표 4-29>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이 받고 있는 지원의 유형

지원유형	사례수	비고
활동 공간 제공	11	사례 1, 2, 4, 5, 6, 7, 8, 9, 10, 11, 12
강좌 개설과 강사 소개	4	사례 4, 6, 7, 11
활동비 지원	1	사례 2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 제공	4	사례 2, 9, 10, 11

(2) 공무원의 대응방식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주민조직 활동에 대해 자치구마다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단체활동의 장소나 비품 제공에 적극적 지원을 하고, 주민단체를 끌어들이려 사업을 하려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없거나 장소지원 등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치구가 있다.

여성 소집단이 지역활동을 하는데 공공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 2, 9, 11, 12>의 경우, 동사무소나 자치구의 지원이 여성의 단체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공공의 지원은 지역 아동의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던 여성들이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공무원과 접촉하게 되면서, 공무원들이 초기에 보여준 냉소적, 무관심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거리감을 오히려 극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사례별 소집단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과 시민단체의 역할

<사례 1 : 학교참여모임>

우리 소모임은 구청과 함께 하는 사업은 없으나, 지부 단체 차원에서는 환경이나 지역문제에 참여하고 있다. 소집단 활동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다. 회원들의 가장 큰 욕구는 연수도 하고 싶고, 세미나 같은 것도 개최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사례 2 : 열린 대조 어머니회>

주민자치센터에 우리 모임이 원했던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섰다.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엄마들이 20명 모였다.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구청에서 1000권 정도의 책을 구입해 주었고, 이후 동사무소에서 500권 정도를 해주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 지부단체의 회원들에게 좋은 조언을 듣고 있다. 소집단 활동과 관련해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것은 없고,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식대로 한 달에 이십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 지원비로 한 달에 한번 전체 봉사자 모임 때 밥을 먹기도 하지만, 그 비용은 얼마 안 들고, 발표회나 축제같은 행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2002년 올해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날이 있으니 5월 18일에 어린이 발표회 축제를 우리 모임에서 하였는데, 선거에 걸려서 동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회원들만으로 프로그램 운영, 신청자 모집, 섭외 등을 전부하였다.

공무원들과 일하다 보면 뭐 하나 결정해서 집행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행정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그런지, 원래 공무원 스타일이 그런건지.. 구나 동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 나와서 이것이 결정되고 집행되는데 장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지친다. 한 예로 도서관 책상이 아이들에게는 높아서 길이를 낮추어달라고 했는데 계속 꼭 그래야되느냐고 하면서 5개월이 지나서도 안되고 있다. 처음에는 엄마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꼭 해야되는거냐, 꼭 할 수 있겠느냐, 하긴 될하겠느냐 등의 태도로 대했다. 도서관 운영이 잘 굴러가게 되면서 지금은 태도들이 많이 변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긍정적으로 유도해주는 점에서는 부족한 것 같다.

<사례 3 : 땅사랑회>

소집단 활동과 관련해 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없고 소집단 내에서 다 해결한다.

<사례 4 : 하천살리기 모임>

환경 이론 공부할 때 단체에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무료 강좌를 열어준다.

<사례 5 : 지리산>

소집단 활동과 관련해서보다는 단체 전체 차원에서 동네 축제를 하는 경우, 구청에 장소 제공이나 비품 지원을 요청해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교류가 활발한 성동구에서 비품을 빌려오기도 한다. 지난해부터 우리 동네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지역 주민활동에 비교적 호의적이어서 행사를 위해 학교 운동장을 빌려주기도 하고, 마을학교를 한다고 하면 학교 통신에도 내주시고 도와주신다.

<사례 6 : 상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단체 차원에서는 상담실 장소 제공을 해주고, 소집단 회원이 재교육이 필요하다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열어주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요구를 하면 지원해준다. 상담실 운영은 우리가 직접 한다.

<사례 7 : 여성학 소모임>

단체에서 소모임 활동을 위해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강사를 처음 모시고 싶을 때 자원봉사 강사 섭외를 단체에서 해주었다.

<사례 8 : NGO는 내친구>

단체에서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해준다.

<사례 9 : 이웃상담원>

단체에서 활동에 대해 총체적으로 자문해 준다. 소집단은 그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면서 독립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기도 한다.

<사례 10 : 해울>

우리 소집단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거나, 사업 진행 중에 문제가 생기면 단체 차원에서 자문위원 형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사례 11 : 환경연극>

구청에서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교섭해서 연극공연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분리수거 문제나 쓰레기 줄이기 등의 환경관련 내용으로 연극을 하였는데 효과가 크다고 구청에서 요청하였다. 단체에서 연극 강사 지원을 해주는데, 비용 때문에 자주 연기지도를 받지는 못한다. 관공서랑 연결되어 단체활동을 하게 되면서 공무원들과 접촉하고, 안면이 생기면서 관공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관공서에 대한 위압적인 느낌, 막연히 느끼는 분노와 짜증이 없어졌다. 관공서도 많이 변했고, 우리도 관공서를 편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사례 12 : 동화 사랑방>

단체 차원에서 장소 제공을 해주고 소모임 활동에 대한 홍보와 회원모집 홍보를 해준다. 동사무소에서 책잔치를 하였고, 작년에는 방학기간에 개설한 열린학교를 동사무소에서 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고맙게도 아이들 간식과

점심까지도 해주었다. 동직원들에게도 참 감사했었다. 올해는 동사무소가 다른 일정을 잡아놓아서 빌리지를 못하였다.

4) 소집단 운영방식

(1) 조직 구성

시민단체 소집단에서는 활동과 관련해 회장, 총무 등의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회원이 많은 <사례 2>의 경우 대표, 총무 2명, 운영위원회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년 소모임<사례 10>의 경우 회원들 전부가 회장과 총무, 서기, 연락 등과 같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맡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으로 내는 회비 외에 소집단 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경우는 4개 모임<사례 5, 10, 11, 12>이며, 나머지 8개 소집단은 필요에 따라 경비를 걷고 있다. <사례5>는 민요를 배우므로 강사료 3만원을 매달 내고, 3개 모임은 각각 2000원, 3000원, 10,000원을 매달 회비로 내고 있다.

(2) 회원 가입과 탈퇴

소집단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일정 기준이 있는 경우는 2개 소집단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하는 <사례 1>과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상담을 공부하여야 하는 <사례 6>이 있다. 시민단체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소집단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7개 소모임이다<사례 2, 5, 6, 7, 9, 11, 12>.

소집단 활동을 하는 사람이 시민단체 회원이 되어야하는 경우는 <사례 3>이며, 시민단체 회원이 아니면서 소집단 활동을 하는 회원들은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민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집단 회원을 매년 기별로 모집하는 경우는 5개 모임<사례 2, 4, 6, 9, 12>이며, 이 중 3개 모임의 경우 기별 활동자를 충원했으나, 하천살리기 모임 <사례 4>의 경우 2기 활동자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으나, 초기 활동자가 변동없이 전원 활동하고 있다<표 4-30 참조>.

<표 4-30>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회원모집

회원모집	사례수	비고
회원가입 요건이 있음	2	사례 1, 6
일반 대상으로 회원 모집	7	사례 2, 5, 6, 7, 9, 11, 12
소집단 회원은 시민단체 회원으로 가입 필수	1	사례 8, 9, 11
소집단을 먼저 결성하고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	1	사례 3
매년 기별로 회원 모집	5	사례 2, 4, 6, 9, 12

기별 모집으로 인원이 늘어난 3개 모임을 제외하고 소집단 결성 초기보다 활동자가 증가한 경우는 4개 모임으로 <사례 2, 5, 8, 10>이다. 초기 회원에 변동이 없고 신규회원 가입도 없는 경우는 2개 소집단<사례 2, 4>이다. 12개 소집단 중에서 결성 초기보다 회원수가 줄어든 모임은 없다. 5개 모임<사례 1, 3, 4, 7, 11>은 결성초기와 비슷한 회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7개 모임은 결성초기에 비해 회원수가 증가하였다.

(3) 사례별 소집단 운영방식

<사례 1 : 학교참여모임>

회원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학부모들이 참가하고 있다. 동북부 지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9-11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위원들이 학교참여모임에서 활동하는데, 현재 회원은 9명이며 적극적 참여자는 5명이다. 조직 구성은 소모임 장이 있고 소모임 장이 연락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난 회원은 소모임을 그만두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니 최장 임기가 4년이 된다. 따라서 4년이 되면 소집단 활동자도 교체가 많이 된다. 소집단을 처음 결성할 당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임기와 상관없이 소모임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끝내면 소모임 활동도 그만두게 된다. 회원 9명 중 4명은 소모임 창단 멤버이다. 신규회원은 단체 소식지나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단체 차원의 회비로 한 달에 만원을 내고, 소모임 회비로 따로 내는 것은 없다.

<사례 2 : 열린 대조 어머니회>

회원은 20명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은 10명이다. 대표 1명, 총무 2명, 운영위원회 5명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초기 회원 6명 중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2명이며, 4명은 이사를 갔다. 회원은 학교의 어머니회 활동을 통해 가입하거나, 도서관에 책 빌리러 왔다가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소집단 활동에 필요한 회비를 따로 걷지는 않고, 동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식대로 한달에 2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이것을 단체 운영비로 사용한다. 도서회원들은 약 600명이 된다. 전체 회원은 한달에 한번 모임을 갖고 운영위원회는 2주에 한번 모임을 갖는다.

<사례 3 : 땅사랑회>

여성 회원은 9명이나 아이와 남편을 포함한 가족 단위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반장이 있고 반장이 총무 역할도 하며, 농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을 작업반장으로 하고 있다. 회원은 초기 회원 9명이 그대로 활동하고 있다. 회원이 많으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10명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나가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신규 회원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기존의 회원들이 친하다보니 새로 들어올려야 하는 사람이 불편해하고 합류하지 못하였다. 땅 계약 기간이 1년인데, 그 이후로도 계속 소집단 활동을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되었다. 만약 1년 계약기간 이후에 계속 이 모임을 하게 된다면, 그 때 새 회원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는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 마들주민회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회원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으나, 우리 소모임은 마들주민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 회원가입을 하여 매달 마들주민회에 회비 5,000원을 낸다. 땅사랑회에서는 처음 텃밭 살 때 필요한 40만원을 분배해서 6만원을 내었고, 씨앗값으로 2만원 내었고, 필요에 따라 경비를 그때 그때마다 걷는다.

<사례 4 : 하천살리기 모임>

초기 회원 8명이 현재 그대로 전부 활동하고 있다. 회장과 총무, 회원 체제로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 신규회원은 자원봉사학교 수료 후 수강생들이 선

택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새로운 회원 2기를 모집하기 위해 자원봉사학교 수료생 주부들을 데리고 하천에 가서 우리 활동을 보여주었는데, 가입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주부들이 처음에는 하천살리기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같이 하천에 활동하러 왔는데, 우리 회원들이 장화를 신고 하천에 들어가서 생태계 살펴보고, 공장 폐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더니 반응이 없었다. 이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았다.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싶은데 들어오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는 없고, 현장에 나가는 차비는 회원 각자가 부담하고, 필요한 경우마다 회비를 걸어서 사용한다.

<사례 5 : 지리산>

초기회원은 5명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회원은 9명이며, 이 중 4명은 초기 회원이다. 회장과 총무가 있다. 강사료로 한달에 삼만원씩 회비로 낸다. 회원은 단체 홈페이지나 지역에 있는 어린이 집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모집한다. 이번 마을 축제 행사에 우리 모임이 장기 자량을 하였는데, 그걸 보고 다음 달부터 회원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몇 명 있다.

<사례 6 : 상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처음 활동을 시작한 14명 중에서 7명이 남았고, 일년 단위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다. 올해 2기도 14명을 모집하여 6주간의 교육을 받게 하고 수료증을 준다. 회장, 부회장, 총무겸 서기, 회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활동을 지도해 줄 전임 상담자문이 필요해서 구하고 있다. 현재는 임시로 한달에 한번 상담자문을 받고 있다. 가정상담은 심각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힘들어서 다른 분야 상담을 하겠다고 나가는 회원도 있고, 더 공부하겠다고 대학원 진학을 한 회원도 있고 해서 7명이 나갔다. 신규회원은 Y에서 방송광고도 해 주고, 대학교에 의뢰도 하고 해서 모집해 준다. 소모임 활동을 위해 매달 고정적으로 내는 회비는 없고, 월례회에 빠지면 벌금을 물리고, 필요에 따라 회비를 걸어서 한다. 소모임 활동자들은 원래 Y 회원이 아니었으나 몇 개월 활동하면서 모두 Y 회원이 되었다. 회원이 되면 회비 내고 시설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기니까.

<사례 7 : 여성학 소모임>

회원은 7명인데, 수평적인 관계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나 리더가 필요하고 연락할 사람도 필요해서 회장과 총무가 있다. 원래 소모임 활동은 단체 회원 중심으로 하는데, 회원이 아닌 강좌 참여자도 우리 모임에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 놓았다. 단체 회원이 아닌 소모임 활동자 중에서 활동하다가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한다. 현재 정기적으로 걷는 회비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걷는다.

<사례 8 : NGO는 내친구>

처음 시작한 회원은 7명이었는데 초기 회원 7명을 포함하여 현재 1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소집단 활동자의 대부분은 녹색여성모임의 운영위원들이다. 소집단 활동자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나, 운영위원들은 의무사항 비슷하게 반드시 참석하라고 권유한다. 운영위원은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모임이 일종의 단체 지도자 양성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집단 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내는 회비는 없고, 소집단 팀장이 있다.

<사례 9 : 이웃 상담원>

1기와 2기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기는 10명이며, 2기 15명이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아마 1년 지나면 10명 정도가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은 프랭카드를 걸고 전단지를 집집마다 돌리고, 벽보도 붙이고 해서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우리 모임은 회장과 총무가 있다. 말로만 회장이지 회장은 회의시간을 잡는 정도에서 활동하고, 모든 결정은 전부 회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해서 이루어진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반성하고 함께 결정하니깐 독단도 없고 후회도 없어 좋다. 1년에 삼만원씩 단체 회비는 내지만, 동아리 활동 회비로 따로 내는 것은 없다.

<사례 10 : 해울>

시작 회원은 7명이었는데 현재 13명으로 여자 9명, 남자 4명이다. 회원 모두 하나씩 역할을 갖고 있다. 회장, 총무, 서기, 인터넷, 연락 담당 등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누구나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나누리 회원 중 졸업생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홍보를 해서 신규 회원을 받을 만큼, 아직 우리 모임이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 소모임 활동을 위해 한달에 2천원 회비를 걷는다.

<사례 11 : 환경연극>

회원이 6명인데 팀장과 총무가 있다. 총무는 회비관리와 연락 책임을 맡고 있고, 팀장은 연기연습할 때 자료를 받아오거나 연기지도자를 모셔오는 일을 한다.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해 학교나 가정에 전단지도 돌리고, 강북구 소식지에도 냈는데 의외로 연극을 하겠다는 참가자들이 없는 편이다. 한달에 삼천원씩 회비를 내서 그 돈으로 한번씩 연극을 보러간다.

<사례 12 : 동화사랑방>

현재 3기 회원까지 2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으며 초기 회원은 5명이다. 회장과 기수별 총무, 서기가 있고, 교육부, 홍보부, 간식담당으로 부서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책 잔치 같은 행사를 하면서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어린이 책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소모임 활동을 위해 한달에 만원씩 회비를 걷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 회지를 만들고 남은 저축을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한다.

5) 지역성과 다양성

(1) 지역성

회원 거주지를 통해 단체의 지역성 여부를 보면 <사례 6>을 제외하고는, 11개 소집단의 회원들이 같은 동이나 자치구, 인접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다. <사례 6>의 경우

대학 평생교육원 동기들로 소모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회원들의 거주지가 다양하며, 소모임의 활동영역도 지역사회가 아닌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회원들이 대부분 같은 동네에 사는 경우는 3개 모임으로 <사례 2, 3, 5>이다. <사례 2>는 초등학교 어머니회를 계기로 소집단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회원들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며, 소집단의 활동영역도 동이 중심이 되고, 더 넓게는 은평구가 된다. <사례 5>는 공동육아 모임에서 파생된 소집단이므로 회원들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나머지 8개 소집단은 회원들 대부분이 같은 자치구나 인접 자치구에 살고 있다<표 4-31 참조>.

<표 4-31>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 회원의 거주지 분포

거주지역	사례수	비고
같은 동네	3	사례 2, 3, 5
같은 자치구나 인접 자치구	8	사례 1, 4, 7, 8, 9, 10, 11, 12
서울 전역	1	사례 6

(2) 다양성

12개 소집단 중에서 2개<사례 3, 5> 모임은 가족이 함께 활동하는 모임이다. 회원 연령층은 대부분 대졸의 30대 전업주부로 연령이나 학력수준에서 비교적 동질한 집단을 이루고 있다. <사례 3>을 제외하고는 회원들 간 계층에 대해서도 동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거의 중산층으로 평가하고 있다.

(3) 사례별 지역성과 다양성

<사례 1 : 학교참여모임>

소모임은 동북부 지부단체 회원들이 활동을 하므로 회원의 절반은 도봉구에 살고, 절반은 노원구에 살고 있다. 소집단 회원 연령대는 30대 중반 전업주

부이며, 전부 대졸이며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2 : 열린 대조 어머니회>

초등학교 어머니회에서 시작된 모임이니까, 대부분 같은 동네 거주하며, 은평구 주민들이 가입한다. 회원은 30-40대 전업주부이다. 회원은 대부분 대졸이며 아주 잘사는 사람은 없으나 경제적으로 주부가 직업전선에서 뛰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회원들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더라.

<사례 3 : 땅사랑회>

회원들은 모두 노원구에 거주하며, 대부분 같은 동네 산다. 여성 회원은 30대로 5명은 전업주부이고 4명은 교사이다. 회원 학력은 대졸, 고졸이다. 자기 집은 다 가지고 있는데, 회원 계층은 개별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남편 직업이 개인택시하는 회원도 있고, 미국가서 공부하신 분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엄마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 정도는 아니고 남편이 벌어드주는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다.

<사례 4 : 하천살리기 모임>

회원들은 전부 송파구에 살고 있으며, 회원은 전업주부로 대부분 40대이며, 50대도 있다. 회원학력은 대졸과 고졸이다.

<사례 5 : 지리산>

회원들은 마포구 성산동과 서교동에 거주하며, 1명은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회원들과 같은 동네 사람으로 살고 싶어 마포구로 이사할 예정에 있다. 회원은 1명만 전업주부이고 전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이다. 연령은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으로 회원 학력은 전부 대졸이며, 계층은 중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례 6 : 상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함께 공부한 사람들이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원들 거주지는 강남, 강북, 용인, 분당으로 다양하고, 영주에 살고 계신 회원도 있었다. 거주지가 영주인 회원도 1년은 열심히 활동하였는데, 건강도 안 좋아지고, 서울에 매주 올라올 꺼리도 없어지고 해서 매주 상담활동하러 서울 오는 것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당분간 쉬고 있다. 회원 연령은 30대에서 50대로 다양하다. 초기에는 미혼인 여성이 많았는데, 미혼인 경우 가정상담을 하기 힘들어서 나갔다. 회원들이 주부이기는 하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남편 사업을 돕거나, 대리점 운영, 목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경제활동을 안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사업이 바빠서 그만 둔 회원도 있다. 회원들은 상담을 하기 때문인지 전부 대졸자이다. 평생교육원 2년 과정에 한 학기 등록비가 50만원이었는데, 회원들은 자기 돈 들어서 상담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7 : 여성학 소모임>

회원들은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에 살며, 노원구에 사는 사람이 한 명이다. 회원들은 30대가 대부분이며, 40대 초반이 있다. 회원은 전부 대졸자이며 교사 한사람만 제외하고 전부 전업주부들이다. 교사를 하는 회원은 담임을 맡고 나서 소모임 활동이 어려운지 현재 활동을 쉬고 있다. 회원들 계층수준은 도봉구가 못사는 지역이어서 스스로 중산층 중에서도 조금 아래라고 보는데, 먹고 사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본다. 사치스럽게 살지는 않지만 도서를 사는데는 아낌이 없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고 자기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사는 것 같다.

<사례 8 : NGO는 내친구>

회원들은 대부분 강북구에 살고 도봉구에 사는 회원도 일부 있다. 회원은 30

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의 전업주부들이다. 회원은 대부분 대졸자이고 고졸자도 일부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이런 활동을 할 여유도 생기는데, 생활이 어렵다는 사람이 아직 없으니 중산층이 아닌가한다.

<사례 9 : 이웃 상담원>

회원들은 대부분 강북구에 살고, 일부 도봉구에 거주하기도 한다. 회원은 전업주부로 대부분 40대 초반이고, 50대가 한 명 있다.

<사례 10 : 해울>

회원들은 대부분 강북구인데, 강동구에 1명 살고, 노원구에 2명 산다. 회원은 대학생이며 현재 재수생도 1명 있다.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회원은 집이 이 부근이기도 하지만 활동하러 올라온다.

<사례 11 : 환경연극>

회원 중 3명은 강북구에 살며, 2명은 강북구에 살다가 의정부와 노원구로 이사갔는데 계속 활동하러 오고, 한 명은 동대문구에 거주한다. 회원연령은 30대와 40대가 절반이고, 한 명만 미혼이고 전부 전업주부이다. 회원 중 3명은 방송통신대학에 현재 재학중이고 나머지는 대졸이다. 회원들은 아주 여유있는 것 같지는 않아 중산층 중에서 하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례 12 : 동화사랑방>

강북구에 사는 회원이 가장 많고, 노원구, 의정부, 동대문구에 사는 회원도 있다. 회원들은 대부분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전업주부인데, 경제활동으로 모듬활동을 하는 회원이 있고, 동사무소 강사로 활동하는 회원도 있다. 회원들은 모두 고졸 이상은 되는 것 같다.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 회원들이 중산층은 되는 것 같다.

6) 활동 내용

(1) 학습활동

소집단 활동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은 학습이다. <사례 5, 7, 8>은 학습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지만, 그 외 단체의 경우에도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을 단체 차원에서나 또는 개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

(2) 지역사회 아동복지 및 환경운동 활동

12개 소집단 중에서 소모임의 활동내용이 주로 개인 차원의 여가활동에 머무르는 경우는 2개<사례 3, 5> 모임이며, 나머지 10개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아동, 여성, 교육, 환경 등의 사회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사례별 활동내용

<사례 1 : 학교참여모임>

소모임의 활동목표는 학교가 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다. 모임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모인다. 활동내용을 동북부 지부 참교육소식지에 게재하기도 하고, 소모임에 나왔던 이야기를 인터넷 카페 사랑방의 소모임방 공지사항에 올려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사례 등의 정보교환도 한다.

<사례 2 : 열린 대조 어머니회>

주민자치센터의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 외에도 올해 5월에는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풍물, 동요, 판소리, 탭댄스 공연을 하는 어린이 축제를 열었다. 지역에 문화행사가 없으니 엄마들의 관심도 높았고 호응도 좋았다.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런 축제를 정기적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올해 가을에도 해보자고 하였다. 회원들의 팀웍 강화를 목적으로

로 성격유형검사, 자원봉사의 의미, 부모교육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는데,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희망자는 교육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회원들이 독서지도사 과정을 교육받고 싶어하는데, 은평구에는 지역문화시설이 없어서 이런 과정을 듣기 위해서는 멀리 가야 한다. 마포 여성발전센터가 그나마 가까운데 그곳에는 독서지도사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독서지도사 과정을 하반기에 도서관에서 개설하려고 한다. 내달에는 아이들과 하는 갯벌탐사여행을, 그리고 하반기에는 아빠들의 모임, 아빠와 하는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다.

<사례 3 : 땅사랑회>

농사짓고 하는 걸 아이들이 직접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니 신기해 한다. 고추, 가지, 상추, 부추, 치커리, 열무, 땅콩, 방울토마토 등을 심었고, 툼툼히 잡초 뽑고 물 주러 모여서 간다. 무공해 채소 먹으니 좋고 아이들에게 자연을 직접 보여 주면서 환경교육 시키니 좋다. 두 달에 한번 가족들과 정기 모임을 한다. 식당은 인원이 많아서 못 가고 각자 먹을 것 싸 들고 동네 공터에서 모인다. 단체 홈페이지에 소모임란이 있는데, 텃밭에 갔다온 회원들은 그 곳에 글을 올린다.

<사례 4 : 하천살리기 모임>

우리 하천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우리 힘으로 살리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부들이 어떻게 하면 하천을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서로 토의해 보고, 감시활동과 조사도 하고, 시민들에게 하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활동의 목표이다. 월 2회 모이는데 겨울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환경이론을 공부하고, 봄부터 탄천, 성내천 현장에서 조사활동을 한다. 환경 캠페인에 참가하기도 하고 철새조사를 하기도 한다. 올해는 탄천 상류부터 하천까지 생태계 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학교 CA시간에 환경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싶다. 우리 활동에 대해 송파지역신문에 두 번 게재되었다. 종로자원봉사축제에 참가한 적이 있고, 송파구자원봉사축제에도 참가했다. 그러나 축제에서 입상한 경험은 없다.

<사례 5 : 지리산>

우리 소모임은 친목도모 겸 여가취미 활동이다. 일주일에 한번 민요 강습을 모여서 받는다. 올해 마을축제 장기자랑 대회에 우리가 1등 했다. 앞으로 장구도 같이 치면서 판소리도 배울 계획이고,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민요를 알리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사례 6 : 상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가 2년 동안 상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도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해서 시작했다. 회원들이 처음 가정상담 활동을 하자고 할 때는 모두 약간은 두려워했지만 굉장히 쉽게 생각했다. 그러나 가정상담은 의외로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 상담활동은 오전 10시부터 5시 30분까지 하며, 회원들이 매달 상담 시간표를 짠다. 회원이 14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면서 각 회원이 일주일에 하루 종일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회원들이 일이 있으면 다른 회원들이 시간을 메워야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주로 전화상담을 한다. 전화상담은 일회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므로 더 어려운 것 같다. 면접 상담은 상담원들이 불안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여성 방문자들만 하고 있으며, 예약상담을 하고 있다. 이 회원들이 2년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상담에 대한 생각이 비슷해 결속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년 동안 순수 자원봉사로 힘들기도 하지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상담사례를 외부로 누출시키는 것은 안되지만, 자문 선생님과 내부 회원들간에 상담사례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자문과 감사를 받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담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담 방식을 터득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사례 7 : 여성학 소모임>

여성학 책을 가지고 회원들이 발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갖는다. 그리고 공부하는 모임만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모아서 문화적으로도 접근하자고 해서 비디오도 같이 본다.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만든 영화를 보고 토

론한다. 그리고 대중매체 모니터와 같은 작은 사업을 해서 결과물을 내보자는 논의가 있다. 그리고 아빠들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논의도 있다.

<사례 8 : NGO는 내친구>

우리 소모임은 NGO에 대한 스터디 그룹이다. 각 회원들이 발제하고 토론거리를 찾아서 1주일에 한번 모여서 공부한다. 발제와 토의 내용에 대한 자료정리는 하고 있으나 아직 책으로 발간하지는 못했다. 회원 중 한 명은 경희대 NGO대학원에 한 학기 다니기도 하였다. 외부강사를 모시는 것이 경제적 문제로 쉽지 않다. 올해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성공회 대학교 교수님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사례 9 : 이웃 상담원>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어,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아동을 위한 숙제방을 운영하였다. 숙제방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아동문제가 가족문제에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만든 모임이 이웃상담원이다. 이웃상담원 회원들이 자체 상담 교육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함께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중간에 회원이 들어오기가 어렵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세미나도 하고, 활동한 것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상담자문을 받는다. 학교 선생님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추천받아, 회원들이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가 되어 선물을 들고 가정방문을 하여, 가정형편을 알아본다. 그리고 상담원이 부모님도 만나보고, 선생님도 만나고 해서 아이에 대한 보호를 한다. 보호 아동의 경우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 면담이 밤 11시나 12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1998년에 자원교사 모집 및 교육이란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사업에 응모하였고, 사업이 채택되었다.

<사례 10 : 해울>

우리 모임의 목표는 아름다운 청소년 문화를 스스로 만들고, 올바른 시민 사회인으로서 앞장서서 나와 내 이웃을 돌아보며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실천 하자는 것이다. 회원들은 환경체험학교, 숙제방 자원교사, 나누리 자원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환경체험학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한 달에 한번 성이나 동거 등의 특정 주제를 정해놓고 세미나를 연다.

<사례 11 : 환경연극>

어린이 대상 환경교육을 연극으로 하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다. 작년에는 연극공연에만 초점을 두었는데 올해는 환경이론도 공부하자 해서 학습도 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기본연기 연습하고, 환경이론을 공부한다. 그리고 학교나 어린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환경연극을 한다. 구에서 요청해서 구민회관에서 공연을 하기도 한다. 초기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우리 활동 취지를 설명하고 해서 공연을 하였는데, 3년이 지나면서 우리 구의 학교에서는 우리 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생긴 것 같다. 그래도 교장이 바뀌면 다시 교섭을 해야 하는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다른 학교로 전근가신 선생님이 공연 요청을 해서 관악구에 있는 학교에서 공연하기도 하였다.

<사례 12 : 동화사랑방>

한달 단위로 읽을 책을 정하고, 1주일에 한번 모여 각 회원들이 조사해 온 자료를 발제하고 토론하고 있다. 발제 내용은 한 부를 보관하고, 토론은 서기가 기록하고 있다. 작년에 책 잔치를 하고, 문집을 만들었다. 올해도 책 잔치를 하자는 말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다. 매달 한번 외부강사초청의 특별강좌를 한다. 그리고 숙제방 아이들 독서지도와 책 대여 사업도 하고 있다. 방학중에는 열린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거나 동사무소에서 독서지도를 하는 회원도 있다.

7) 단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1) 단체 간 연계활동

소집단 차원에서 다른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개<사례 2, 4, 12> 모임이며, <사례 11>의 경우 다른 연극단체와 교섭 중에 있다. 시민단체 소모임이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소집단과 다른 점은 시민단체 차원의 연대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시민단체 회원과 접촉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소모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12>는 새마을 동 부녀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였으며, <사례 7>은 소집단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지부단체 차원에서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한다.

(2) 지역사회 네트워크

시민단체 소집단이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기관과 연계되는 경우는 자치구나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행정기관과 초등학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활동을 한 경우는 3개 단체<사례 2, 11, 12>이며, 학교와 연계되는 경우는 <사례 1, 2, 6, 9, 11>의 5개 단체이다. 이 중 <사례 6>은 지역의 학교가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대학기관과 연계된다고 할 것이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되는 경우는 <사례 4>이다<표 4-32 참조>.

<표 4-32> 시민단체 사례조사 소집단의 지역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	사례수	비고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3	사례 2, 11, 12
학교	5	사례 1, 2, 6, 9, 11,
자원봉사센터	1	사례 4
다른 시민단체나 소집단	4	사례 2, 4, 11, 12
새마을 부녀회	1	사례 12

(3) 사례별 단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 1 : 학교참여모임>

교직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전교조 선생님들과 간담회하면서 서로 알게 된다. 어떤 사업을 할 때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이 달라서 애로점도 있다.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 가령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가 참교육학부모회의 의견을 물어보면, 우리들이 회의를 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농성도 같이 가주고 하는 연대사업을 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리고 엄마라는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한다.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활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다.

<사례 2 : 열린 대조 어머니회>

은평구에 있는 갈곡리를 사랑하는 주민모임의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우리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앞으로는 은평구내에서 도서관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사례 3 : 땅사랑회>

우리처럼 활동하는 다른 소모임에 대한 정보를 들어본 적이 없다. 다른 단체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봤다. 주민회 전체 차원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운동을 하는데, 단체 실무자에 비해 우리는 참여도나 책임감이 낮다.

<사례 4 : 하천살리기팀>

2002년 1월에 강남·서초환경연합과 탄천에서 철새조사를 하였고, 강동·송파환경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소집단인 남한산성생태모임 회원들과 이론공부를 같이 하거나 환경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거나 야유회를 간다. 그리

고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의 여고생 환경지킴이와도 하천에서 같이 활동한 적이 있다.

<사례 5 : 지리산>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일이 없다.

<사례 6 : 상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소집단 차원에서 다른 단체와 연계하는 일은 없으며, 회원들 중에는 다른 단체의 상담실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 이들을 통해 다른 상담단체의 정보를 얻는다.

<사례 7 : 여성학 소모임>

여성학 소모임이 우리 단체 지부별로 있을 텐데, 아직 지부간에 여성학 소모임을 연계하는 일은 없다. 소모임과 관련하여 다른 단체와 연대활동을 하기 보다는 지부단체 차원에서 하는 연대사업에 참여한다. 노원도봉시민연대에서 하는 연대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주민들과 많이 알게 된다. 새마을 부녀회하고 접촉할 일이 많다. 유기농살리기 운동과 산지견학을 할 때 부녀회와 협조해서 함께 한다. 강남지역의 페미니즘에 관심있는 여성 소모임과 기회가 있다면 일년에 한 두 번 만나는 것은 좋을 것 같다.

<사례 8 : NGO는 내친구>

외부 단체와 연계하는 일은 없다. 학습 소집단이어서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있다.

<사례 9 : 이웃상담원>

외부 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일은 없다.

<사례 10 : 해울>

우리 동아리 차원에서 다른 단체와 연계하는 일은 아직 없다. 다른 단체와의 연계 필요성은 느낀다.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청년 모임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하는지 알고 싶고, 교류를 통해 정보교환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사례 11 : 환경연극>

학교와 어린이 집, 구민회관에서 연극을 한다. 환경연극을 하다보니 연극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전문성에 애매한 점이 있다. 환경에 계속 주제를 맞추어 나갈 것 같다. 회원들 중에 끼가 있는 사람은 여성, 청소년 연극을 하고 싶다는 다양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주부연극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함께 모인 적은 없다. 환경과 관련된 연극을 보러가서 그 극단과 이야기를 해보고, 인터넷에 우리 활동을 올렸더니 어느 극단에서 연락이 왔다. 현재 극단 세 곳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한 단체의 경우 결합해서 활동하자는 제의를 해왔다. 현재 조율 중에 있다.

<사례 12 : 동화사랑방>

사단법인 어린이 도서연구회와 연대하여, 우리 모임이 강북구 어린이 도서연구회로 등록되었다. 어린이 도서연구회에서 작성한 목록 위주로 책 선정을 하며, 도서연구회의 특별 강좌에 참여한다.

8)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

(1) 정책 지원 사항

소집단 활동에 필요한 지원 유형을 보면, 학습 활동을 위한 강사 지원이나 강사정보 제공, 활동에 필요한 서적이거나 물품 제공, 탁아 장소, 활동기회 제공, 교통비 수준의 활동 지원비, 여성 지역사회 단체활동에 대한 홍보, 공무원의 의식변화 등을 희망하고 있다.

<사례 1, 4, 5, 8, 11>의 5개 단체는 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활동을 위해 강사 지원, 강사정보 제공, 책 및 시약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사례 7>의 경우 활동시간에 탁아를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다. <사례 2, 11>의 경우 여성이나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기회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 <사례 6>은 시민교육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통비 수준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사례 9>는 여성들의 사회단체, 자원봉사활동 확산을 위해 소규모 시민단체나 주부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례 12>는 주부들의 지역사회 활동에 공무원이 냉소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2) 사례별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

<사례 1 : 학교참여모임>

사업연구비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경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회원들의 가장 큰 욕구는 연수나 강좌, 세미나 같은 것이 개최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책말고는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통로가 없는 것이 한계이다. 현직교사를 직접 초빙해서 강좌를 듣고 싶은데, 강사비와 장소사용료가 부담이 된다.

<사례 2 : 열린 대조 어머니회>

어린이 도서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도서구입이 원활히 되었으면 한다. 그

리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할 계획이 있는데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 사업비만 조금 지원해 주어도 자원봉사를 할 엄마는 많다. 낮은 비용으로 여성의 노동 착취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봉사와 결합해서 엄마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지역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시설 운영에 직원 인건비가 부담되어 자치구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여성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도 한 방안이다. 여성들에게 봉사활동을 결합하여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동네의 복지도 향상된다.

<사례 3 : 땅사랑회>

지원은 바라는 것이 없고 회원들이 지금처럼 협조 잘하고, 서로 웃는 얼굴로 만나서 웃는 얼굴로 헤어졌으면 한다. 아이들한테 자연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해 주면서 채소를 잘 키우고, 세제를 적게 사용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등의 교육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사례 4 : 하천살리기 모임>

환경 관련 책을 구입하여 회원들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실험할 수 있는 시약을 지원 받았으면 한다. 고등학생들과 실험을 할 경우에도 시약이 없어 대표로 한 사람만 실험해 보고 넘어가는데 여러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할 수 있게 시약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

<사례 5 : 지리산>

우리는 직장에 다니는 회원이 있어 저녁에 모여 강습을 받고 있다. 낮시간대의 공공문화복지시설 강습에는 참가할 수가 없다. 강사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우리처럼 저녁에 모이는 이런 소모임 강습에 마땅한 가격으로 배울 수 있는 강사를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 민요모임은 전문가에게 전수받는 수준을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 강습의 경우 강습비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전문성이 높지는 않더라도 흥미를 가지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강

사를 필요로 한다.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자 관리하듯,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사례 6 : 상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공문화복지시설에서 시민교육을 해 주었으면 한다. 주부들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식, 청소년 이해 등과 같은 강좌를 해 주었으면 한다. 상담하다 보면 정말 이런 걸 몰랐을까하는 사람들이 많다.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처지와 관련된 기초적인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상담이 문제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시민교육 강좌가 많이 개설되었으면 한다. 공공문화복지시설이 지역학교로서 질적으로 높은 평생교육장이 되어 돈이 없어도 의욕있고 시간있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어른 대안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상담자원봉사자에게 월 교통비라도 지급되면 좋을 것 같다. 적은 돈이라도 유료와 무료 사이에는 책임감과 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사례 7 : 여성학 소모임>

소모임뿐만 아니라 강의를 들으러 다닐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문제이다. 탁아를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눈치를 보면서도 강의를 듣고 싶어 오는 사람이 많다. 아주 소란한 경우가 아니면 다들 주부니까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 없어 탁아공간과 인력확보를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사례 8 : NGO는 내친구>

대학교 교재를 갖고 자체적으로 공부하다보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강사를 모시자니 강사비가 부담이 되었다. 스스로 공부하다 어려운 난점에 부딪혔을 때 강사를 요청하면 강사 지원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사례 9 : 이웃상담원>

주변 사람들에게 지역사회단체 참여와 활동을 권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친하지 않으면 힘들다. 적은 규모의 시민단체, 주부들의 자원봉사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였으면 한다. 그러면 지역사회 단체활동과 자원봉사동아리 활동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사례 10 : 해울>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지원을 받고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데, 활동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한다.

<사례 11 : 환경연극>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도 필요하지만, 연가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강사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사례 12 : 동화 사랑방>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우리들이 이런 활동을 합니다하고 전화를 하면 냉소적인 반응을 한다. 동사무소나 구청도 지역을 위해서 활동한다고 한다면 주부들이 활동하는 곳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공무원들이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를 하면 관심을 갖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우리가 돈 받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로 하면서 자신을 계발하려는 욕구에서 활동하는 것인데, 냉소적 대응에 접하면 의욕이 많이 꺾이게 된다.

4. 새마을 동부녀회와 자치구 주부환경연합 사례조사

1) 결성 과정

서울시에 동 단위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 동부녀회는 1980년에 제정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 새마을 운동조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직이다. 새마을 부녀회는 1970년대 초기 정부가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관주도로 마을단위로 조직한 여성단체가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전국 단위의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가 창설되었고, 1984년에는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새마을 부녀회 지회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부환경연합은 서울시 주도로 1991년에 조직된 여성단체로, 이후 전국적 조직으로 확산되어, 1998년에 환경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새마을 부녀회처럼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새마을 동부녀회와 주부환경연합이 초기에 행정주도에 의해 단체 결성이 되기는 했으나, 회원가입과 탈퇴는 회원의 자발적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동 단위 지역사회로까지 조직이 결성되어, 그 활동의 역사가 부녀회의 경우 20여년이 넘고, 주부환경연합은 10년이 넘기 때문에 지역사회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의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조직 운영

(1) 새마을 동부녀회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에 525개의 동단위 새마을 부녀회가 조직되어 있다. 동부녀회는 회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는 하나 일반적으로 통 단위로 회원 1명이 참여하므로 보통 30명 내외의 회원으로 동부녀회가 구성된다.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부녀회장이 동부녀회에 가입하기도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회칙에 의해 동부녀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운영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동부녀회 회장은 임기 3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

정되어 있다. 동부녀회가 모여 자치구 부녀회가 조직되고, 자치구 부녀회장을 선거로 선출한다. 동부녀회 일반회원들은 매월 5,000원-10,000원의 회비를 내며, 간혹 서울시 부녀회 사업을 위해, 가령 청사건립을 위해 자치구나 동 부녀회 회장, 회원들이 부담을 무릅쓰고 별도로 회비를 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25개 구 부녀회장이 모여 월례회를 하고, 이후 자치구에서도 서울시 회의자료와 자치구 회의자료를 가지고 정해진 요일에 동부녀회장이 모여 월례회를 1회하고, 각 동별로 월례회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주부환경연합

25개 자치구 단위로 주부환경연합이 있으며, 동 단위 수준의 390개 모임이 있다. 서울시 전체 회원 수는 7,555명으로 되어 있다. 새마을 부녀회가 동별로 조직되고, 동부녀회 단위로 활동이 활발한 것에 비해 주부환경연합은 동 단위 조직이 있기는 하나, 동 단위 활동보다는 자치구 전역을 단위로 하는 사업활동이 활발하다.

회비는 회원들이 한 달에 만원을 내고 있으며, 회비는 회원 모임 경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월 1회 자치구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3) 활동내용

(1) 새마을 동부녀회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 회칙에 의하면, 새마을 부녀회의 활동목적을 ‘여성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연합회 차원에서 매년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특성에 따라 새마을 동부녀회가 독자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자치구별로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다.

동부녀회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행정과 함께 캠페인 활동과 지역청소에 참여하는 일, 벼룩시장이나 녹색가게 운영, 지역 노인 경로 잔치, 불우이웃 김장 담가주기, 독거노인 지원, 재생비누 제작, 구청이나 동사무소 안내자원봉사, 농촌 일손돕

기,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재해지역 구호활동, 복지시설 방문 자원봉사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 공공문화복지시설이나 시민단체 소집단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불우이웃 기금 마련을 위한 판매사업이나 농산물 직거래 등의 판매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 동부녀회 활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나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소집단 활동이 자원봉사나 지역사회운동을 하더라도 회원의 개인적 발전과 관심, 학습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부녀회의 경우 활동내용이 자원봉사에만 치중되어 있다. 새마을 동부녀회의 이러한 활동내용으로 젊은 층의 회원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원의 자녀 장학금 지급이란 방법을 통해 회원 유입을 유도하기도 하나 큰 효과는 없다고 회원들은 평가하고 있다. 동 부녀회장의 다음의 말은 부녀회의 활동내용에 대한 이러한 경향을 잘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새마을 운동조직 중에서 부녀회가 제일 밑바닥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 부녀회가 해야 할 1년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고정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서도 그 외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다 참여를 해요. 한마디로 약방의 감초예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연락이 와요”.

학습활동으로는 동 부녀회장이나 총무 대상으로 개설한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거나, 자치구 차원에서 1년 2회 부녀회 활동과 관련된 교육강좌를 개설해 주면 참여하고 있다. 회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2박 3일 새마을 연수프로그램이 있으나, 이러한 학습 참여에 회원들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남구 부녀회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 대상의 노래교실, 민요교실, 차밍댄스 교실 등의 여가프로그램이나 주민 행사를 자체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주부환경연합

주부환경연합의 설립목적은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의 수거와 재활용 촉진 베틀 공장 운영을 통한 근검절약 소비풍조 조성, 자원절약과 국가환경보존 활동,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및 부녀복지 증진으로 사회발전 도모’로 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 시설처리 현장 및 현지 견학 등의 여성 환경교육 실시, 환경운동 홍보활동,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환경생태 보존운동 전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치구에 따라 주부환경연합의 활동내용과 활성화에는 차이가 있는데, 도봉구 주부환경연합의 경우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서울시 기금사업을 신청하여 지역사회 사업을 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도봉구와 강남구의 주부환경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동원하는 환경운동사업에 참석하는 것 외에 단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녹색가게 운영과 비누제작이다. 도봉구는 상설매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강남구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구 내의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비누제작을 직접 하고 있으며, 도봉구의 경우 주민 대상의 비누제작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단체 모두 1년에 몇 번 자선 바자회를 하여 자선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으나, 도봉구에서는 지역의 아동과 초·중학생 대상의 환경교육사업과 환경감시사업을 하고 있다. 환경감시사업으로는 지역단체와 함께 월 1회 동별 먼지현황와 대기오염 측정도를 작성하고 있다.

도봉구는 1996년부터 방학기간에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내고장 알기 환경탐사’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첫해에는 동 단위로 30-4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구 전체로는 300-5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는데, 인원 수가 많아 학생들 관리 통제가 힘들었고 사고의 우려도 있어, 현재 분야별 탐사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참여 인원을 조절하고 있다. 대기 탐사, 쓰레기 탐사, 하천 탐사, 장애인 보행탐사, 교통탐사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탐사 결과는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였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준비 작업이 많아 현재는 여름방학에만 실시하고 있다.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300명 한도에서 모집하고 있다. 회원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2년 동안 전문가 초빙 교육을 받았고, 이후에는 회원이 자체적으로 학습과 기획을 하고 강사로 활동하

고 있다. 이외 어린이 집과 연계해서 생태놀이교실을 하고 있다. 강남구의 주부환경연합회원이 50대가 많은 것에 비해 도봉구 주부환경연합의 경우 30-40대 회원이 많아 아동이나 학생 환경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주부환경연합은 주부 백일장 행사를 강남구 여성연합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의 학습활동은 서울시에서 회원 대상으로 열어주는 환경 전문가 구별 순회 강좌 참여,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환경강좌나 환경견학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다.

4) 회원 가입

(1) 새마을 동부녀회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새마을 부녀회나 주부환경연합에 참여하는 통로는 아는 사람의 권유가 63.6%, 공무원의 권유나 추천이 7.5%로 나타났다. 공공문화복지시설 소집단의 경우 아는 사람 권유가 18.0%, 공무원 추천이 0.5%, 시민단체 소집단의 경우 아는 사람 권유가 41.6%, 공무원 추천 0%인 것에 비하면 부녀회나 주부환경연합의 참여통로로 아는 사람의 권유와 공무원의 추천과 권유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새마을 부녀회와 주부환경연합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있다.

문화복지시설이나 시민단체 소집단의 경우 회원 가입이나 선발 조건이 주로 개인의 공통된 관심사에 국한되는 것에 비해, 동부녀회 회원은 상대적으로 회원의 개인적 조건을 중시하는 폐쇄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존 회원들이 신규회원 가입을 다음의 잣대로 선발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회원 뽑을 때는 남편이 안 계시고 과부인 분들은 안 뽑아요. 가정이 원만하고 이미지가 좋은 사람을 뽑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야 활동할 수 있어요”.

“매년 모집 공고를 하지만 신청자가 많지는 않으며, 들어온다는 사람을 다 받을 수는 없고, 회장단에서 의논을 해서 적절한 사람만 영입한다”.

(2) 주부환경연합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을 통해 환경에 관심있는 여성 대상으로 회원모집을 하고 있으며, 도봉구의 경우 회원 모집에 어려움이 없으며, 젊은 연령층이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

주부환경연합 결성 초기에는 동 부녀회에서 활동하던 회원이 핵심 회원으로 들어가 조직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도봉구와 강남구의 주부환경연합 회장들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장기간 활동하였던 회원들이었다. 주부환경연합 회원들은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마을 부녀회 활동보다 더 큰 보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5) 지역사회 네트워크

동부녀회가 자치구나 동사무소 이외의 다른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는 부녀회가 지원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있다. 시민단체와의 연계는 거의 없으며, 연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다만 농산물 직거래 등의 도농간 교류사업을 통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지역주민들과 교류하고 연계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도봉구 주부환경연합의 경우 도봉구 내의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운동연합, 세차업과 카센터를 하는 사업단체들과 연계하여 환경감시 활동을 하고, 아동교육사업을 하므로 어린이 집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강남구 주부환경연합은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주부백일장 행사를 진행한다.

제3절 소집단 활동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개인 및 가구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1) 연령

<표 4-33>은 단체 유형별로 소집단 활동자의 현재 연령과 활동시작 당시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활동자의 현재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46%로 가장 많으며, 이어 20-30대 28.4%, 50대 21.4%, 60대 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3> 단체유형별 연령 및 활동시작 연령

단위 : %(명)

항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검증통계치
연령					
2,30대	23.3	60.8	7.2	28.4 (114)	$\chi^2=127.28^{***}$
40대	58.7	31.4	37.8	46.0 (185)	
50대	15.9	7.8	43.2	21.4 (86)	
60대이상	2.1	·	11.7	4.2 (17)	
합계	189	102	111	402	
활동시작 연령					
20대	1.7	7.0	1.8	3.1 (12)	$\chi^2=28.02^{***}$
30대	40.3	57.0	31.8	42.2 (165)	
40대	47.5	31.0	49.1	43.7 (171)	
50대	9.4	5.0	14.5	9.7 (38)	
60대	1.1	·	2.7	1.3 (5)	
합계	181	100	110	391	

*** p < .001

소집단 활동 시작 당시의 연령은 40대 43.7%, 30대 42.2%로 나타나, 활동자의 86%가 30-40대에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단체 유형별로 현재 연령과 시작 당시 연령에 차

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단체활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체유형별로 활동자의 연령에 차이가 있어 시민단체, 공공문화복지시설, 부녀회·주부환경연합 순으로 활동자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자는 20-30대의 젊은 층이 60.8%로 가장 많으며,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은 50대 장년층이 43.2%로 가장 많으며, 공공문화복지시설은 40대가 58.7%로 가장 많다.

단체유형별 단체 활동 시작시의 연령을 보면,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은 현재 50대 연령이 가장 많으나, 시작 연령은 30대 31.8%, 40대 49.1%로 나타나, 활동자의 활동 기간이 공공문화복지시설이나 시민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학력

<표 4-34>는 활동자의 학력을 나타낸 것이다. 활동자의 대부분인 88.9%가 고졸 이상의 학력자이며, 활동자의 과반수가 넘는 56.1%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로 나타났다. 이는 6세 이상 서울시 여성인구 중 전문대 이상 학력자가 28.3%인 것과 비교하면³⁾, 소집단 활동자의 학력수준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단체 유형별로 활동자의 학력 수준에 차이가 있는데, 20-3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은 시민단체 활동자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이 82.1%로 학력 수준이 가장 높으며, 40대가 가장 많은 공공문화복지시설 활동자는 59.2%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이다. 50-6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은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경우 26.6%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이다. 단체 유형별 이러한 학력수준 차이는 활동자의 연령층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6세 이상 서울 여성인구의 학력수준 분포를 보면, 대졸 이상이 18.6%, 전문대 9.7%, 고등학교 36.2%, 중학교 13.8%, 초졸 이하 21.7%이다.(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

<표 4-34> 단체유형별 학력 분포

단위 : %(명)

학력수준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검증통계치
중졸이하	7.9	4.0	22.9	11.0 (44)	$\chi^2=87.60^{***}$
고졸	32.8	13.9	50.5	32.8 (131)	
전문대졸	16.9	6.9	8.3	12.0 (48)	
대졸이상	42.3	75.2	18.3	44.1 (176)	
합계	189	101	109	399	

*** p < .001

(3) 종교

<표 4-35>는 활동자의 종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활동자의 25.7%는 종교가 없으며, 나머지 74.3%는 종교가 있다. 서울시 여성의 61.4%가 종교가 있는 것에 비한다면, 소집단 활동자의 종교인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활동자의 28.5%가 기독교인이며, 불교인 22.3%, 천주교인 21.0%로 나타났다. 서울시 여성의 천주교 비율이 10.6%이므로, 천주교 여성들의 소집단 활동 비율이 기독교나 불교를 믿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⁴⁾.

단체 유형별 종교분포를 보면, 20-30대 젊은층이 많은 시민단체의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가 39.2%로 가장 많으며, 50-60대가 가장 많은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은 불교인이 32.7%로 가장 많고, 40대가 가장 많은 공공문화복지시설의 활동자는 기독교인이 3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1999년 서울 여성의 종교분포를 보면 무교 38.6%, 기독교 27.0%, 불교 22.6%, 천주교 10.6%이다.(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0.)

<표 4-35> 단체유형별 종교 분포

단위 : %(명)

종교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검증통계치
무교	19.3	39.2	24.5	25.7 (104)	$\chi^2=25.80^{**}$
기독교	34.9	22.5	22.7	28.5 (115)	
천주교	24.5	17.6	18.2	21.0 (85)	
불교	18.2	18.6	32.7	22.3 (90)	
기타	3.1	2.0	1.8	2.5 (10)	
합계	192	102	110	404	

** p < .01

(4) 혼인과 자녀

<표 4-36>은 활동자의 혼인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활동자의 대부분인 98%가 혼인을 하였고, 이 중 2.5%가 이혼이나 사별을 하여, 활동자의 95.5%가 기혼 상태이다.

<표 4-36> 단체유형별 혼인상태

단위 : %(명)

혼인상태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미혼	1.0	4.9	0.9	2.0 (8)
기혼	97.4	95.1	92.7	95.5 (386)
이혼·별거	0.5	·	0.9	0.5 (2)
사별	1.0	·	5.5	2.0 (8)
합계	192	102	110	404

<표 4-37>은 활동자의 평균 자녀수 및 막내자녀의 나이를 나타낸 표이다. 자녀수는 50-6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은 부녀회·주부환경연합 활동자의 경우 평균 2.2명의 자녀가 있고, 40대가 가장 많은 공공문화복지시설 활동자의 평균 자녀수는 1.93명, 20-30대 연령층이 많은 시민단체 소집단 활동자의 평균 자녀수는 1.75명으로 나타났다.

활동자의 막내자녀 나이도 단체 유형별 활동자의 연령 구성과 비례해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이 평균 21세로 가장 많으며, 공공문화복지시설이 평균 15세, 시민단체가 평균 10세로 가장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단체유형별 평균 자녀 수 및 막내자녀 나이

항목	공공문화복지시설 (N=184)	시민단체 (N=102)	부녀회 (N=108)	검증통계치
자녀수	1.93명	1.75명	2.20명	F=7.921***
막내자녀 나이	14.92세	9.54세	20.66세	F=54.675***

*** p < .001

2) 가구 특성

(1) 소득수준과 계층평가

<표 4-38>은 활동자의 소득수준과 주관적 계층평가를 나타낸 표이다. 소득수준별로는 201-300만원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1만원 이상이 전체의 3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100만원 이하는 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을 활동자의 주관적 계층평가로 살펴보면, 본인의 상태를 중중으로 평가한 사람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중하 27.9%, 중상 13.7%로, 전체 활동자의 97.2%가 본인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하층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은 2%, 상층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은 0.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4-38> 단체유형별 소득수준 및 주관적 계층 평가

단위 : %(명)

항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소득수준				
100만원이하	6.0	8.2	6.6	6.7 (26)
101-200만원	27.3	30.6	36.8	30.7 (119)
201-300만원	30.6	32.7	32.1	31.5 (122)
301-400만원	19.1	17.3	13.2	17.1 (66)
401만원이상	16.9	11.2	11.3	14.0 (54)
합계	183	98	106	387
주관적 계층평가				
상	·	·	2.8	0.7 (3)
중상	15.3	8.8	15.6	13.7 (55)
중중	57.4	51.0	56.9	55.6 (223)
중하	25.3	38.2	22.9	27.9 (112)
하	2.1	2.0	1.8	2.0 (8)
합계	190	102	109	401

(2) 거주 지역과 거주 연한

<표 4-39>는 활동자 거주지역 분포를 단체유형별, 소득수준별로 나타낸 표이다.

활동자 거주지역은 강북동부지역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동부지역은 27.8%, 강북서부지역은 18.8%, 강남서부지역은 17.8%로 분포되어 있다.

단체유형별로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 강남동부지역이 33%, 강북동부지역이 23.9%, 강남서부지역이 25.5%, 강북서부지역이 17.6%로 분포되어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는 강남동부지역이 7.9%, 강북동부지역이 63.4%, 강남서부지역이 3.0%, 강북서부지역이 25.7%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강북동·서부 지역에 한정,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은 강남동부지역이 36.9%, 강북동부지역이 30.6%, 강남서부지역이 18%, 강북서부지역이 14.4%로 분포되어 있다.

<표 4-39> 활동자 거주지역 분포

단위 : %(명)

항목	강남 동부지역	강북 동부지역	강남 서부지역	강북 서부지역	전체	검증 통계치
단체유형						
공공문화복지시설	33.0	23.9	25.5	17.6	47.0 (188)	$\chi^2=71.977^{***}$
시민단체	7.9	63.4	3.0	25.7	25.3 (101)	
부녀회·주부환경연합	36.9	30.6	18.0	14.4	27.8 (111)	
합계	27.8(111)	35.8(143)	17.8(71)	18.8(75)	100.0(40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9	6.7	7.2	13.7	6.8 (26)	$\chi^2=38.881^{***}$
101-200만원	22.1	32.6	30.4	38.4	30.4 (116)	
201-300만원	26.9	34.1	39.1	27.4	31.8 (121)	
301-400만원	20.2	16.3	15.9	13.7	16.8 (64)	
401만원 이상	28.8	10.4	7.2	6.8	14.2 (54)	
합계	27.3(104)	35.4(135)	18.1(69)	19.2(73)	100.0(381)	

*** p < .001

- 1) 강남동부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2) 강북동부지역: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 3) 강남서부지역: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4) 강북서부지역: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소득수준별로는 강남동부지역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강북동부지역, 강남서부지역, 강북서부지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남 동부지역의 경우는 301만원 이상이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강북서부지역의 경우는 200만원 이하가 전체의 52.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소득수준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40>은 단체유형별 평균 거주연한을 나타낸 표이다. 부녀회의 경우는 현재 거주지역의 거주연한이 평균 18.34년으로, 공공문화복지시설 10.03년, 시민단체 9.23년에 비해 매우 길게 나타났다.

<표 4-40> 단체유형별 평균 거주연한

항목	공공문화복지시설 (N=184)	시민단체 (N=102)	부녀회 (N=108)	검증통계치
거주연한	10.03년	9.23년	18.34년	F=39.637***

*** p < .001

2) 사회·경제적 특성

(1) 경제활동

① 경제활동 여부와 경제활동 분야

<표 4-41>은 활동자의 현재 경제활동 여부와 경제활동 경험을 나타낸 것이다.

소집단 활동자의 23.8%는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과거에 한 경험이 있는 활동자는 49.0%,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활동자는 27.3%로 나타났다. 20-30대 젊은 활동자가 많은 시민단체 활동자의 경우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32%,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 54%, 그리고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은 14%이다. 이에 비해 50-60대가 많은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경우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38.5%로 나타나, 문화복지시설이나 시민단체에 비해 경제활동 무경험자가 가장 많다.

<표 4-41> 단체유형별 활동자의 경제활동 경험

단위 : %(명)

항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 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검증통계치
과거에 한 경험 있음	46.6	54.0	48.6	49.0 (196)	$\chi^2=20.906^{***}$
경제활동 경험 없음	27.7	14.0	38.5	27.3 (109)	
현재 경제활동 하고 있음	25.7	32.0	12.8	23.8 (95)	
합계	191	100	109	400	

*** p < .001

<표 4-42>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자의 직종을 나타낸 것이다. 경제활동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교사와 강사로 30.7%를 차지하며, 이어 사무직 및 영업직 25.3%, 자영업 16.5%, 아르바이트 8.8%, 일용노동직 7.7%, 전문직 5.5%, 시민단체 4.4%의 순으로 종사하고 있다. 교사와 강사직의 대부분은 아동 소그룹 독서 및 학습지도, 학원강사를 하고 있으며, 사무직 및 영업직의 경우 보험설계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집단 활동자 대부분의 취업상태가 고용구조가 불안정한 임시직이거나, 시간제, 또는 자기 고용구조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4-42>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자의 직종

항 목	빈도	%
교사 및 강사	28	30.7
사무직 및 영업직 직장인	23	25.3
자영업	15	16.5
아르바이트	8	8.8
일용노동직	7	7.7
전문직	5	5.5
시민단체	4	4.4
공무원	1	1.1
합 계	91	100

② 경제활동 중단 이유

<표 4-43>은 경제활동을 하다가 활동을 중단한 활동자의 중단 시점과 중단 이유를 나타낸 표이다. 경제활동자의 66.9%가 결혼과 출산·양육시점에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결혼과 자녀 양육이 여성 경제활동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심층사례조사 응답자의 다음 이야기는 결혼과 자녀출산·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결혼 전 직장생활을 할 때 애기 아빠랑 사내커플이었어요. 애기 아빠가 그만두라고 해서 결혼하기 한달 전에 그만뒀어요”.

“환경기사 자격증을 따서 직장도 다녔었고, 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결혼하고 첫아이를 낳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힘들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육아를 누군가 책임져줘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니면 다른 여성, 즉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내 아이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회사의 경리로 있다가 결혼 후에 그만뒀어요.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는 가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조그맣게 학원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아이 때문에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접고 아이만 길렀죠. 막내 아이가 4살될 때까지는 거의 집에 있었어요”.

기타로는 건강상의 이유, 계약의 만료, 남편의 전근, 정년, 회사의 이전, 시부모의 병환 등의 이유가 있다.

<표 4-43> 경제활동 중단 시점과 중단 이유(과거 경제활동 경험있는 사람만 응답)

N=196

항 목	빈도	%
결혼시점에서 그만 둬	76	38.8
출산·양육시점에서 그만 둬	55	28.1
쉬고 싶어서 그만 둬	27	13.8
적성에 안맞고, 새로운 일을 찾고자	16	8.2
고용주의 부당대우 혹은 해고	6	3.1
장래비전 없어 보여서	4	2.0
기타	12	6.1
합 계	196	100

③ 향후 경제활동 의향과 장애요인

<표 4-44>는 향후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의향과, 경제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표이다.

향후 경제활동 의향에 대해서는 78.4%가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유형별로는 시민단체가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9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공공문화복지시설 84.7%,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이 57.1%의 순이다.

경제활동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자녀양육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당한 일자리 부족이 33.5%, 실력과 자신감 부족이 18.0%, 자금부족이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유형별로는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경우, 적당한 일자리 부족과 실력과 자신감 부족이 각각 40.6%, 28.7%로 다른 두 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양육기의 젊은 여성들이 많은 시민단체의 경우는 자녀양육을 장애요인으로 꼽는 비율이 50%로 다른 두 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44> 단체유형별 경제활동 의향 및 경제활동 장애요인

단위 : %(명)

항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검증통계치
경제활동 의향					
있다	84.7	91.6	57.1	78.4 (280)	$\chi^2=41.500^{***}$
없다	15.3	8.4	42.9	21.6 (77)	
합계	157	95	105	357	
경제활동 장애요인					
자녀 양육	36.1	50.0	16.8	34.3 (124)	$\chi^2=28.975^{***}$
적당한 일자리 부족	33.7	25.5	40.6	33.5 (121)	
실력과 자신감 부족	15.1	11.7	28.7	18.0 (65)	
자금 부족	8.4	7.4	8.9	8.3 (30)	
기타	6.6	5.3	5.0	5.8 (21)	
합계	166	94	101	361	

*** p < .001

(2) 사회단체 활동

① 다른 단체 참여 활동

<표 4-45>에 의하면, 소집단 회원의 85.7%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이나 시민단체의 소집단 활동, 부녀회·주부환경연합 활동 이외의 다른 단체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활동 외에 다른 단체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이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시민단체는 5.9%로 현재의 활동 외에 다른 단체의 참여율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른 단체활동 평균 참여 수는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이 2.47개로 가장 높았고, 공공문화복지시설과 시민단체가 각각 1.95개, 1.94개로 나타났다<표 4-46 참조>.

현재의 소집단 활동 외에 다른 단체활동의 참여는 ‘학부모회, 어머니회’가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종교단체’ 18.0%, ‘운동·취미 동호회’ 16.9%, ‘공공기관의 자원봉사센터’ 14.7%,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운영위원회(도서관, 주민자치센터, 학교, 구청 등)’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유형별로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 종교단체와 운동·취미동호회의 참여가 높은 반면, 공공기관 및 시설의 운영위원회, 시민단체활동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시민단체의 경우는 ‘학부모회, 어머니회’의 참여가 많은 반면, 종교단체나 운동·취미동호회, 공공기관의 자원봉사센터, 부녀회 활동에는 상대적으로 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녀회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자원봉사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기타 소모임으로는 노동조합, 독서지도사모임, 방송작사교실, 부모교육, 어린이 도서연구회, 친목회 등이 있다.

<표 4-45> 단체유형별 다른 단체활동 참여 유무(다중응답)

단위 : %(명)

항 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학부모회, 어머니회	21.7	27.2	19.5	22.5 (163)
종교단체	21.7	14.1	15.9	18.0 (131)
운동·취미 동호회	20.5	11.4	16.4	16.9 (123)
공공기관의 자원봉사센터	15.5	10.3	17.3	14.7 (107)
공공기관 및 시설의 운영위원회	9.6	17.9	16.8	13.9 (101)
시민단체활동	4.0	16.3	7.3	8.1 (59)
부녀회	5.9	0.5	5.9	4.5 (33)
기타	0.9	2.2	0.9	1.2 (9)
합 계	100.0(322)	100.0(184)	100.0(220)	726
다른 단체활동 참여 안함	14.9	5.9	20.7	14.3 (58)

<표 4-46> 다른 단체활동 평균 참여 수

항 목	N	평균	검증통계치
공공문화복지시설	165	1.95개	F=5.672**
시민단체	95	1.94개	
부녀회·주부환경연합	89	2.47개	

** p < .01

② 자원봉사 참여 의향

<표 4-47>은 활동자의 자원봉사 참여 의향을 나타낸 표이다. 문화나 학습 소집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집단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학습 단체의 경우에도 단체 차원에서 공연봉사 등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소집단 활동자의 대부분은 단체활동을 통해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자원봉사 의향에 대해 85.9%가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5.2%만이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3장에서 서울시 여성의 향후 자원봉사 의향 비율이 57.8%

로 나타난 것에 비교해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향후 자원봉사 의향은 85.9%로 나타나, 소집단 활동자의 자원봉사 의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단체유형별로는 시민단체의 경우 95.1%가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였으며, 공공문화복지시설과 부녀회·주부환경연합 모두 82.9%가 참여를 희망하였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시민단체가 83.4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공공문화복지시설,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순이다.

<표 4-47> 단체유형별 자원봉사 참여 의향

단위 : %(명)

항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 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검증통계치
전혀 그렇지 않다	0.5	·	2.7	1.0 (4)	$\chi^2=18.228^*$
그저 그렇다	5.7	2.0	3.6	4.2 (17)	
보통이다	10.9	2.9	10.8	8.9 (36)	
여건이 된다면 하고 싶다	70.5	71.6	69.4	70.4 (286)	
매우 하고 싶다	12.4	23.5	13.5	15.5 (63)	
합계	193	102	111	406	
평균 (100점 환산)	77.8	83.4	77.4	79.0	F=6.396**

* p < .05 ** p < .01

다음은 단체활동이 자원봉사활동과 연계되기를 희망하는 심층사례조사의 예이다.

“내가 비싸게 배웠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가르치는 것에 나서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죽어서 이 기술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닌데 싶어, 봉사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장구와 판소리도 배울 계획이에요. 우리가 즐기면서 열심히 배워서 남들에게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동네축제할 때 민요배우기 시간을 가져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이들과 동네사람들에게 민요를 확대해 나가자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실력이 쌓여 기회가 닿으면 자원봉사활동도 가능하잖아요. 저희는 장구 하나만 있으면 반주가 되니까 동네요양원이나 복지시설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2. 활동 특성

1) 활동 기간

(1) 활동시작 연도

<표 4-48>은 활동자의 활동시작 연도를 나타낸 표이다. 활동시작 연도는 2000년대 시작한 응답자가 47.3%로 가장 많았고, 1990년대 후반이 33.2%로 나타났다.

단체유형별로는 시민단체의 경우는 2000년대가 6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은 1980년대 이전이 25.5%로 다른 두 단체에 비해 활동을 일찍 시작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48> 단체유형별 활동시작 연도

단위 : %(명)

항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검증통계치
1970년대	·	1.0	5.5	1.8 (7)	$\chi^2=67.527^{***}$
1980년대	5.0	·	20.0	7.9 (31)	
1990-1994년	9.4	7.0	12.7	9.7 (38)	
1995-1999년	36.5	24.0	36.4	33.2 (130)	
2000년대	49.2	68.0	25.5	47.3 (185)	
합계	181	100	110	391	

*** p < .001

(2) 활동 기간

<표 4-49>는 활동자의 평균 활동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단체유형별로는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이 평균 8.01년으로 활동기간이 가장 길며, 공공문화복지시설은 3.83년, 시민단체는 2.30년으로 나타났다.

<표 4-49> 단체유형별 평균 활동기간

항 목	N	평균	검증통계치
공공문화복지시설	181	3.83년	F=36.888***
시민단체	100	2.30년	
부녀회·주부환경연합	110	8.01년	

*** p < .001

직책유무별 활동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표 4-50>에서는 활동자의 단체활동내 직책유무를 알아보았다. 조사대상 가운데 일반회원은 69.8%, 직책을 갖고 있는 회원은 30.2%로 나타났다.

단체유형별로는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경우 직책이 있는 회원이 42.3%로 비교적 높았고, 공공문화복지시설은 23.7%, 시민단체는 29.4%가 직책을 가지고 있다.

<표 4-50> 단체유형별 단체활동내 직책

단위 : %(명)

직책유무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검증통계치
일반회원	76.3	70.6	57.7	284 (69.8)	$\chi^2=11.664^{**}$
직책있음	23.7	29.4	42.3	123 (30.2)	
합계	194	102	111	407	

** p < .01

<표 4-51>은 직책유무별 활동기간 및 연령을 나타낸 표이다. 직책유무별 활동기간은 직책이 있는 회원이 일반 회원에 비해 활동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 60대 이상의 경우 직책이 있는 비율이 일반 회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51> 직책유무별 활동 기간 및 연령

단위 : %(명)

항목	일반회원	직책있음	전체	검증통계치
활동 기간				
올해시작	21.9	10.7	18.4 (72)	$\chi^2=17.054^{**}$
1-5년	57.4	51.2	55.5 (217)	
6-10년	11.1	16.5	12.8 (50)	
11-15년	5.6	11.6	7.4 (29)	
16-20년	1.9	4.1	2.6 (10)	
21년이상	2.2	5.8	3.3 (13)	
합계	270	121	391	
연령				
30대이하	28.3	28.5	28.4 (114)	$\chi^2=9.730^*$
40대	50.2	36.6	46.0 (185)	
50대	18.3	28.5	21.4 (86)	
60대이상	3.2	6.5	4.2 (17)	
합계	279	123	402	

* P < .05 ** P < .01

(3) 활동 모임 회수

<표 4-52>는 활동자의 단체활동 모임 회수를 나타낸 표이다. 활동 모임 회수는 한 달에 2-4회 참여가 58.9%로 가장 높고, 이어 한달에 한번 모임을 갖는 경우가 25.5%로 나타났다.

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은 모임의 회수가 가장 적은 쪽과 모임의 회수가 가장 많은 쪽의 비율이 모두 다른 두 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책 유무별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예상된다.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경우는 직책을 갖고 있는 활동자가 42.3%, 일반회원이 57.7%로, 일반회원은 모임 회수가 적은 쪽에, 직책을 가지고 있는 활동자는 모임 회수가 많은 쪽에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표 4-53 참조>.

시민단체와 공공문화복지시설은 한달에 2-4회 모임을 갖는 비율이 각각 73.5%,

60.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52> 단체유형별 활동 모임 회수

단위 : %(명)

항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검증통계치
한달에 한번	25.8	14.7	35.2	25.5 (103)	$\chi^2=22.738^{**}$
한달에 2-4회	60.3	73.5	42.6	58.9 (238)	
한달에 5-8회	11.9	9.8	16.7	12.6 (51)	
한달에 9회 이상	2.1	2.0	5.6	3.0 (12)	
합계	194	102	108	404	

** p < .01

<표 4-53>은 직책유무별 활동 모임 회수를 나타낸 표이다. 직책유무별로는 일반회원의 경우 한달에 한번 모임을 갖는 비율이 32.0%로 직책이 있는 회원 10.6%에 비해 높았다. 반면, 한달에 5회 이상 모임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회원이 10%인데 반해 직책이 있는 회원은 28.4%로 나타나, 직책이 있는 회원이 일반회원에 비해 활동 모임 회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53> 직책유무별 활동 모임 회수

단위 : %(명)

항목	일반회원	직책있음	전체	검증통계치
한달에 한번	32.0	10.6	25.5 (103)	$\chi^2=36.985^{***}$
한달에 2-4회	58.0	61.0	58.9 (238)	
한달에 5-8회	8.9	21.1	12.6 (51)	
한달에 9회 이상	1.1	7.3	3.0 (12)	
합계	281	123	404	

*** p < .001

2) 활동 참여 통로와 활동 목적

(1) 참여 통로

<표 4-54>는 활동자가 단체활동에 참여하게 된 통로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의 단체활동 참여 통로는 ‘복지관, 문화원,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문화 복지시설에서의 강좌수료 후’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단체 회원으로 있는 아는 사람의 권유’가 36.1%, ‘단체활동을 하고 싶어서 홍보물 등을 보고 직접 찾아감’이 15.2%로 나타났다. 반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사설 학원에서의 강좌수료 후’는 4.0%, ‘공무원의 추천·권고’가 2.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타로는 도서관 방문시, 민요를 배우고 싶어서, 시민단체 강좌 수료 후 우연히, 대 학평생교육원 수료 후, 초등학교 봉사단체를 통해서 등이 있다.

단체유형별로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강좌수료 후’(56.7%)와 ‘사설학원 강좌 수료 후’(7.7%)가 다른 두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로 사설학원을 통해 소모임에 참여하게 된 경우는 사진, 무용, 연극 등과 같은 공공에서 흔히 개설되지 않는 분야의 활동자로서 사설학원을 통해 강좌를 수료하고 난 후에 공공시설과 결합된 경우이다.

시민단체의 경우는 ‘단체회원으로 있는 아는 사람의 권유’가 41.6%로 매우 높았고, 그 외에 ‘단체활동을 하고 싶어서 홍보물 등을 보고 직접 찾아갔다’도 22.8%로 자발적·적극적인 활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은 ‘단체 회원으로 있는 아는 사람의 권유’가 63.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외에 공무원의 추천·권고가 다른 두 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54> 단체유형별 단체활동 참여 통로

단위 : %(명)

참여 통로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검증통계치
공공문화복지시설 강좌수료 후	56.7	19.8	21.5	38.1 (153)	$\chi^2=155.78^{***}$
아는 사람의 권유로	18.0	41.6	63.6	36.1 (145)	
직접 찾아감	16.5	22.8	5.6	15.2 (61)	
사설학원 강좌수료 후	7.7	·	0.9	4.0 (16)	
공무원의 추천·권고	0.5	·	7.5	2.2 (9)	
기타	0.5	15.8	0.9	4.5 (18)	
합계	194	101	107	402	

*** p < .001

다음의 심층사례조사 응답자의 이야기는 공공문화복지시설 및 사설학원에서 강좌를 수료한 후 단체활동에 참여하게 된 사례이다.

“여성시설에서의 6개월 정보화 교육강좌에 참가한 수료생 6명이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당시 강좌가 끝난 후 2개의 동아리가 결성됐어요. 강좌 수료 후 취업을 할 수는 있었으나 월급은 40만원 수준이었고, 밤샘 작업도 자주 있는 편이어서, 주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나 여성대상의 프로그램을 개설한 서울시의 취지를 생각하면, 배운 것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고 해서, 창업 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하기로 했어요.”

“1993년 강남지역의 한 백화점의 문화센터에서 연극강좌를 개설했는데, 백화점이 도산되면서, 강좌모임 또한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강생 15명이 연극 소집단을 결성하자는 뜻을 모았고, 1993년부터 소집단 활동을 시작했어요. 단체 결성 후 강남지역의 모 백화점 두 곳에서 장소제공을 받아 일시적으로 활동하였으나, 백화점이 이윤상의 문제로 장소 제공을 중단했어요. 이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자치구 공무원의 정보제공과 주선으로

강남지역의 마사회 시설을 이용하다가 2000년부터는 문화원에 단체등록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죠”.

심층사례조사 응답자의 다음 이야기는 단체 회원으로 있는 아는 사람의 권유를 통해 단체활동에 참여하게 된 예이다.

“첫애하고 둘째애 사이에서 부모가 어떻게 역할을 중재해야 하는지에 관해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선배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여성단체 지부에서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라 해서 교육에 참여하게 됐고, 그것을 계기로 단체회원가입도 하게 되었어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에 가려고 했다. 마침 큰애랑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엄마가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 학교를 다니는데, 그 곳이 좋다고 소개해주어 교육에 참여하였다.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고 같이 공부하는 엄마들이 너무 좋아서 100% 만족하고, 시민단체에도 가입하였다”.

“당시 남편은 지방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애들 둘을 데리고 서울에 있었거든요. 애들 학교 보내고 남는 시간이 있으니깐 동부녀회 회장이 제가 한가해 보이고, 일을 할만하다 싶어서 그런지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단체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권유를 하셔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일을 하다보니깐 부녀회 일이 보람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 봉사를 다니다보니깐 정도 들더라고요”.

다음은 단체활동을 하고 싶어서 홍보물 등을 보고 직접 찾아간 경우이다.

“원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아겠다고 생각하는 중에 지역여성단체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숙제방 개원을 막 앞두고, 자원교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역생활정보지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도 있고 해서, 이 일이 나한테 최적이다 판단해서 직접 찾아갔어요”.

다음은 공무원의 추천·권고를 통해 단체활동에 참여하게 된 사례이다.

“주부환경연합이 발족했을 때, 무작위로 집에서 살림 사는 아줌마들을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분이 새마을에서 활동하시던 분 중에 이리로 오시면 새로운 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분들을 영입한 것이죠. 저도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하다가 주부환경연합에서 총무를 맡아주십사 해서 단체를 옮겨 활동을 시작하게 된거죠”.

(2) 활동 목적

<표 4-55>는 활동자들의 단체활동 참여 목적을 나타낸 표이다.

소집단 활동의 목적으로는 ‘나 자신을 찾고, 발전시킬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가 5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발전 및 지역문제의 해결에 참여할 수 있어서’가 13.3%, ‘여가시간을 보람되게 보내기 위해서’가 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가정생활을 합리적으로 꾸리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등이 있다.

단체유형별로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는 ‘나 자신을 찾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와 ‘여가시간을 보람되게 보내기 위해서’와 같은 개인적인 이유와 관련된 활동 목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경우는 ‘사회발전 및 지역문제의 해결에 참여할 수 있어서’와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서’ 등 보다 사회적인 이유와 관련된 활동 목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4-55> 단체유형별 단체활동 목적

단위 : %(명)

활동 목적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검증통계치
나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	68.0	58.0	21.6	52.8 (214)	$\chi^2=110.79^{***}$
사회발전 및 지역문제해결	3.1	13.0	31.5	13.3 (54)	
여가시간 보람	14.4	11.0	10.8	12.6 (51)	
자녀교육에 긍정적 영향	5.7	12.0	14.4	9.6 (39)	
사회활동 할 수 있어서	4.6	4.0	21.6	9.1 (37)	
기타	4.1	2.0	·	2.5 (10)	
합계	194	100	111	405	

*** p < .001

다음은 나 자신을 찾고, 발전시킬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단체활동을 한다는 여성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원래 책읽기를 좋아해서 도서관에 드나들다가 도서관에서 주부독서회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하게 된 거예요. 저희는 순수하게 우리 자신이 읽는 책에 대해서, 내 취미를 위해서 활동을 하지, 자녀 독서지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소모임 활동과 관련해서 독서지도를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은 전혀 없고, 단지 취미생활로 활동하시다가 회원분들이 수필가나 시인, 소설가로 등단을 많이 하셨죠”.

“원래 영화보는 걸 좋아했는데 우연히 여성센터에 들렀다가 영화강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3개월 강좌를 마치고 그냥 헤어지지 말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좋은 영화를 선정해서 함께 보고 토론하고, 책자도 만들고, 활성화가 되면 미니 영화제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강좌를 듣고,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좀더 깊이있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저희는 한달에 2만원 정도 회비를 내는데, 주부로써 한달에 2만원 정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아리 활동

을 통해 잃었던 꿈도 찾고, 장래 내가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를 성찰하게 되
죠”.

다음은 사회발전 및 지역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활동자
의 사례이다.

“제가 하천살리기팀에 참여한 이유는 하천이 너무 썩어가고 있는 것이 안
타까워서예요. 하천을 우리 힘으로 살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주부들끼리 모여서 서로 토의
해 보고 맑은 하천을 만들어 나가보자는 취지에서 몇몇 엄마들이 모인 것이
죠”.

“그 당시 은평구에 도서관이 없었어요. 학교 어머니회 엄마들이 모여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된
것이죠. 우리 구는 대학도 없고, 공공시설도 많지 않아서 아이들이 문화적으
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
음 좋겠다는 바람이 기초가 돼서 엄마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
고 노하우를 쌓아가요”.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이 자녀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또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로 단체활동을 시작하게 된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몸이 불편한데도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였던 아는 사람의 자녀가 좋
은 대학에 가는 것을 보고 나도 봉사하면 우리 애들이 잘 될 것 같아서 열심
히 봉사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생활을 하다가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1년쯤 지나니까 생활이 너무나 무료하고 권태롭더라구요. 동네 엄마
들 만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차 마시고 수다떨고, 그리고 아이들 돌

아울 때쯤 흠어져서 집에 돌아오면 가슴이 공허하고 뭔가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사회의 맛을 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숙제방 자원교사를 찾게 되었죠”.

“ 아이 낳고 집에 있으면서 열등감이 생기더군요. 남편은 밖에서 일취월장하는데, 나는 안에서 퇴보하는 것 같고, 경제활동을 못해서 내가 자꾸 우울한 느낌이 드나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이만 크면 기필코 돈을 벌어보리라 했는데, 막상 아이가 크니깐 준비되지 않은 제 모습이 보이더군요. 5년 간 가정에만 있던 내가 다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 열악한 쪽밖에 없었어요. 과연 돈버는 일만이 가치로운 일인가를 고민하다가 사회활동이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안되지만 나를 가치롭게 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해서 단체활동 일을 선택하게 된거죠”.

다음은 가정생활을 합리적으로 꾸리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단체활동을 시작한 활동자의 사례이다.

“저희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질환이 있어서 유기농 야채를 먹으면 좋다고 들 하고, 아이들한테 자연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선생님과 엄마들이 얘기하다가 텃밭 가꾸기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단체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취업강좌를 들었는데, 몇 개월 들었다고 창업을 할만한 수준은 안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창업을 하고 싶은 욕심은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 앞으로 경제활동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단체활동이 당장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해도 앞으로 창업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 방식

<표 4-56>은 활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방식을 나타낸 표이다.

소집단 활동을 하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방식으로는 ‘관련 분야 강좌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가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관련 분야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공연·전시관람을 한다’가 29.4%인데, 심층사례조사에서는 연극, 한국무용, 풍물놀이, 웹디자인 창업, 공예, 서예, 사진, 영화감상비평, 환경연극 동아리가 관련 분야의 공연, 전시, 세미나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분야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단체유형별로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이미 취득했다는 비율이 다른 두 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시민단체의 경우는 대학이나 대학원, 평생교육원 등에 입학하여 관련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다가 높으며,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은 관련 분야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공연·전시관람을 한다는 비율이 높다.

기타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곳의 정보 수집 및 전국주부연극제를 기획하여 참여한다 등이 있다.

<표 4-56> 단체유형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방식 (다중응답)

단위 : %(명)

항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전체
관련 분야 강좌에 참여 경험	37.8	42.7	42.6	40.3 (214)
관련 분야 세미나에 참석 및 공연·전시관람	28.2	27.3	34.4	29.4 (156)
대학이나 대학원, 평생교육원 등에 입학하여 관련 공부 경험	13.9	20.7	11.5	15.3 (81)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	18.5	8.7	9.8	13.7 (73)
기타	1.5	0.7	1.6	1.3 (7)
합계	259	150	122	531

여성 활동자의 다음 이야기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분야 강좌에 참여한 경험을 말하고 있다.

“일을 하다 보니, 새로 배워야 할 부분이 생겨서 기능대학이나 정보문화 센터에 가서 고급단계의 강좌를 들어요.”

“카운셀러 과정을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배우지 않은 임상심리학이나, 노인심리, 법률상담 등을 다들 따로 공부하세요. 저희 상담실에서는 가정상담을 하기도 벅차니까 법률상담이 들어오면 전문 상담실로 연계해줘요. 그래도 기초적인 지식은 필요하니까 공부들을 하시더라고요. 심화훈련코스 같은 것도 본인 스스로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편이에요”.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가정주부이다 보니깐 집에서 모듬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활동 외에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여성발전센터같은 곳에서 하는 방과 후 공부방 지도사 강좌나 글쓰기 강좌에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배우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대학이나 대학원, 평생교육원 등에 입학하여 관련 공부를 함으로써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소모임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깐 또 다른 욕구가 생기게 돼서 요즘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금 국어국문학과 2학년이에요. 동아리 활동하는 내용이 학교 공부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동아리에서 세미나 자료로 썼던 내용과 활동했던 사항들이 제 학과 공부와 연관이 돼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회원 중에는 NGO석사과정에 입학하신 분도 있어요. 저 역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욕구가 있구요.”

다음은 단체 활동을 위해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 활동자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미용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구청에 전화를 하였더니,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미용강좌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뒀는데, 재료비는 약 백만원 정도 들었어요. 자격증을 뒀 후 1998년부터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봉사활동을 안 했을 때는 모르지만, 하고 나면 너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죠”.

<표 4-57>은 <표 4-56>에서 예시된 학습방식에 참여한 평균 활동 수를 나타낸 표이다. 학력수준별로는 대졸이상 1.92개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전문대졸 1.84개, 고졸 1.48개, 중졸이하 1.37개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집단 활동의 전문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7> 학력수준별 참여 학습활동 평균 수

항목	범주	N	평균	검증통계치
학력수준	중졸이하	30	1.37	F=6.480***
	고졸	93	1.48	
	전문대졸	38	1.84	
	대졸이상	144	1.92	

*** p < .001

3. 활동 영향과 결과

1) 개인 차원

(1) 정신적 성장과 건강

<표 4-58>은 활동자들이 단체활동이 본인의 정신적 성장과 건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개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

정적인 평가가⁵⁾ 75.3%로 부정적인 응답 2.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나를 찾고 성장한 느낌이 든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76.9%로 부정적인 응답 1.2%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소집단 활동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해졌다’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75.3%로 부정적인 평가 2.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활동자들은 모든 항목에 79점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어, 단체 활동이 개인의 정신적 성장과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8> 단체활동이 정신적 성장과 건강에 미친 영향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환산)
개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됨	0.5	1.7	22.4	50.2	25.1	79.6점
나를 찾고 성장한 느낌이 듦	0.2	1.0	21.9	53.5	23.4	79.8점
소집단 활동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해짐	0.5	2.0	22.2	52.4	22.9	79.0점

<표 4-59>는 단체유형별 활동자의 정신적 성장과 건강을 나타낸 표이다. 정신적 성장과 건강에 관한 세 문항 모두에서 시민단체가 가장 평점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공공문화복지시설,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다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활동자들의 이야기이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죠. 그것이 제일 좋은 점 같아요. 개인주의, 지역주의, 학벌주의가 왜 없어야 하는가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5) 긍정적인 응답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비율이고, 부정적인 응답은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친 비율임.

<표 4-59> 단체유형별 정신적 성장과 건강에 대한 영향 평가

항 목	평균 (100점 환산)			검증 통계치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개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됨	77.4	85.8	77.4	F=11.516***
나를 찾고 성장한 느낌이 듦	79.0	84.8	76.6	F=9.486***
소집단 활동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해짐	79.4	82.0	75.6	F=4.827**

** p < .01 *** p < .001

“가정에만 있으면 보는 시각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 머물게 되는데, 일단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다 보면 주위의 것들을 광범위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역으로 가정의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고마움으로 인해 남한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자세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여자가 집에만 있을 때는 말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나와서 활동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말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차후에 봉사활동을 그만두더라도 주부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충분히 키우지 않나 생각해요”.

다음은 소집단 활동을 통해 나를 찾고 성장한 느낌이 받았다는 여성 활동자들의 이야기이다.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과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았다는 존재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책임감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나이를 잊어버릴 수 있어서 좋아요.”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제 자신의 경우도 그렇고,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늘 집안 일에 얽매어 있다가 나한테도 이런 점이 있었네 하는 점을 깨달으신대요. 그럼으로써 집안이라는 작은 구역

에서 사회라는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전업주부로 늘 집안 일에 치이다 보면 나는 뭔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작게나마 이런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회원들이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많이 성숙해 간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성장하고 변화하는 자신에 대한 성취감이 있는 것 같고, 그 속에서 사회적 의식,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60대 연령이신 분이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는 등, 자신의 내부 잠재력이 자신도 모르게 발휘되는 경험을 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구요”.

다음은 소집단 활동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해졌다는 활동자들의 이야기이다.

“몸을 움직이니 건강에도 좋고, 번잡스런 생각도 줄어드니 정신건강에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봉사활동이 오히려 생활에 여유를 줘요. 경제활동을 못하니 봉사활동하면서 대리만족을 하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신경성 위염으로 고생했는데 활동 후 없어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건강해졌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명랑해지고 사교적으로 변했죠.”

“장애여성들은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격이 소극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자녀들도 사회적 관계가 적어 사회성이 부족하기 쉽죠. 장애인이므로 서로 공통적 화제가 있기에 대화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속이 후련해져요. 단체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 전문성과 사회활동 능력 양성

<표 4-60>은 활동자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사회활동 능력 양성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평가한 표이다.

활동자의 65.4%는 ‘단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향상되고 활동 지속성이 있다’에 그렇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자의 84.9%는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계속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에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자는 1.7%에 불과하다.

활동자의 57.1%는 현재의 소집단 활동이 ‘본격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평가는 9.9%이며, 32.9%는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평가를 유보하였다.

<표 4-60> 단체활동이 전문성과 사회활동 능력 양성에 미친 영향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환산)
단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향상되고 활동 지속성이 있음	0.5	4.5	29.7	47.4	18.0	75.6점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계속 활동을 해 나갈 것임	·	1.7	13.4	56.5	28.4	82.2점
본격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	1.2	8.7	32.9	44.9	12.2	71.6점

<표 4-61>은 단체유형별 전문성과 사회활동 능력 양성에 미친 영향 평가를 나타낸 표이다.

‘단체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향상되고 활동 지속성이 있다’와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계속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는 항목의 평점은 시민단체가 가장 높다. 다음은 공공문화복지시설,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단체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61> 단체유형별 전문성과 사회활동 능력 양성에 미친 영향 평가

항 목	평균 (100점 환산)			검증 통계치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단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향상되고 활동 지속성이 있음	75.4	79.2	72.4	F=4.816**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계속 활동을 해 나갈 것임	81.0	87.0	80.2	F=8.595***
본격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	70.4	74.0	71.4	F=1.487

** p < .01 *** p < .001

다음은 단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향상되고 활동 지속성이 있다고 하는 활동자들의 이야기이다.

“혼자서 하천에 나가서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8명의 엄마들이 같이 나가서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다 보면 서로 많이 배우게 되죠. 저희는 굉장히 협동심이 좋아서 혼자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신경을 더 쏟게 됩니다. 개인이 하면 나가도 그만 안나가도 그만일텐데 단체로 하니깐 제가 안나가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되죠”.

다음은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계속 활동할 것이라는 활동자들의 이야기이다.

“NGO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활동에 대한 비전과 십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떨지 그림도 그려보게 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거든요. 스터디 모임을 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이었지만, 스

터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전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내 평생의 일이거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 딸이 엄마 직업란에 자원봉사자라고 쓴 것처럼 이것이 나의 직업, 내 평생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올해 계획은 탄천의 생태계 지도를 그려보는 거예요. 위치별, 계절별로 풀 종류, 곤충, 물고기를 체크해 보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학교 CA 시간에 환경과 관련된 강의기회가 주어지면 활동하고 싶고, 앞으로도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모임 활동이 본격적인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지금 여기서 봉사하는 것이 프로그램 기획이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곳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때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3) 가족 차원

<표 4-62>는 활동자들이 소집단 활동이 본인의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활동자의 35.1%는 ‘회원들의 남편이나 자녀에 대해 서로 알고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27.6%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활동자의 61.1%가 ‘회원 가족들간 모임이 주어진다면 가족들과 참석할 의향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라는 긍정적 응답을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자는 9.1%로 적은 편이다. 활동자의 55.3%는 ‘활동으로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에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자는 8.8%로 낮은 편이다.

활동자의 67.7%는 ‘활동으로 인해 자녀교육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에 대해 그렇다

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활동자의 43.3%는 ‘가족들이 나의 활동과 관련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는 편이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는 28.6%이다. 활동자의 75.7%는 ‘가족들과 나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편이다’에 대해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자는 6.7%에 불과하다. 활동자의 67.3%는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받기 때문에 자녀교육이나 가정생활에서도 도움을 받는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는 5.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4-62> 단체활동이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환산)
회원들의 남편, 자녀에 대해 알게 됨	8.3	19.3	37.5	24.8	10.3	62.0점
회원 가족들간 모임이 주어진다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할 의향이 있음	2.8	6.3	29.9	45.5	15.6	73.0점
활동으로 가족 관계가 좋아졌음	1.3	7.5	36.0	39.0	16.3	72.4점
활동으로 인해 자녀교육에 좋은 영향을 주었음	0.3	4.5	27.5	42.4	25.3	77.6점
가족들이 나의 활동과 관련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는 편임	7.8	20.8	28.3	31.8	11.5	63.8점
가족들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편임	1.7	5.0	17.7	49.3	26.4	78.8점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자녀교육이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됨	0.5	4.7	27.5	48.9	18.4	76.0점

<표 4-63>은 단체유형별 소집단 활동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단체유형별로는 회원들의 남편, 자녀에 대한 인지는 부녀회·주부환경연합, 시민단체,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족 모임 참석 의향은 시민단체, 부녀회·주부환경연합,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교육의 긍정적 영향 및 가정교육이나 가정생활에서의 도움은 시민단체, 공공문화복지시설, 부녀회·주부환

경연합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활동으로 가족관계가 좋아졌다, 가족들이 나의 활동과 관련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는 편이다, 가족들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이다는 단체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63> 단체유형별 소집단 활동이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평가

항 목	평점 (100점 환산)			검증 통계치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회원들의 남편, 자녀에 대해 알게 됨	58.8	59.8	69.0	F=8.652***
회원 가족들간 모임이 주어진다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할 의향이 있음	70.2	77.2	74.0	F=5.188**
활동으로 가족 관계가 좋아졌음	72.8	72.0	71.6	F=.179
활동으로 인해 자녀교육에 좋은 영향을 주었음	75.6	84.4	75.0	F=10.758***
가족들이 나의 활동과 관련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는 편임	61.0	65.8	66.6	F=2.765
가족들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편임	78.0	82.2	77.0	F=2.693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자녀교육이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됨	74.6	80.8	74.0	F=6.228**

** p < .01

*** p < .001

다음의 이야기들은 회원간에 서로의 남편이나 자녀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회원들이 모두 같은 동네 주민이므로 하루 1번은 탁구 치러 모이면서 자녀들의 학교생활, 교육문제에 대해 대화를 해요.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 어머니회에서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회원들간에는 서로의 자녀를 잘 알고, 아이들도 회원들에게 인사를 할 만큼 친해요. 또 일요일에도 시설이 개방되므로 남편들도 같이 나와서 탁구를 치기도 해서 가족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죠.”

“3년간 활동하다 보니 회원 가족들끼리 알고 있어요. 시사회에 아이들이나 남편이 함께 나오기도 하거든요. 가족 영화모임을 시도하려고 해요.”

“서로의 가족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게 돼요. 주제를 갖고 토의를 하다 보면, 이걸 가정에 가서 적용해 보고 남편과 얘기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다시 모여서 토의하게 되고....얘기 속에서 가족들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기본적인 호구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의 성격이나 남편, 시어머니 얘기까지 속속들이 다 알게 되죠”.

다음은 회원 가족들간 모임이 주어진다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활동자들의 이야기이다.

“가족들 모임은 없는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들은 부인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잘 모르는데, 가족 모임이 있으면 주부들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하반기에 아빠들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도서관이라는 매개가 아빠들한테도 호응이 좋더라구요. 아내가 집안 살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활동을 한다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빠들이 지역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서 그럴지 실제로 안 하겠다하는 아빠들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그런 자리는 없었지만 아빠들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얘기는 나왔어요. 남편들이 심리적인 동조는 많이 하더군요. 우리 아내가 이런 일에 관심있어 하고, 지역에 이런 일이 있네, 열심히 해봐라, 잘 되면 좋겠다 등의 격려를 해 주는데, 만약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남편이 참여하겠다고 하더군요”.

다음은 활동으로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는 활동자들의 이야기이다.

“텃밭가꾸기 모임에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니깐 너무 신기해요. 애들도 어디 나가면 우리 농사짓는데 많이 컷는지 꼭 가보자고 하고....가족 분위기가 대개 좋아졌다고 해야 하나....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애들 아빠는 인터넷 게시판에 좋은 글을 올려서 다른 엄마들도 다 보게끔 쓰고 싶어요. 반장인 제가 모종 사러갈 때도 애들 아빠가 같이 도와주곤 해요”.

“남편은 제가 활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남자들도 은근히 아내가 바깥 활동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나 또한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남편에 대한 기대만 높아지게 되고, 기대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니깐 자아실현도 되고, 남편과의 관계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단체활동이 자녀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활동자들의 이야기이다.

“엄마가 늘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아이한테 책 읽으라는 소리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책 읽기를 좋아해요. 저는 공부하러 갈 때도 항상 아이한테 ”엄마 공부하러 갔다올께“하니깐 아이가 엄마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 같아요. 또 항상 팀을 이뤄서 대화하는 분위기를 옆에서 보고 익히게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구나...눈으로 보는 것이 백 번 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엄마 직업란에 자원봉사자라고 쓰더라구요. 자원봉사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딸이 굉장히 깽쟁이인데 제가 여기서 활동하니깐 자연스럽게 우리 딸도 청소년 봉사단체활동을 통해 숙제방 아이들도 만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맘이 점점 생기더군요”.

“내가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참교육이구나...나는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이 맡은 몫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아이들 셋 다 서울장안에 있는 대학에 특차로 보냈어요. 내 자식과 나 자신을 위한 봉사였지 결코 남을 위한 봉사가 아니더라고 다른 엄마들한테 말해주곤 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자녀들이 바르게 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잔소리를 해야만 했던 일들도 아이들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고, 일기를 쓴다든지, TV를 볼 때도 아이들의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제가 활동하는 것을 자꾸 보다 보면 본인들도 나중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주변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너무 내 아이한테만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다른 아이를 보살피다 보면, 그 사이에 내 아이도 어느새 함께 크더군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활동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가족들이 본인의 소모임 활동과 관련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한 경험에 있다는 활동자들의 이야기이다.

“연극 공연시에는 회원 가족들이 관람을 오니까, 가족들간에는 얼굴을 알고 인사하는 수준으로 서로 알고 있어요.”

“숙제방 기금 마련할 때 저희 부모님도 오셨거든요. 마을축제 할 때도 부모님들이 오실 기회가 많아요”.

“책 잔치 때 회원들의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오세요. 책 잔치를 보고 나면 거의 다 저희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다음은 가족들과 본인의 소모임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 활동자들의 이야기이다.

“가족들이 반대하면 이렇게 활동 못하죠. 가장 좋은 점은 어머니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믿어주세요. 동생들한테도 숙제방 아이들 얘기도 종종 하고.....또 동생들이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구요”.

“처음에 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내가 봉사를 갔다와서 더 즐거워하니까 남편도 자식도 모두 좋아해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지만,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지금 나 어디서 무슨 봉사하고 있다고 남편한테 연락도 해주고 그래요”.

“저는 애들한테나 남편한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가정에서 도와줘야 엄마들이 나와서 활동할 수가 있지, 가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활동 못하잖아요”.

다음은 단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자녀교육이나 가정 생활에서도 도움을 받는다는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소모임 활동 하다보면 텃밭과 관련된 정보도 얻지만, 그 외에도 애들 키우는 방법, 음식 만드는 법 등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를 조금씩이나마 알게 돼서 좋아요”.

4) 사회적 관계

<표 4-64>는 활동자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회원들 간 인간관계나 본인의 사회적 관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것이다.

활동자의 49.3%는 ‘회원들이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밀하다’에 대해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12.6%는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회원들간에 경조사를 챙긴다’에 대해 40.1%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활동자의 72.4%는 ‘회원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4.3%에 불과하였다. 활동자의 80%는 ‘소집단 활동으로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

적 응답은 2.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활동자의 73.8%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더라도 지역사회 소집단 활동을 찾아서 하고 싶다’에 대해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어, 그렇지 않다 5.5%에 비해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표 4-64> 단체활동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환산)
회원들이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밀함	3.3	9.3	38.1	36.3	13.0	69.4점
회원들간에 경조사를 챙김	11.0	16.5	32.3	26.8	13.3	63.0점
회원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음	1.8	2.5	23.3	48.6	23.8	78.0점
소집단 활동으로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짐	·	2.2	17.7	54.6	25.4	80.6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지역사회 소집단 활동을 찾아서 하고 싶음	·	5.5	20.6	51.2	22.6	78.2점

<표 4-65>는 단체유형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영향 평가를 나타낸 표이다.

부녀회는 ‘회원들이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밀하다’와 ‘회원들간에 경조사를 챙긴다’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다. 시민단체의 경우는 ‘회원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 ‘소집단 활동으로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졌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지역사회 소집단 활동을 찾아서 하고 싶다’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활동자들의 다음 이야기들은 회원들이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음이 잘 맞고, 한 집안 식구, 형제 같아요. 얼굴을 모르는 동네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다보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렇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표 4-65> 단체유형별 사회적 관계 영향 평가

항 목	평균 (100점 환산)			검증 통계치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회원들이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밀함	67.0	69.8	72.8	F=3.171*
회원들간에 경조사를 챙김	61.0	51.0	77.2	F=40.230***
회원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음	76.2	81.6	78.0	F=3.376*
소집단 활동으로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짐	78.4	83.0	82.6	F=4.823**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지역사회 소집단 활동을 찾아서 하고 싶음	77.2	82.8	75.8	F=5.827**

* P < .05 ** P < .01 *** P < .001

“회원들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너무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가족 같은 관계라고 할 만큼 친밀하게 지내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화 이야기를 하면 “너 무슨 소리하냐, 꿈 깨라”하는데 동아리에 오면 딱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회원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잘해주고, 정서가 잘 맞아요. 유유상종이라고나 할까... 회원들과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좋아요”.

다음의 이야기는 회원들간에 경조사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모임에 불참할 때 벌금 식으로 내는 돈을 친목회비나 경조사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별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특별한 일이 생기면 회원들이 모두 친한 사람들이니까 그 때 사용하려고요”.

활동자들의 다음 이야기들은 회원들간에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회원들이 마치 형제 같아요. 가게를 얻어 함께 운영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신뢰가 생겼어요”.

“회원들간에 많이 친하고, 믿고 신뢰할만한 관계예요. 그게 없으면 모임이 유지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부지만 1박2일 워크샵도 함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활동자의 다음 이야기는 소집단 활동으로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졌다는 예를 보여 준다.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까요. 나이를 먹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대로 집에만 있었다면 굉장히 폐쇄적인 사고를 가졌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 한계를 완전하게 극복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계층이나 다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어요”.

활동자들의 다음 이야기는 지역사회 단체 활동을 일단 경험한 경우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동네로는 1998년에 이사왔어요. 여기로 이사오기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부녀회 회장은 아니지만, 부녀회 활동을 하였고, 지역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어요. 이 동네로 이사오면서 구청에 직접 찾아가서 자치구 주부모니터 자원활동을 시작했어요.”

“나는 이 동네에서 거주한지 13년 됐어요. 큰아이가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될 경우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이사가도 그 동네에서 지역활동을 할 거예요. 구청에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나는 찾아가는 것은 잘해요.”

5) 지역사회

(1) 정주성

<표 4-66>은 지역사회에서의 단체 활동이 활동자의 거주지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 활동자의 62.3%는 ‘활동으로 인해 가능한 이 동네에서 살려고 한다’에 대해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보통이다로 선택을 유보한 응답자는 25.7%,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자는 11.9%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지역사회 단체활동을 통해 활동자들이 지역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면서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생겨서, 대도시 서울의 정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66> 단체활동이 거주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환산)
활동으로 인해 가능한 이 동네에서 살려함	0.7	11.2	25.7	46.1	16.2	73.2점

<표 4-67>은 단체유형별로 활동자의 거주지 선택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 표이다.

단체 유형별로는 부녀회·주부환경연합, 시민단체, 공공문화복지시설 순으로 ‘활동으로 인해 가능한 이 동네에서 살려고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4-40>에서 보듯 활동자들이 현 거주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주연한을 보면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경우 18.3년, 공공문화복지시설은 10년, 시민단체는 9.2년으로 단체 활동자들이 한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지역에서의 장기 거주가 지역사회 단체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역으로 지역사회 단체활동이 활동자의 정주성을 강화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즉 거주기간과 단체 활동 참여가 상호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4-67> 단체유형별 거주지 선택 영향 평가

항 목	평균 (100점 환산)			검증 통계치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활동으로 인해 가능한 이 동네에서 살려함	69.6	75.2	77.4	F=7.699**

** P < .01

활동자들의 다음 이야기들은 단체활동이 거주지역 선택과 우리 동네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애들은 자기네가 학교도 다 졸업하고 아버지 직장도 퇴임했는데 왜 집값이 비싼데서 사느냐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사 안 갑니다. 내가 그동안 여기서 이렇게 지역활동해왔잖아요. 난 늙을수록 외로운 게 싫고 교통 좋고 편리한데서 살고 싶다고 해요”.

“계속 이 동네에서 살 계획입니다. 다들 이 동네 좋으니까 이리 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린 일상생활에서 이웃과 만나는 것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어느 집 엄마가 퇴근이 늦는다 그러면 그 집 아이가 ”아줌마 거기 가도 돼요?“ 해서 같이 밥 먹고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가거나 혹은 잠도 같이 자기도 하고....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저 집 아이가 낚 집 아이인지 아는 정도로 지역성, 공동체성이 회복되면 청소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애 아빠 직장 거리문제 때문에 다른 구로 옮길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태까지 이 동네에서 엄마들과 아이들 만나서 지역활동 했던 것, 주변분들...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이사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구요. 아무래도 남편직장 거리문제로 이사 결정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 제가 고집을 부렸죠. 결국 이 동네내에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2) 지역사회 관심도

<표 4-68>은 단체 활동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평가한 표이다.

활동자의 66.4%가 ‘활동 후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에 대해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5.7%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활동자의 61%가 ‘활동 후에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에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8.5%로 낮게 나타났다. 활동자의 52%는 ‘활동 후에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구의회 등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에 대해 그렇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15.7%로 나타났다.

평점으로 살펴보면, ‘활동 후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가 75.2점으로 가장 높으며, ‘활동 후에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구의회 등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가 69.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68> 단체활동 후 지역사회 관심도 영향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환산)
활동 후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됨	0.7	5.0	28.0	49.8	16.6	75.2점
활동 후에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 높아짐	0.5	8.0	30.6	44.8	16.2	73.6점
활동 후에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구의회 등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게 됨	1.5	14.2	32.3	37.8	14.2	69.8점

<표 4-69>는 단체유형별로 단체활동 후에 활동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한 평가표이다. 활동 후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갖게 된 단체는 시민단체로 80.2점이며, 이어 부녀회·주부환경연합 79.0점, 공공문화복지시설 70.6점으로 나타났다. 활동 후에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커진 단체는 부녀회·주부환경연합으로 79.2점이며, 시민단체가 74.8점, 공공문화복지시설이 69.8점으로 가장

났다. 활동 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커진 단체는 부녀회·주부환경연합으로 80.2점, 시민단체 70.6점, 공공문화복지시설 63.4점이다. 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특히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은 지역행정이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는 시민단체나 부녀회·주부환경연합에 비해 지역사회나 지역행정,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69> 단체유형별 지역사회 관심도 영향 평가

항 목	평균 (100점 환산)			검증 통계치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활동 후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됨	70.6	80.2	79.0	F=16.748***
활동 후에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 높아짐	69.8	74.8	79.2	F=11.557***
활동 후에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구의회 등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게 됨	63.4	70.6	80.2	F=31.315***

*** P < .001

활동자의 다음 이야기를 통해 단체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에 산을 깎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문이 돌았고, 구청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반대 의견을 열렬히 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왠지 미진한 것 같아서 자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단체활동을 통해 지역과 연대해서 하는 일이 많아보니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더라고요”.

“단체활동을 하고 나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결혼해서 왔을 때는 슈퍼도 멀고, 지하철을 타려면 항상 마을버스를 타야해서 교통도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밖에 안했었는데 지금은 제2의 고향같아요. 지역

구석구석의 일도 알고,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과도 결합해서 활동하다 보니깐 지역에 애정이 생기고 지역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활동 후에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이 변화된 예를 보여주는 활동자의 이야기들이다.

“강좌 들으러 다니다 보니깐 동사무소도 꼭 어렵게 생각할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단체활동을 하다가 활동공간이 필요하다보면 동사무소와 많이 연계를 짓게 되더라구요”.

“지역에서 녹색가게를 하거나 숙제방 활동을 하다 보면 관공서랑 접촉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서로 얼굴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 서로 모를 때는 공무원들을 괜히 이상하게 보고, 위압감을 느꼈는데, 서로 친분관계가 쌓여지니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구요. 관공서 자체도 많이 변했고, 저 또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좀 편하게 바뀐 것 같아요”.

“단체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되니까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이 커졌어요. 지역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 이전에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여겨졌던 구 행정에 관심이 가게 되죠. 그리고 구에서 어떤 문화복지사업에 초점을 두는지에 관심이 가고, 구청장이 어느 분야에 관심을 두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는 Y구청장이 오면서 지역의 여성활동이 번창해졌어요. 전에는 구가 어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는데, 단체활동하면서 구청과 접촉하게 되니, 구 행정에 관심이 가더군요. 자연히 구청장과 구의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게 되고, 지역문제도 제기하게 되죠”.

다음은 활동 후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변화된 예를 보여주는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저희 소모임 사람들은 투표는 꼭 해야한다는 참정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누가 되든지 무슨 상관이야 하는 주부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성미산 지키기와 같은 마을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죠. 성미산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지역주민연대에서 구의원에 출마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을축제나 지역행사에 지원이 될 수 있겠죠. 엄마들끼리 아무래도 모여서 선거에 관한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 전에는 공약이 뭔지 관심도 없이 당을 위주로 찍었는데 이번에 기초 단체장 선거할 때는 어떤 공약을 갖고 나오나 꼼꼼하게 챙기게 되더라구요. 소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그때 그때의 사회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지방선거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는거죠”.

“예전에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막연한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는 공약검토를 하게 되고 엄마들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요.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풀던 문제를 집단으로 서로 얘기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들도 구의원이라고 그냥 대충 뽑아서는 안되겠다 하고요”.

6) 여성 및 사회의식

(1) 여성의식

다음 <표 4-70>은 활동 후에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평가한 표이다. 활동자의 60.6%가 ‘활동 후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에 대해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6%로 낮은 편이다.

<표 4-71>은 단체유형별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100점 평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 표이다. 시민단체 활동자가 78.6점으로 단체활동 후에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장 크게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어 부녀회·주부환경연합 74.8점, 공공문화복지시설 71.2점 순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4-70> 단체활동이 여성문제 관심에 미친 영향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환산)
활동 후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됨	0.5	5.5	33.5	44.2	16.4	74.0점

<표 4-71> 단체유형별 여성문제 관심 영향 평가

항 목	평균 (100점 환산)			검증 통계치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활동 후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됨	71.2	78.6	74.8	F=6.986**

** P < .01

다음은 단체 활동을 통해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러 오는 내담자들이 거의 여성, 특히 주부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게 되죠. 저 또한 주부이기 때문에 주부들의 지위, 남편문제, 자녀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몇 년 전 페미니즘 문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독서회에서도 페미니즘 문학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나도 그런 영향을 받았고, 여성과 사회 문제에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신문이나 문화단체에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글을 투고하기도 했어요.

“페미니즘 영화를 보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토론, 특히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해요. 대부분의 영화는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감독에 대한 냉대와 관심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페미니즘 영화가 부족해요. 여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영화가 많이 있었으면 해요.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주부들 시각에서 다큐멘타리를 제작하고 싶어요.”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거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머니들이 자치적으로 하시는 것 보고 놀랐어요. 능력들이 참 많은데 감추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문제는 가정들이 있으시니까 활동이 좀 그렇더라구요. 제가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저분들처럼 할 수 있을까. 활동을 하다가 가족 일이나 시댁에 가야 한다고 빠지는 경우를 보면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2) 사회의식

<표 4-72>는 활동 후에 사회문제나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도 변화를 평가한 표이다.

활동자의 66.5%가 ‘활동 후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에 대해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로 매우 낮다. 그리고 활동자의 70%는 ‘활동 후에 공공시설·기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에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5.2%에 불과하다.

<표 4-72> 단체활동이 사회문제 관심에 미친 영향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 환산)
활동 후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됨	1.0	6.0	26.6	51.1	15.4	74.8점
활동 후에 공공시설·기관에 관심 갖게 됨	0.2	5.0	24.8	54.6	15.4	76.0점

<표 4-73>은 단체유형별로 활동 후에 사회문제나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의 변화를 평가한 표이다.

시민단체는 활동 후에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에 대해 80.4점으로 가장 큰 평점을 나타내었고, 이어 부녀회·주부환경연합 76.6점, 공공문화복지시설 70.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기관에 대한 관심도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이 79.0점으로 가장 높으며, 시민단체 78.7점, 공공문화복지시설 73.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3> 단체유형별 사회문제 관심 영향 평가

항 목	평균 (100점 환산)			검증 통계치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활동 후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됨	70.8	80.4	76.6	F=12.992***
활동 후에 공공시설·기관에 관심 갖게 됨	73.2	78.0	79.0	F=6.282**

** P < .01

*** P < .001

다음은 활동 후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사회를 보는 눈이 많이 변했죠.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가족위주였거든요. 근데 활동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도 사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점들이 보여지더군요. 이러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활동하기 전에 비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됐죠. 엄마들 만나면 하천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샴푸나 세제를 덜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하라고 홍보도 하고, 또 목욕탕에 가서 물을 계속 틀어놓고 쓰는 엄마들이나 아가씨들 보면 물자원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니깐 아껴쓰자는 말도 하구요”.

“많은 주부들이 오로지 어떻게 하면 집을 더 큰 걸로 늘릴까, 우리 아이는 점수가 조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활동하기 전에는 애들 방학하면 어디로 놀러갈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숙제방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 애들 부모님은 맛별이 하시는데 하는 식으로 바뀌더라구요. 그러다 보면 그 애들을 위해 구청홈페이지에 가서 글 하나라도 더 남기게 되구요”.

다음은 활동 후에 공공시설·기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좋은 공공시설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놀리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눈에 보이다 보니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연락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공시설들이 많이 친숙하게 느껴져요”.

“이전에는 단순한 건물로 보였던 공공시설들을 막상 이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시설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돼요”.

4. 활동의 장애요인 및 희망 지원책

1) 장애요인

<표 4-74>는 단체활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이다.

가족차원의 장애요인으로는 집안 일과 가족의 이해와 지지에 관한 문항이 있다. ‘집안 일로 참여에 애로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9.2%,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4.8%로 나타나, 집안 일로 인한 참여의 애로점은 다른 애로점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활동에 남편과 자녀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는 그렇다는 응답이 80.4%, 그렇지 않다는 3.0%로 가족의 이해와 지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차원의 장애요인은 경제활동과의 병행 어려움과 회원모집의 어려움에 관한 문항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활동하기가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은 60.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5.3%로 나타나 경제활동과 단체활동을 병행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회원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1.1%,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12.1%로 나타났다.

100점 평점을 기준으로 할 때 단체 활동에 있어 남편과 자녀의 이해와 지지에 대한 중요성이 8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집안 일로 인한 참여의 애로점은 63.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74> 단체활동의 장애 요인 평가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환산)
집안 일로 참여에 애로점이 있음	5.7	19.1	36.0	32.3	6.9	63.2점
활동에 남편과 자녀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함	0.5	2.5	16.6	45.0	35.4	82.4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활동하기가 힘들	2.0	13.3	24.6	47.1	13.0	71.2점
회원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1.3	10.8	37.0	40.3	10.8	69.8점

<표 4-75>는 단체유형별 활동의 장애요인을 나타낸 표이다.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경우는 집안 일로 인한 참여 애로점이 다른 두 단체에 비해 가장 높다. 시민단체는 활동에 남편과 자녀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회원모집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문화복지시설은 시민단체나 부녀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에 장애를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이야기는 집안 일로 단체 활동에 애로점을 겪는 활동자의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모임 활동이 우선이 되느냐, 집안 일이 우선이 되느냐... 두 가지가 겹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가 참 어려워요. 주부들 활동이니까 경우에 따라선 단체 일을 선택할 때도 있지만, 집에서 내가 없으면 안되는 일의 경우는 집안 일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런 것이 활동의 가장 큰 제약점인 것 같아요”.

<표 4-75> 단체유형별 활동 장애요인 평가

항 목	평균 (100점 환산)			검증 통계치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집안 일로 참여에 애로점이 있음	59.6	64.2	68.2	F=6.684**
활동에 남편과 자녀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함	81.6	86.4	80.4	F=4.008*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활동하기가 힘들	68.6	73.6	73.2	F=3.304*
회원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64.8	74.4	73.6	F=14.538***

* P < .05 ** P < .01 *** P < .001

“집안 일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원봉사자분들은 유동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애들이 어리면 집안 일이 많잖아요. 그런 반면 아이들이 큰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은 집안 일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조건이 되어서인지 지역의 봉사활동으로 결합이 잘 되더라구요”.

활동자의 다음 이야기는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가 활동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 남편이 돈도 안되는 일에 매달린다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 교육을 위한 사회활동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내가 너무 바쁘게 활동하니까 애들도 제대로 봐주지 못하고 해서 갈등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족들의 욕구에 맞게 시간조절을 잘 하고 있어서 갈등도 해소되었고,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활동시작 초기에는 아이들과 남편들도 좋아하다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서 바빠지자 남편과 아이들이 반대했어요. 지금은 애들이 성장하여 엄마가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남편도 활동하기를 잘했다고 해요. 당시 가족들의 반대로 활동을 중지했다면 다시는 활동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죠. 남편이 지역활동에 더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지만 해주고 참여는 안해요. 그래도 도서관 봉사하는 일에 제가 시간이 안될 때 남편이 두 번 정도 와서 대신 봉사를 해준 적은 있어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정 일이 조금은 소홀해지죠. 저도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집안 식구들도 저의 활동에 대해 이해해 주는 편이에요”.

“초창기에는 남편이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요. 전업주부로 있었던 사람이 날짜 정해서 자주 나가고 하니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 일에 지장 없도록 시간을 조절해서 하고, 남편도 내가 상담일로 나간다고 하면 내 스케줄로 잡아주고 그래요. 애들 관리 때문에 저는 오전시간으로 상담을 맡았고, 아이들이 다 큰 엄마들은 오후 상담을 맡으셨어요“.

“처음 여성학 소모임 할 때는 남편이 너 그거 나쁜 것 아니냐 하면서 농담반 진담반 얘기를 하더니만 이번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애도 봐주고, 시간이 안맞아 내가 아이를 데려가야 할 때는 일이 끝나면 중간에라도 와서 애들 데려가주고, 거기 있던 다른 엄마 아이까지도 봐주고 그래요”.

“남편이 지지 안해주면 어려워요. 처음에는 맨날 투덜거리기에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서 놀겠다고 하니깐 노는 것보다는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하대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지원해줘요.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도 있고 밤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그럴 때 이해 안해주면 힘들잖아요. 우리 아들도 처음에는 엄마 오늘도 또 나가냐고 뭐라 하더니만 이제는 자기 친구들한테도 우리 엄마는 봉사활동을 한다며 자랑하더군요”.

“제가 활동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남편한테 제 수첩을 확 펼쳐놓고 활

동 스케줄을 보여주죠. 남편하고 애들이 묵묵히 안 도와주면 활동을 못하죠. 부녀회 상주는 것을 남편과 가족들이 받았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다음은 회원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연극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인지 단원 모집이 잘 안되고 있어요. 애가 초등학생인 경우는 애를 봐줘야 해서 그렇고, 고학년인 경우는 과외비, 학원비라도 벌자 해서 부업을 하거나 직업을 갖게 되면 활동을 그만두시더라구요. 원래의 계획은 1기, 2기... 이런 식으로 모집해서 기수 별로 특색을 가지고 환경뿐만 아니라 청소년문제나 여성문제 등 다양하게 하자고 계획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으로 환경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하천살리기에 대한 이론강의를 해요. 그 때는 엄마들이 우리 단체 활동에 관심을 갖는데, 함께 하천에 나가 우리가 직접 정화신고 하천에 들어가서 생태계를 살펴보고 어떤 종류의 풀이 있나, 공장 폐수는 어떤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할 것들에 대해 얘기할 때는 엄마들이 이거 어렵겠는데 하는 표정으로 단체 참여에 반응이 없더라구요. 신규회원이 안들어와서 창단회원 만으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2) 지원책

(1) 타 단체와의 교류 희망

<표 4-76>은 타 단체와의 교류에 대한 희망 정도를 나타낸 표이다.

활동자의 69.2%가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6.9%로 매우 낮다. 그리고 활동자의 56.9%는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과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활동자의 52.1%는 ‘여성·시민단체와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45.5%는 ‘외국의 여성단체와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 4-76> 타 단체와의 교류 희망 정도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환산)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음	1.2	5.7	23.8	48.1	21.1	76.4점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과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음	1.5	9.5	32.1	40.9	16.0	72.0점
여성·시민단체와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음	2.0	10.5	35.3	36.6	15.5	70.6점
외국의 여성단체와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음	3.0	16.8	34.7	32.4	13.1	67.2점

<표 4-77>은 단체유형별 타 단체와의 교류 희망 정도를 나타낸 표이다. 시민단체의 경우는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의 정보획득 요구와 연계활동 요구, 여성시민단체 혹은 외국 여성단체와의 연계활동 요구 등 모든 항목에서 희망 수준이 가장 높았다. 반면, 부녀회의 경우는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에 대한 정보획득 요구와 연계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은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에 대한 정보교류를 원하는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갇히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거든요. 활동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한다면 모임 자체가 발전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요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다른 청년모임들에는 어떤 모임들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다양한 모임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교환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모임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표 4-77> 단체유형별 타 단체와의 교류 희망 정도

항 목	평균 (100점 환산)			검증 통계치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음	76.0	84.6	69.6	F=21.350***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과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음	72.4	76.8	67.2	F=7.326**
여성·시민단체와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음	69.4	73.4	70.0	F=1.478
외국의 여성단체와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음	66.4	69.2	66.4	F=.703

** P < .01

*** P < .001

다음 이야기는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과 현재 연계하여 활동하거나 혹은 향후 연계하여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예이다.

“자원봉사센터내의 다른 환경 동아리와 이론공부도 같이 한 적이 있고, 캠페인도 같이 했었어요. 올 초에는 강남서초지부, 강동송파지부 단체가 함께 탄천에 철새조사하러 갔었는데, 강남서초쪽에서는 중학교 환경반 학생들이 나왔고, 강동송파쪽에서는 환경동아리 2개 단체가 함께 갔었어요. 또 환경지킴이라고 자원봉사센터 소속 여고 학생들하고도 하천에 나가서 함께 활동한 적이 있구요”.

“인터넷에 들어가기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연극을 보러가서 그 극단들과 얘기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현재 세 군데 극단과 접촉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과 맞는 단체와 함께 활동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해요”.

“연대해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죠. 저희가 여성학 소모임이다 보니깐 페미니즘에 관심있는 영화소모임이나 주부독서모임과 같은 소모임과 연계해서 만남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구에 환경단체가 하나 둘 생기면서 지역내의 환경단체들을 끌어들

여서 지금 5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운동연합회, 그리고 두 군데는 녹색사업장이라고 세차업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행동으로 환경운동을 해줘야 하는 단체들이거든요. 세 개 단체가 지역을 나누어 책임을 맡아서 정화활동을 하고, 사업장 하시는 분들은 실천활동을 하고 있어요”.

(2) 시설 및 교육, 사업 지원

<표 4-78>은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교육 지원, 사업비 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나타낸 표이다.

활동자의 78.9%는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77.6%는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좌 지원이 필요하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활동자의 71.2%는 ‘강사지원 및 강사정보 제공이 필요하다’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76.6%는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4-79>는 단체유형별로 시설 및 교육, 사업비 지원에 대한 필요도를 나타낸 표이다. 단체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의 지원 요구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문화복지시설,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8> 시설 및 교육, 사업비 지원 필요도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환산)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이 필요함	0.2	3.0	17.9	44.4	34.5	82.0점
필요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강좌 지원 필요	0.7	2.0	19.7	46.3	31.3	81.0점
강사지원 및 강사정보 제공이 필요함	1.0	4.2	23.6	42.3	28.9	78.8점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함	1.0	3.7	18.7	40.4	36.2	81.4점

시민단체의 경우는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좌지원과 강사지원 및 강사정보제공의 요구수준이 가장 높았고,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는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요구가 높았으며,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은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요구사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4-79> 단체유형별 시설 및 교육, 사업비 지원 필요도

항 목	평균 (100점 환산)			검증 통계치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이 필요함	82.0	87.4	77.0	F=11.437***
필요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강좌 지원 필요	81.0	89.8	73.6	F=30.320***
강사지원 및 강사정보 제공이 필요함	77.8	88.6	71.6	F=28.328***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함	80.6	87.8	77.2	F=10.362***

*** P < .001

다음은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좌지원, 강사지원 및 강사 정보제공의 필요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시민단체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회원들의 가장 큰 욕구는 받고 싶은 연수나 강좌 개설을 해 주셨음 하는 거예요. 책말고는 전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한계점인 것 같아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직 교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강사비가 만만치 않고 장소 사용료도 비싸구요”.

“상당 재교육을 받기 위해 강사비를 우리가 부담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일년에 한번씩 단체차원에서 하는 전체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강남까지 가야 하거든요. 그럴 때도 상담실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깐 부담이 되더라구요. 우리 자체 내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강사 지원이 있었음 좋겠어요. 연기지도를 많이 못 받으니까...저희 수준에서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연기지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임을 꾸리다 보니까 저희가 택했던 텍스트북들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교재도 있었는데, 공부하다가 난해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강사분을 모시자니 강사비가 많이 들고... 저희가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난점에 부딪혔을 때 강사를 지원해 준다면 저희 같이 이런 자발적인 소모임한테는 참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저희 소모임은 다들 취업주부이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모임을 갖거든요. 우리같이 저녁에 모이는 소모임에도 주민자치센터처럼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강사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정도 시간대에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마땅한 강사를 싼 가격에, 주민자치센터의 수준 정도로 할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 달라 요구하면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 말예요”.

다음은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요구가 높은 공공문화복지시설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동사무소 지하에 주방과 식당이 있는데 너무 낙후돼서 불결해요. 거기를 좀 정비해서 봉사를 기쁜 맘으로 할 수 있게 주방시설을 리모델링 해주시는 것이 소원이예요. 우리가 거기서 급식봉사도 하고 밑반찬 봉사 준비도 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재료비 지원을 해 주면 양도 양이지만 질을 높일 수 있어서 좋지 않겠나 생각하죠. 다들 어렵게 사시니까 고급빵이나 맛있는 빵을 먹어 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제가 작년 겨울에 가봤는데 불편한 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시선을 싫어해서 상가에 나다니기를 싫어하고, 또 형편도 어려우니까 우리는

흔하게 보는 케익인데도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을 보니깐 질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요”.

다음은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 요구가 높은 부녀회·주부환경연합 활동자의 이
야기이다.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사실 움직이려면 사업비가 필요하잖아
요, 할 일이 많은데 돈이 좀 잘 안 따라주니깐...우리 구는 그래도 돈 때문에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럭저럭 굴러갈 정도는 돼요”.

(3) 활동 기회 제공

<표 4-80>은 활동자들이 단체 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활동 기회 제공을 어느 정
도 중요하게 평가하는지를 나타낸 표이다.

활동자의 59.4%는 ‘서울시나 자치구의 공모전, 경연대회, 자원봉사축제 등의 공공행
사가 소집단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에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평
가를 하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을 하는 경우는 11.9%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
이다. 활동자의 59.9%는 ‘소집단 관련 축제 및 경연대회, 공모전 개최 등이 필요하다’
에 대해 그렇다라고 평가하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9.2%로 낮게 나타났
다. 활동자의 79.8%가 ‘주부들에게 지역사회 활동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에 대해 그렇
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4.2%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80>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 기회 제공의 필요성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보 통	그렇다	매 우	평균 (100점환산)
	그렇지 않다	않다	이 다		그렇다	
서울시나 자치구의 공모전, 경연대회, 자원봉사축제 등의 공공행사가 소집단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함	0.7	11.2	28.7	46.4	13.0	72.0점
소집단 관련 축제 및 경연대회, 공모전 개최 등이 필요함	1.0	8.2	30.9	41.4	18.5	73.6점
주부들의 지역사회 활동기회 제공이 필요함(예: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활동 등)	0.5	3.7	16.0	46.4	33.4	81.6점

<표 4-81>은 단체유형별로 활동 기회 제공 필요성을 보여주는 표이다.

부녀회·주부환경합은 ‘서울시나 자치구의 공모전, 경연대회, 자원봉사축제 등의 공공행사가 소집단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소집단 관련 축제 및 경연대회, 공모전 개최 등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단체는 ‘주부들에게 지역사회 활동기회 제공이 필요하다’에 대해 가장 높은 평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4-81> 단체유형별 활동 기회 제공의 필요성

항 목	평균 (100점 환산)			검증 통계치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서울시나 자치구의 공모전, 경연대회, 자원봉사축제 등의 공공행사가 소집단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함	68.6	72.8	76.8	F=8.064***
소집단 관련 축제 및 경연대회, 공모전 개최 등이 필요함	75.4	77.6	67.0	F=11.330***
주부들의 지역사회 활동기회 제공이 필요함(예: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활동 등)	81.2	89.6	75.4	F=21.836***

*** P < .001

다음은 서울시나 자치구의 공모전, 경연대회, 자원봉사축제 등의 공공행사가 소집단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공모전에 단체 출전한다든지 전시회를 연다든지 하는 것이 활동 지속성과 전문성에 도움을 주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단체로 구청장배 탁구대회에 나가보자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게 돼요”

“타구 자원봉사축제에도 같이 참가했었고, 우리 구 자원봉사축제에도 참가했었어요. 축제에 참가해서 입상한 경험은 없지만 회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다음은 주부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엄마들을 믿고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졌음 좋겠어요. 여러 공공시설들이 인건비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마들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봉사활동이 지역복지와 결합이 돼서 여성들한테도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동네의 복지공간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도서관 활동을 토대로 엄마들끼리 우리동네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 연극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다보니 저희 구에는 왜 그런 기회가 없나, 왜 멀리 타구까지 가서 해야 하나 우리 구도 있을텐데 싶어서 구청에 계신 분한테 우리 구에서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음 좋겠다고 건의는 했는데, 우리 구에는 노인복지관이 없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서 동네 아이들 독서지도를 하고 싶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강좌가 개설되었어요. 저 때문에

다른 분들도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서 활동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은 회원들이 여기저기서 아이들 독서지도를 하고 계세요”.

(4) 행정의식 변화와 홍보

<표 4-82>는 여성들의 지역사회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 의식변화와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평가한 표이다.

활동자의 77.6%는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76.6%는 ‘여성 소집단에 대한 사례소개 및 홍보가 필요하다’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표 4-82> 단체활동과 관련한 행정의식 변화와 홍보의 필요성

단위 : %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100점환산)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함	0.7	2.5	19.2	40.3	37.3	82.2점
여성소집단에 대한 사례소개 및 홍보 필요	0.5	2.0	20.9	51.0	25.6	79.8점

<표 4-83>은 단체유형별로 행정의식 변화와 홍보의 필요성을 나타낸 표이다.

단체유형별로는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와, 여성소집단에 대한 사례소개 및 홍보의 필요에 대해 시민단체의 요구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문화복지시설,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3> 단체유형별 행정의식의 변화와 홍보 필요성

항 목	평균 (100점 환산)			검증 통계치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함	80.6	91.2	76.6	F=23.776***
여성소집단에 대한 사례소개 및 홍보 필요	79.2	85.0	76.2	F=9.154***

*** P < .001

다음은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저희는 이런 일로 활동합니다하고 전화 드리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세요. 좀 열려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차피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관이니깐 주부들이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해요. 저희도 돈 받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사기가 많이 꺾이기도 해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 결정해서 집행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또 처음에는 엄마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꼭 해야되는 거냐, 꼭 할 수 있겠느냐, 하긴 뭘 하겠느냐 하는 식의 태도였다가 저희들의 활동을 쭉 지켜보니까 태도들이 많이 변하셨어요.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참여가 잘 안 이뤄진다고 하지만 반대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긍정적으로 유도해 주는 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구의 공무수행평가가 우수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한테는 그런 평가점수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을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할 때 행정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조례가 없다, 관례가 없다, 다른 데는 안한다는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사례를

찾아내서 다른 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안하냐 하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참 많고, 그게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거 같아요. 우리가 바자회 할 때에 행정에서 나와서 천막도 같이 설치해 주고 하면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돼요. 행정하고 함께 함으로써 관의 문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보여져서 좋고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관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시켜 줄 수 있어서 좋아요”.

다음은 여성 소집단에 대한 사례소개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활동자의 이야기이다.

“활동 안하시는 분들에게 활동을 권유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공신력이 있는 방송에서 지역사회의 활동 단체들을 홍보해 주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런 것도 있구나... 이웃의 아는 사람이 그걸 본다면 저번에 가자고 한게 바로 저런 것이었구나하고 인식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5) 지원 우선 사항

<표 4-84>와 <표 4-85>는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여성 소집단 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1순위와 2순위 사항을 나타낸 표이다.

1순위로는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좌 지원’과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이 각각 26%, 24.1%, 23.9%로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는 ‘장소 제공 및 시설 장비, 재료 등의 지원’, 주부들의 지역사회 활동기회의 제공’이 각각 19.8%, 19.6%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 1순위로는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좌 지원’ 27.7%,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 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

위로는 ‘주부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의 제공’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 18.9%,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 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의 경우, 1순위로는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좌 지원’ 27%,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 18.4%, ‘강사지원 및 강사정보 제공’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의 경우 1순위로는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좌 지원’ 21.9%,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 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주부들의 지역사회 활동기회의 제공’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 15.8%,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 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4> 소집단 활동 관련 행정 우선 지원 사항 (1순위)

단위 : %

항 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합계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좌 지원	27.7	27.0	21.9	26.0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	15.3	35.0	29.2	24.1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	28.2	21.0	18.8	23.9
비슷한 분야의 다른 소집단 활동 정보제공	9.0	6.0	9.4	8.3
주부들의 지역사회 활동기회의 제공 (예:주민자치센터 강사활동 등)	5.6	4.0	14.6	7.5
행정공무원들의 인식변화	4.0	2.0	6.3	4.0
강사지원 및 강사정보 제공	4.5	3.0	·	2.9
소집단 관련 축제 및 경연대회, 공모전 개최	4.5	1.0	·	2.4
여성소집단에 대한 사례소개 및 홍보	0.6	·	·	0.3
기타	0.6	1.0	·	0.5
합 계	177	100	96	373

<표 4-85> 소집단 활동 관련 행정 우선 지원 사항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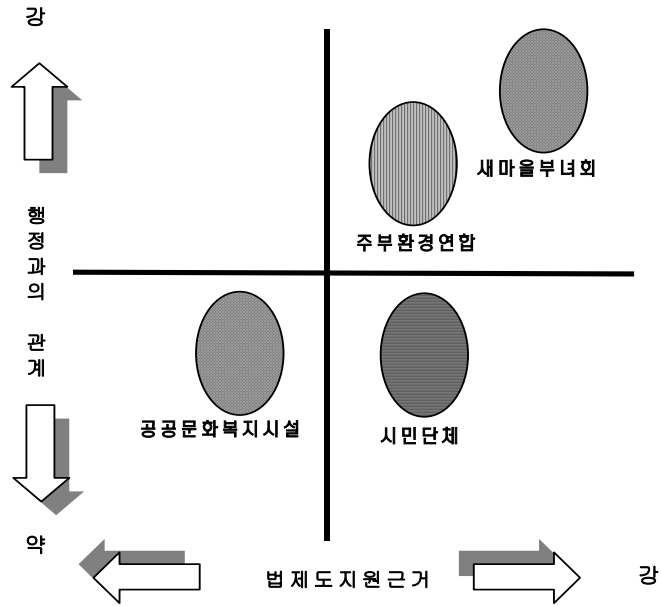
단위 : %

항 목	공공문화 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	합계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좌 지원	11.4	11.2	12.6	11.7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	13.1	18.4	13.7	14.7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	18.9	25.5	15.8	19.8
비슷한 분야의 다른 소집단 활동 정보제공	5.7	2.0	3.2	4.1
주부들의 지역사회 활동기회의 제공 (예:주민자치센터 강사활동 등)	21.1	15.3	21.1	19.6
행정공무원들의 의식변화	9.1	8.2	12.6	9.8
강사지원 및 강사정보 제공	8.6	16.3	6.3	10.1
소집단 관련 축제 및 경연대회, 공모전 개최	5.1	1.0	2.1	3.3
여성소집단에 대한 사례소개 및 홍보	6.9	2.0	10.5	6.5
기타	.	.	2.1	0.5
합 계	175	98	95	368

제4절 요약 정리

1. 소집단 유형과 활동기반의 근거

본 장에서는 서울 여성의 소집단 활동 실태조사를 위해 세 가지 통로로 여성 소집단에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1990년대 들어 자치구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 공공문화복지시설 조사를 통해 여성 소집단 실태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해당되거나, 또는 법인 형태의 시민사회단체 조사를 통해 여성 소집단 실태를 파악하였다. 세 번째는 행정주도로 단체가 결성된 새마을 동부녀회와 자치구 주부환경연합을 통해 여성 소집단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여성 소집단은 모임의 출발이나 활동기반에 있어 행정과의 관계나 법제도 지원 근거에 차이가 있으며, <그림 4-2>는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2> 단체유형별 행정과 법제도 지원의 관계 정도

새마을 동부녀회와 주부환경연합은 행정 주도로 결성된 단체인 만큼 자치구 행정과 매우 밀착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모임 장소도 주민자치센터나 자치구에서 제공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의 경우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법적으로 육성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이므로, 법제도 차원에서 행정지원을 가장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자치구 주부환경연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제도 차원의 지원근거는 새마을 부녀회에 비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 소집단은 시민단체 주도나 지원을 받아 결성되었고, 모임장소나 정보교류의 장으로 시민단체 사무실이나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소집단 활동내용이 시민단체의 활동이념을 반영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소집단 활동자들이 시민단체의 회원이 되거나 시민단체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법제도상 사단법인 등록이나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등록으로 행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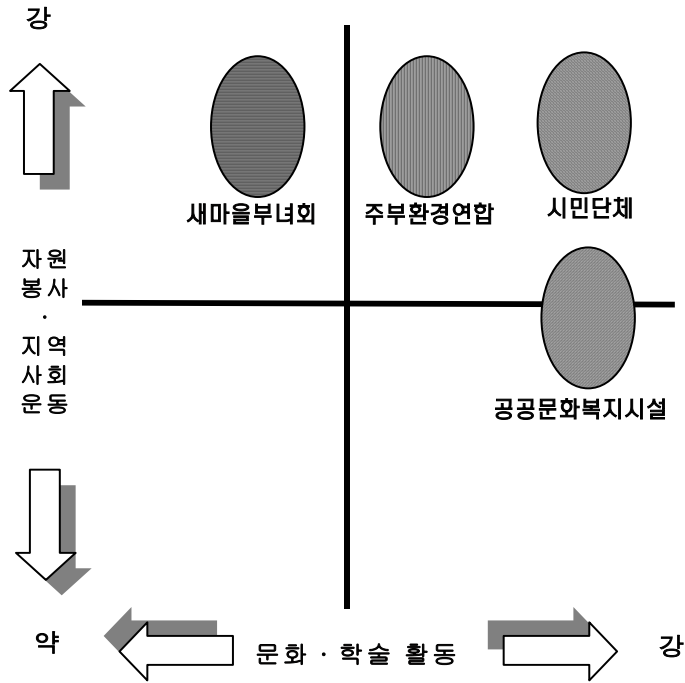
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진다.

시나 자치구의 재정지원을 받아 민간기관이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의 교육강좌를 계기로 소집단이 결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모임장소로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문화복지시설 운영기관에서도 시설의 홍보나 이미지 관리, 운영관리면에서 소집단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최근 인식하여 시설내의 소집단 결성과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문화복지시설 운영은 시설별 관련법에 의해 건립 운영되지만, 이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소집단에 대한 법제도상의 지원근거는 없다.

세 유형의 소집단이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 밀착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소집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활동자들은 직·간접적으로 행정과 접촉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 동부녀회와 주부환경연합은 자치구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활동을 하고 있어, 행정과의 밀착도가 가장 높은 단체이다. 시민단체 소집단의 경우에도 자치구나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과 직접 연계하여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시민단체가 행정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과 접촉하게 된다. 공공문화복지시설 소집단의 경우 자치구 사업에 소집단이 단체차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자가 중간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2. 소집단 활동내용

공공문화복지시설 소집단, 시민단체 소집단, 새마을 동부녀회와 주부환경연합의 활동내용은 단체 유형에 따라 활동내용의 중점에 차이는 있으나 문화·학습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운동의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 <그림 4-3>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3> 단체 유형별 활동내용

새마을 부녀회의 경우 주로 노력 자원봉사나 불우이웃돕기 기금조성을 위한 판매 활동형 자원봉사활동에 치중하고, 학습활동은 미약하다. 이에 비해 주부환경연합은 자원봉사형태의 환경사업이나 캠페인 형태의 환경운동에 참여하면서 환경단체의 성격상 환경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활동도 하며, 불우이웃 돕기 기금조성을 위한 판매활동형 자원봉사활동도 때때로 하고 있다.

시민단체 소집단은 지역·사회운동과 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활동에 중점을 두고 일부 자원봉사활동도 병행하는 경우와, 자원봉사에 중점을 두면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문화·학습활동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문화복지시설 소집단은 문화·학습활동에 중점을 두지만 활동과 관련해 때때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문화·학습활동이나 또는 자원봉사활동만을 하는 경우가 있다.

3. 조직 구성

소집단의 조직 규모는 대부분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나 회원 수 30명 이내 수준에서 조정되고 있다. 매년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별 단위로 활동하여 30명의 안팎의 회원들이 수평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 수는 적으나 단체 활동을 위해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의 직책으로 조직구성을 하여 회원들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

4. 지역 공동체와 계층 교류

대부분의 소집단은 회원들이 같은 자치구나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도 지역사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소집단 활동자의 62.3%가 활동으로 인해 가능한 현 거주지에서 살겠다고 하며, 66.4%가 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활동자의 현 거주지 거주연한이 10년 이상이 되고 있고, 계속 거주 의향도 높은 편이어서 소집단 활동자의 정주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소집단 활동을 통해 회원 가족 간의 교류가 일부 일어나고 있어 여성 소집단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공동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집단은 경제적으로 비슷한 계층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연령층은 다양하다. 그러나 소집단 활동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농민, 노인 등의 다양한 계층과 접촉 교류하고 있다.

5. 단체 및 지역 네트워크

일부 소집단은 단체간 연대활동을 하고 있으나 단체간 연대 수준은 현재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자치구나 주민자치센터 외에 소집단이 지역사회 기관 중에서 연계를 갖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학교를 들 수 있으나 활발하지는 않다. 현재 소집단의 단체간 및 지역 네트워크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활동자들이 단체간 교류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있으면 향후 단체간, 지역 네트워크가 확장될 가능성

이 크다.

6. 소집단 활동자의 개인적 특성

여성 소집단 활동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자녀 양육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40대의 종교를 가진 중산층 고학력 전업주부로 요약할 수 있다. 소집단 활동자는 여타 단체활동 참여도 활발한 편이며, 평생교육강좌 참여도 활발한 편이다.

7. 소집단 활동의 영향과 결과

소집단 활동을 통해 여성들은 정신적 성장과 신체적 건강을 경험하고, 활동 분야의 전문성을 갖게 되어 개인의 인적 자원을 향상시키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 확장, 지역행정과 지역사회 관심 확대, 여성의식과 사회의식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 차원에서는 소집단 활동으로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8. 희망 지원 사항

여성 소집단 활동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지원 사항은 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강좌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장소·시설장비·재료 지원, 지역사회 활동기회의 제공이다.

第 V 章 정책제안

1. 평생교육을 통한 소집단 결성과 활성화 전략
2. 지원체제 구축
3. 교류 공간의 활성화
4. 지역사회 활동 기회 제공과 확대
5. 대상별 소집단 활동 지원 전략
6. 자원봉사활동 보상 지원체제 다양화

제 V 장 정책 제언

1. 평생교육을 통한 소집단 결성과 활성화 전략

1)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지역사회 소집단 결성과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소집단 활동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공문화복지시설 소집단 활동자의 56.7%, 시민단체 소집단 활동자의 19.8%, 부녀회·주부환경연합 활동자의 21.5%가 공공문화복지시설의 강좌수료를 계기로 소집단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활동자의 42.1%가 민간, 공공의 평생교육 강좌 참여가 계기가 되어 소집단 활동을 시작하고 있어, 여성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소집단 결성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나 자치구가 소집단 활동을 위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우선적 희망사항에 대해 활동자의 28.9%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강좌 지원이나 강사 지원 및 강사 정보제공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990년대 들어 자치구 단위로 증가하기 시작한 공공문화복지시설이 지역사회 주민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당위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공문화복지시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향이 평생교육강좌를 단순히 제공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 단체 결성 유도과 이러한 활동을 위한 지원 장소, 즉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 여성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러한 방향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공공시설 종사자 연수교육 실시

공공시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 소집단 결성과 활성화에 공공시설 운영자의 운영 방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에서의 소집단 활동이 현재 활발하지는 않으나, 공공시설 운영자들은 소집단 활동의 중

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 운영자의 78.2%가 소집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연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¹⁾. 따라서 공공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집단 활동의 중요성, 소집단 운영관리방법, 매뉴얼 개발 등과 관련된 연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소집단 결성과 지원책

① 활동자 대상의 조직운영 및 리더십 교육 지원과 제공

소집단 활동자의 대부분은 사회생활과 유리된 전업주부로 활동하다가 자녀가 초등학생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소집단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 활동이나 조직 운영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단체 운영이나 리더십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소집단 활동자 대상의 조직운영 및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② 전문 교육강좌와 강사 지원

소집단 활동을 하면서 활동 전문성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적으로 전문강좌에 참여하거나, 단체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가령 환경운동 단체나 상담의 경우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학습이나 실험이 있는데,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 주부들이 자원봉사나 지역사회운동을 하면서, 전문교육을 위한 비용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 소집단 활동과 관련해서 전문교육 및 강사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③ 소집단과 여성학 강좌 접목

현재 여성정책관실에 실시하고 있는 여성학 강좌와 소집단 활동을 접목한다. 가령 영화 소집단 활동자들이 여성과 영화라는 주제의 여성학 강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위의 책

하고, 이들이 여성학 강좌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용과 연극, 환경, 스포츠, 다양한 분야별로 여성을 주제로 하는 여성학 프로그램을 소집단 활동자들이 개발하고, 이들이 직접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지원체제 구축

1) 서울시와 서울 여성 플라자 역할

① 민관협력사업 장려와 지원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서 지역사회 여성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업을 할 경우, 또는 민관협력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자치구의 경우 사업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여성 단체와 자치구가 협력사업을 하도록 장려와 지원을 한다.

② 자치구 평가

서울시는 자치구에 대해 지역사회 여성단체와 자치구 행정간의 파트너십 평가를 하고, 우수한 자치구 사례를 홍보한다.

③ 공공문화복지시설 지원 역할

서울 여성 플라자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이 지역사회 여성 소집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 종사자 연수교육, 전문 교육 강좌 지원, 활동에 필요한 상담, 행정정보 제공을 한다.

④ 단체간 연계의 매개 역할

활동자의 56.9%가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과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으며, 52.1%는 여성단체·시민단체와 연계활동을 하고 싶으며, 45.5%는 외국의 여성단체와 연계할

등을 하고 싶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여성 플라자는 다양한 유형의 여성단체 활동의 정보기지 역할을 하면서, 소집단이 단체 간 교류와 연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제반지원을 한다.

⑤ 공공문화복지시설과 시민단체의 연계 지원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공공의 문화복지시설은 그 시설 수가 지역단위로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 여성들이 거리적,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쉽다. 자원봉사센터나 공공기관의 평생교육 강좌를 통해 여성 소집단이 결성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형성된 소집단과 시민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연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한다.

⑥ 지역사회 여성 단체활동 홍보

활동자의 76.6%가 여성 소집단 활동에 대한 사례소개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활동자의 36.1%가 아는 사람의 권유로 소집단에 참여하고, 15.2%는 직접 찾아가서 가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자의 51.1%는 회원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만약 공신력 있는 방송매체나 기관지를 통해 여성의 지역사회 단체 활동이 홍보가 되면, 활동자들은 회원 참여 권유를 하기가 쉬워지고, 일반인과 공무원, 가족이 여성의 지역사회 단체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활동자들은 홍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단체 활동이 지역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⑦ 우수 활동 사례집 발간과 배포

여성 소집단 활동에 모델 및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활동사례집을 발간하여 지역사회 여성단체나 공공문화복지시설, 시민단체, 자치구 등에 배포한다. 특히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에 일선 행정기관에 있는 자치구나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 대응

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으므로 자치구 공무원 대상의 홍보나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⑧ 여성 자원봉사센터의 중추 기관

서울시 여성 플라자는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여성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성 봉사자 교육실시 및 자원봉사센터 상근 실무자 연수교육 등의 중추 역할을 한다.

2) 자치구의 지원 역할

① 자치구 행정지원 체계의 일원화

자원봉사나 지역사회에서 활동처를 찾는 여성 소집단 활동자가 많으나, 이에 대한 자치구의 행정 대응체제가 미비하여, 공무원의 개별 성향에 따른 대응방식이 다르다.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의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한 행정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 주민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구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②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기능 강화

현재 25개 자치구 단위로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처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동 희망자와 활동처를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봉사활동자가 관심있는 분야에서 소집단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자원봉사 소집단이 연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매개 역할을 한다.

③ 활동에 필요한 장소와 기자재 지원

자치구가 부녀회와 주부환경연합에 대해 활동 공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나 시민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경우 활동에 필요한 장소나 기자재 제공 등의 지원을 해 준다.

④ 지역사회 네트워크 결성의 매개 역할

자치구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차원에서 소집단이 지역사회 학교 등의 여타 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소집단과 지역사회 기관들이 교류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

3) 지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①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18조 단체의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사회 소규모 여성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한다. 지역사회 여성 소집단에 대한 기준 및 일정요건이나 자격심사를 통해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만들어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3. 교류 공간의 활성화

1) 소집단 교류의 장 개최

① 경연제, 공모전, 박람회 개최

활동자의 59.4%가 서울시나 자치구의 공모전, 경연대회, 자원봉사축제 등의 공공행사가 소집단 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59.9%가 소집단 관련 축제나 경연대회, 공모전 개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자치구나 서울시는 여성 소집단 경연제, 공모전, 박람회 등의 다양한 형태의 페스티벌을 개최하거나 지원한다. 단체간 교류를 통해 만난 소집단 활동자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 분야의 페스티벌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록 지원한다.

② 활동 발표회와 세미나 개최

여성 소집단 활동자들이 활동사례 발표회 및 분야별, 분야간 교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가족 교류의 장 개최 지원

① 가족 단위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활동자의 80.4%는 활동에 대한 남편과 자녀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활동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행사에 관심과 참여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 간의 교류모임을 통해 지역사회 커뮤니티 의식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서울시와 여성 플라자는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② 가족 모임 행사 개최와 지원

자치구는 공공문화시설 등에서 소집단 활동을 하는 지역여성들의 가족 모임 행사를 1년에 1-2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한다.

3) 사이버 정보 교류의 장 활성화

① 공공문화복지시설 홈페이지에 여성 소집단 게시판 설치

시민단체 여성 소집단의 경우 시민단체 홈페이지의 소모임 게시판을 통해 회원모집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공문화복지시설 소집단의 경우 이러한 활동이 거의 없다. 공공문화복지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 소집단이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여성단체 관련 DB 구축과 정보 제공

활동자의 69.2%가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 플라자는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DB 구축, 국내·외의 여성단체 정보 수집과 홈페이지 연계 등의 정보제공을 하여 여성단체 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수신과 발신처 역할을 한다.

③ 자치구 홈페이지에 지역사회 여성단체 활동 게시판 설치

공공문화복지시설, 시민단체, 부녀회, 주부환경연합을 비롯한 지역사회 여성단체가 사이버상에서 정보교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 홈페이지에 여성단체 게시판을 설치해 준다.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문화복지시설, 서울시와 여타 자치구, 시민단체의 여성단체 활동에 관한 정보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지역사회 활동 기회 제공과 확대

1) 행정과 여성 소집단의 파트너십 형성

① 지역 공공문화복지시설 운영 참여 활성화

활동자의 79.8%는 주부들에게 지역사회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자치구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여성 소집단과 함께 협력하도록 한다. 가령, 주민자치센터의 도서관 운영사업이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역축제를 여성 소집단과 협력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학습이나 단체활동 동안 자녀를 공동으로 돌보아 주는 공동육아시설을 여성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지원과 사업비 지원을 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이 취약한 자치구는 지역 여성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과 활동비를 제공한다.

② 문화 및 지역 공공행사 참여의 활성화

자치구나 서울시의 문화 및 지역 축제 행사에 여성 소집단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동적 참여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한다.

2)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에서 활동 기회 제공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공공문화복지시설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지역의 여성 소집단이 강사나 운영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의 방과후 학교나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지역의 여성 소집단이 교사로 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5. 대상별 소집단 활동 지원 전략

1) 10대 청소년의 소집단 활동 활성화

2000년 서울시 중고등학생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율(49.1%)이 남학생의 동아리 참여율(63.3%)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²⁾. 그리고 본 연구에서도 공공시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10대 동아리의 대부분이 남학생으로 구성된 소집단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의 자발적, 자율적 단체활동 경험은 그 자체로 교육적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단체 참여와 팀 작업을 할 수 있는 소양과 태도를 양성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10대 청소년의 팀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문화복지시설이나 시민단체에서 소집단 활동을 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청년모임을 결성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교사 연수와 지원프로그램

학생의 동아리 활동에는 교사의 역할이 크므로, 교사들이 여학생 동아리를 유도 및 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 초청 간담회, 지도교사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서울시 중장기 청소년 정책연구

② 10대 청소년 동아리 축제

여성부나 서울시, 자치구는 10대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개최한다.

③ 10대 청소년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청소년 소집단이 단체 프로젝트를 할 경우, 소정의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2) 여성 장애인 자조 소집단 지원 강화

① 재정 지원

여성 장애인이 자조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한다.

② 단체 연대 활동 지원

여성 장애인 자조모임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소집단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연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한다.

3) 직장 여성을 위한 소모임 지원

직장 여성들로 구성된 소모임의 경우는 주로 퇴근 후 저녁시간에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적합한 강사정보를 제공하고, 저녁시간대에 공공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해 준다.

4) 20-30대 젊은 층의 지역사회 단체 활동 유도

공공문화복지시설의 소집단 활동자 중에서 20-30대는 23.3%, 시민단체 소집단 활동

자는 20-30대가 60.8%, 부녀회·주부환경연합은 7.2%로 나타나, 단체 유형에 따라 활동자의 연령구성에 차이가 있다. 부녀회의 경우 활동자가 고령화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유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녀회 활동이 단순노력봉사에 치중하고, 활동의 전문성이 미약하여 20-30대 여성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젊은 연령층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부녀회가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력수준이 높은 20-30대 여성들은 자녀교육, 특정 분야의 전문적 활동에 관심이 많다. 자녀 관련 교육 강좌나 전문교육강좌를 통해 20-30대가 지역단체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을 위한 공공탁아지원을 해준다. 20-30대의 경우 시민단체 참여가 많으므로 시민단체 지원으로 20-30대 여성이 지역사회 조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6. 자원봉사활동 보상 지원체제 다양화

① 소정의 활동비 지원

적절한 보상체계를 통해서 능력있는 여성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 단체 결성의 목적이 일차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인 경우에는 회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비나 교통비 등의 금전적 지원에 민감하지 않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 일반인 대상의 지식이나 기술 전수를 하는 경우, 활동비나 교통비 등의 소정의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② 재료비 지원

도배 봉사나 제빵 봉사 등의 자원봉사활동은 기술을 가진 노력봉사이면서 재료비가 필요한 활동이다. 재료비가 들어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지원한다.

③ 교육 지원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이 환경, 상담, 교육 등으로 그 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활동 전문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수요 조사를 하고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활동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④ 명예형 지원

명예형의 한가지 방법으로 자원봉사활동가들이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정 봉사기간이 지난 자원활동가에게 명예 뺏지를 수여하고, 무료로 공공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나 자치구의 행사에 초대한다. 그리고 단체의 자원봉사 활동내용을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을 통해 홍보해 준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로버트 D. 푸트남, 1994, 안청시 외(윤희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2000.
- 루이스 코이저, 1970, 이광주(윤희김), 『살롱 카페, 아카데미: 지식인과 지식사회』, 지평문화사, 1993.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001.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중장기 청소년 정책연구』, 2001.
- _____, 『서울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002.
- 정수복,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아르케, 2001.
- 정진성,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 나남, 2001.
- 클라우스 오페, 1985, “새로운 사회운동: 제도정치의 한계에 대한 도전”, 정수복(편역),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3.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1999.
- 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
- 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 한국도시연구소, 『지역주민운동 리포트』, 1999.
- 한정자 외, 『시민운동에서의 여성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2. 해외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 A. Portes,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4, pp.1-24)
- APCF, 1997, *The City Community Building Bridges to Sustainability*, White Paper.
- Clement Elisabeth S. "Securing Political Returns to Social Capital : Women's
Associations in the U.S", in Robert I. Rotberg(ed)., *Patterns of Social
Capit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James S. Coleman,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upplement: S95- S120, 1988.
- M. Woolcock, "Social Capital and Economics Development",
Theory and Society. vol 27, 1998.
- OECD, *Cities and Regions in the New Learning Economy*, 2001.
- _____, *The Well-Being of Nations :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ECD, 2001.
- Paul Dekker, Eric M. Uslaner, 2001, "Introduction", in Paul Dekker,
Eric M. Uslaner(ed).,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Routledge, London, p. 3.
-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Simon & Schuster, New York, 2000.

부 록

부록 1 공공문화복지시설 설문지

부록 2 소집단 활동자 설문지

부록 1 : 공공문화복지시설 설문지

번호	동호회 명칭	동아리 시작연도	회원 수	주요활동내용 (I)	회원 성비 (II)	회원연령층 (III)
1					남: %여: %	
2					남: %여: %	
3					남: %여: %	
4					남: %여: %	
5					남: %여: %	
6					남: %여: %	
7					남: %여: %	
8					남: %여: %	
9					남: %여: %	
10					남: %여: %	
11					남: %여: %	
12					남: %여: %	
13					남: %여: %	
14					남: %여: %	
15					남: %여: %	

(I)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예: ① (독서동아리), ③ (이미용봉사) 등)

① 학습활동 ② 지역환경개선 및 교육문화운동 ③ 자원봉사활동 ④ 기타

(II) 회원성비의 경우는 남 %, 여자 %인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III) 회원들의 연령층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 특히 전업주부가 주 대상층인 경우는 “전업주부”라는 표기를 해 주십시오.
 - 각각의 연령층을 %로 나타내 주십시오(예: 독서동아리 ② 50%, ③ 50%)

부록 2 : 소집단 활동자 설문지

--	--	--

서울시 여성 소집단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정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 소집단 활동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아, 2002년 올해 “서울시 여성 소집단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이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소집단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여성 소집단 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처리되어 통계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시 여성 소집단 활동의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셔서 설문조사에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9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락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주 소: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 4-5

담당자: 신경희, 이순희(TEL:726-1164, 1038)

E-mail: skhee@sdi.re.kr/leesh@sdi.re.kr

1. 귀하께서 현재의 단체 활동을 시작한 시기의 연령과 연도를 적어주십시오.

(시민단체의 경우는 시민단체 활동을 처음 시작한 시기와 연령을 적어주십시오)

(연도: _____) , (시작연령: _____)

2. 귀하는 현재의 단체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였습니까?

- ① 복지관, 문화원,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문화복지시설에서의 강좌수료 후
- ② 백화점, 문화센터 등 사설학원에서의 강좌수료 후
- ③ 단체 회원으로 있는 아는 사람의 권유로
- ④ 단체 활동을 하고 싶어서 홍보물 등을 보고 직접 찾아감
- ⑤ 공무원의 추천·권고로
- ⑥ 기타(_____)

3. 귀하가 소집단 활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 선택)

- ① 나 자신을 찾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 ②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서
- ③ 자원봉사활동이 자녀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④ 사회발전 및 지역문제의 해결에 참여할 수 있어서
- ⑤ 여가시간을 보람되게 보내기 위해서
- ⑥ 가정생활을 합리적으로 꾸리는 데 도움을 받고 싶어서
- ⑦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 ⑧ 기타(_____)

4. 소집단 내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예: 회장, 총무, 일반회원, 연락담당 등등)

(_____)

5. 귀하께서는 소집단 활동을 위해 한달에 평균 몇번 모임에 참여하십니까?

(예: 한달에 한번)

()

6. 귀하께서는 현재의 소집단 활동 외에 개인적으로 다른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현재나 과거 참여 모두 포함)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공공기관의 자원봉사센터 | <input type="checkbox"/> ② 시민단체 활동 |
| <input type="checkbox"/> ③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운영위원회(도서관, 주민자치센터, 학교, 구청 등) | |
| <input type="checkbox"/> ④ 부녀회 | <input type="checkbox"/> ⑤ 학부모회, 어머니회 |
| <input type="checkbox"/> ⑥ 종교단체 | <input type="checkbox"/> ⑦ 운동·취미 동호회 |
| <input type="checkbox"/> ⑧ 없다 | |
|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 |

7. 귀하께서는 소집단 활동과 관련해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계속 할 의향이 있는지)

- ① 매우 하고 싶다
- ② 여건이 된다면 하고 싶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저 그렇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귀하께서는 소집단 활동을 하면서 활동의 전문성을 위해 하고 계신 것들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대학이나 대학원, 평생교육원 등에 입학하여 관련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다
- ② 관련 분야 강좌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다

- ③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이미 취득했다
- ④ 관련 분야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공연·전시관람을 한다
- ⑤ 소집단 활동 외에 특별히 찾아서 하는 일은 없다
- ⑥ 기타 ()

9. 귀하께서는 경제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과거에 한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 (→ 9-1로 가십시오)
- ② 경제활동 경험이 없다
- ③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 9-2로 가십시오)

9-1. 귀하께서는 어떤 계기로 경제활동을 그만두시게 되셨습니까?

- ① 결혼 시점에서 그만 둬
- ② 출산·양육 시점에서 그만 둬
- ③ 쉬고 싶어서 그만 둬
- ④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용주의 부당대우 혹은 해고 등으로
- ⑤ 적성에 안 맞고, 새로운 일을 찾고 싶어서
- ⑥ 장래 비전이 없어 보여서
- ⑦ 기타 ()

9-2.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9-3. 귀하께서는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은 앞으로 계속할 의향이 있으신지)

- ① 있다
- ② 없다

9-4. 귀하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당한 일자리 부족
- ② 자녀 양육
- ③ 실력과 자신감 부족
- ④ 자금 부족
- ⑤ 기타 ()

■ 해당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10.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회원간의 친밀도					
1. 회원들의 남편이나 자녀에 대해 서로 알고 있다	5	4	3	2	1
2. 회원들이 가족이나 친구처럼 친밀하다	5	4	3	2	1
3. 회원들간에 경조사를 챙긴다	5	4	3	2	1
4. 회원들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	5	4	3	2	1
5. 나는 회원 가족들간 모임이 주어진다면 가족들과 참석할 의향이 있다	5	4	3	2	1
가족의 지지					
6. 가족들과 나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편이다	5	4	3	2	1
7. 가족들이 나의 활동과 관련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는 편이다	5	4	3	2	1
8. 활동에 남편과 자녀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	5	4	3	2	1
9. 활동으로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고 본다	5	4	3	2	1
10. 활동으로 인해 자녀교육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5	4	3	2	1

10.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소집단과의 연계						
11.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5	4	3	2	1
12.	분야가 비슷한 다른 소집단과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다	5	4	3	2	1
13.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와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다	5	4	3	2	1
14.	외국의 관련 여성단체와 연결해서 활동하고 싶다	5	4	3	2	1
소집단 활동의 의미						
15.	개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게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	4	3	2	1
16.	나를 찾고 성장한 느낌이 든다	5	4	3	2	1
17.	단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향상되고 활동 지속성 이 있다	5	4	3	2	1
18.	여러가지 정보를 주고 받기 때문에 자녀교육이나 가정생활에서도 도움을 받는다	5	4	3	2	1
19.	본격적인 사회 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준비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5	4	3	2	1
20.	소집단 활동을 통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해 졌다	5	4	3	2	1
21.	소집단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졌다	5	4	3	2	1
22.	활동으로 인해 가능한 이 동네에서 살려고 한다	5	4	3	2	1
23.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지역사회 소집단 활동을 찾아서 하고 싶다	5	4	3	2	1
24.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계속 활동을 해 나갈 것 이다	5	4	3	2	1

10.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활동 후의 사회적 시각 변화						
25.	활동 후에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5	4	3	2	1
26.	활동 후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5	4	3	2	1
27.	활동 후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5	4	3	2	1
28.	활동 후에 공공시설·기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5	4	3	2	1
29.	활동 후에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5	4	3	2	1
30.	활동 후에 시장을 비롯한 구청장·구의회 등 지방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5	4	3	2	1
31.	서울시나 자치구의 공모전, 경연대회, 자원봉사 축제 등의 공공행사는 소집단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소집단 활동의 애로점						
32.	집안 일로 참여에 애로점이 있다	5	4	3	2	1
33.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활동하기가 힘들다	5	4	3	2	1
34.	회원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5	4	3	2	1
소집단 활동에 지원되었으면 하는 사항						
35.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5	4	3	2	1
36.	필요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강좌 지원이 필요하다	5	4	3	2	1
37.	강사지원 및 강사정보제공이 필요하다	5	4	3	2	1
38.	소집단 관련 축제 및 경연대회, 공모전개최 등이 필요하다	5	4	3	2	1
39.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5	4	3	2	1
40.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5	4	3	2	1
41.	주부들의 지역사회 활동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예: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활동 등)	5	4	3	2	1
42.	여성 소집단에 대한 사례소개 및 홍보가 필요하다	5	4	3	2	1

11.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소집단 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두개 선택)

1 순위: _____	2 순위 : _____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슷한 분야의 다른 소집단 활동 정보제공 ② 장소제공 및 시설장비, 재료 등의 지원 ③ 필요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강좌 지원 ④ 강사지원 및 강사정보 제공 ⑤ 소집단 관련 축제 및 경연대회, 공모전 개최 ⑥ 사업비 등의 금전적 지원 ⑦ 행정공무원들의 의식변화 ⑧ 주부들의 지역사회 활동기회의 제공(주민자치센터 강사로 활동 등) ⑨ 여성소집단에 대한 사례소개 및 홍보 ⑩ 기타(_____) 	

■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1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1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단 중퇴나 재학중인 경우는 해당 학력에 포함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무학 | <input type="checkbox"/> ② 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③ 중학교 |
| <input type="checkbox"/> ④ 고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⑤ 전문대 | <input type="checkbox"/> ⑥ 4년제 대학교 |
| <input type="checkbox"/> ⑦ 대학원 이상 | | |

14. 귀하의 종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없음 | <input type="checkbox"/> ② 기독교 | <input type="checkbox"/> ③ 천주교 |
| <input type="checkbox"/> ④ 불교 |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_) | |

15. 귀하의 결혼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별거 ④ 사별

16. 귀하의 한달 평균 가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0만원-150만원 ③ 151-200만원
 ④ 201-250만원 ⑤ 251-300만원 ⑥ 301-350만원
 ⑦ 351-400만원 ⑧ 401-450만원 ⑨ 451-500만원
 ⑩ 500만원 이상

17. 귀하는 현재 본인의 가정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 ② 중상 ③ 중중 ④ 중하 ⑤ 하

18. 자녀는 몇 명이며 막내자녀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_____명, 막내자녀 _____살

19. 귀하께서 살고 계시는 자치구는 어디입니까?

-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㉖ 기타(지역명:_____)

20.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 언제부터 거주하셨습니다습니까?

(_____) 년도

시정연
2002-R-34

**서울시 지역사회 여성 소집단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인 백용호

발행일 2002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 4-5

전화: (02)726-1164 팩스: (02)726-1293

ISBN 89-8052-289-4-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